뉴 비 전 교 회 계 간 지

New Vision

통권 245호
WINTER
2021

우리의 산 소망 되신 예수

2021년 새해가 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을 뒤로 두고 시작한 새해이기에 새로운 시작의 의미는 더욱 강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이 정상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아이들은 학교로, 어른들은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가 열심히 일하며 살고 싶습니다. 더 이상 보이지 않는 병균에 지배받는 삶에 묶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육신의 삶보다 더욱 중요하게 영적인 삶에 참된 회복과 변화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며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가는 교회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것을 소원합니다. 2020년 어려움 가운데 경험했던 주님과의 기도시간들, 말씀묵상의 깊이, 그리고 예배와 교회를 사모하는 간절함이 2021년 올해에는 더욱 성숙하고 성장하는 신앙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그렇기에 이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고,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로 더해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시고, 절망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가운데 예수님에게 우리의 소망을 둘 때,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소망을 둔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로 채우시고 넘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2021년은 예수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끊이지 않는 해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이 한 해를 만들어가기 위해,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렘29:11)

담임 목사 이진수 올림

New Vision

WINTER 2021

통권 245호

하나님의사람들을세워세상을변화시키는교회

Building God's People to Transform the World

발 행 인 | 이진수

지도목사 | 황의현

출판임원 | 제임스 양

편 집 장 | 배난모

편 집 팀 | 이영숙, 최영수, 박영미, 이지연
이민기, 윤미영, 최희주, 정재오,
김원철

디자인팀 | 류양희, 박성민, 이수잔, 박현주

일러스터 | 최두나

발행한 곳 | 뉴비전교회
New Vision Church
1201 Montague Expressway
Milpitas, CA 95035
408.719.0000
www.newvisionchurch.org

New Vision은 뉴비전교회 잡지로 일년에 4번 계절별로 출판되며 성도의 교제와 전도의 목적으로 성도 여러분들의 글과 그림, 사진으로 만들어집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느끼시고 경험한 내용을 시/수필/간증문 등으로 자유롭게 쓰셔서 예배사역원 메일함 또는 배난모 집사(nvpub@newvisionchurch.org)에 이메일로 제출하시기바랍니다. 이 중 선별하여 뉴비전호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회내에서 믿음과 섬김의 본을 보이는 분이나, 좋은 모임, 또는 알고싶은 사역에 대한 취재를 요청 하실수도 있습니다. 본서의 글, 사진, 그림은 뉴비전교회의 소유이며 사전 허락없이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 New Vision Church 2021

ON THE COVER

[사진 | 김관일]

Contents

2	담임목사 권두언	우리의 산 소망되신 예수	이진수 담임목사
3	목차		
4	새 사역원장 소개	전도 사역원장	이종성
		미디어 사역원장	이현일
5		교육 사역원장	정찬영
6	교회 행사	난민가정 성탄선물 전달	최혜숙
7		멍족선교팀	이광희
9			Eunice Lee
11	교회창립40주년	회고록 '아, 하나님의 은혜로'	최창섭
21	목회자 칼럼	성도가 힘써 지켜야 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지춘 원로목사
23	간증	퍼스펙티브스 |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서은영
24		퍼스펙티브스 | 다시 시작!	김경식
25	뉴비전성경학교	바울서신 | 오직 믿음으로	정상규
26		바울서신 | 한마디 소감문	김미영 외
27		친밀한 부부의 삶	김유미
28		1단계 | 성경공부 중 주신 생명의 선물	임수경
29		1단계 | 초신자에게 부어주신 기도의 삶	장정윤
30		1단계 | 방황 중에 만난 믿음의 사람들	하은영
31		1단계 | 소중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김효정
32		2단계 | 준비된 전도자	신주희
33		2단계 | 하나님의 은혜	안지현
34		2단계 | 때를 예비하시는 하나님	이소영
36		2단계 |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온…	조순임
37		3단계 | 때를 예비하시는 하나님	박은경
38		3단계 | 신앙의 구슬을 꿰어주신 사람들	오설화
40	디모데공동체	새로운 목자들을 소개합니다!	정가영 외
42	역사 속 성경 (1)	십자군의 배경	김원철
44	영화로 만나는 고전(16)	쿠오 바디스 Quo Vadis	안재규 목사
45	사진으로 보는 뉴비전	성탄절 야외예배	황의현 목사
46	향수 간증		

새 사역원장 소개

이종성 - 전도 사역원장

포스트 코비드 시대 앞으로 3년을 전도사역원에서 섬기게 된 이종성 집사입니다.

전도 사역원은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새 가족 사역과 주님의 지상 명령을 삶으로 실천해 가는 전도 사역, 또 주님이 주신 강력한 무기인 기도 사역으로 뉴비전교회를 떠받들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 전도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었고 미국에 건너와 뉴비전에 등록하고 처음 시작한 사역이 기도 사역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얼굴인 새가족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온정이 가득한 교회로 변화되어 감을 믿습니다. 앞으로 3년은 코비드로 인해 많은 사역의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함께 사역하시는 분들의 손과 발이 되어 솔선수범하는 봉사자가 되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또한 기존 사역이 침체하여 새로운 사역의 발굴을 위해 목사님과 임원님들, 팀장님들과 머리를 맞대어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려 합니다. 전도 사역원 화이팅!!

사.역.원.장. 4행시

사 ♠ 사랑의 감동과 하나님의
역 ♠ 역사를 지대로 이루어가는
원 ♠ 원조(오리지날)
장 ♠ 장(마당) ~~ 뉴비전교회 화이팅!! 전도 사역원 할렐루야!!

이현일 - 미디어 사역원장

미디어 사역원은 미디어(글, 음성, 사진, 영상)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역원입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된 비대면 환경에서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 생활을 뉴 미디어와 콘텐츠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여정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역원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팀원 중심으로 사역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하고 소통을 잘하여 사역자들, 조직간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Hardware, Software가 유기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는 사역원을 구축하고 싶습니다.

미디어 사역원은 2021년 새롭게 시작되는 사역원입니다. 우선 조직을 SET-UP하여 팀별 사역 활성화하고 담임 목사님 목회 비전에 맞는 미디어 사역 전략 수립하고자 합니다. 또한 미디어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기반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사.역.원.장. 4행시

사 ♠ 사랑이 넘치는 미디어 사역원
역 ♠ 역동적인 힘과 기술이 넘치는 사역원
원 ♠ 원만한 소통을 중요시하는 사역원
장 ♠ 장황한 사역 수행보다는 뉴 미디어를 통한 새로운 사역을 감당하는 미디어 사역원 홧팅

정찬영- 교육사역원장

2021년부터 교육 사역원장으로 섬길 정찬영 집사입니다. 먼저 교육 사역원장으로 섬길 수 있는 소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뉴비전교회를 섬기면서 주로 아이티와 홈페이지 관련 봉사를 해 왔고 올해는 COVID 팬데믹으로 다른 어느 해보다 온라인으로 많은 교육 사역이 이루어지다 보니 성경학교와 향수의 온라인 등록과 같은 교육 사역과 관련된 IT 봉사를 더 많이 해 오고 있었습니다. 말씀의 양식을 통해 믿음을 더 든든하게 세워주는 뉴비전 성경학교가 저의 믿음 성장에도 크게 도움이 되었기에 성경학교 IT 봉사를 하면서 부족하지만 어떻게 하면 교육 사역에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을 늘 해왔는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번에 교육 사역원장으로 섬기는 기회를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사역원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말씀을 공부하는 뉴비전 성경학교, 생활에 도움을 드리는 열린 학교, 자매님들을 위한 향수 예배, 뷸라 여성 사역, 가정 사역과 가정 예배, 새로운 회복 사역과 사랑방 사역, 그리고 도서 사역까지 성도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뉴비전의 모든 교육을 담당하는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사역원은 독립적으로 체계화된 팀사역을 하기 때문에, 각 팀의 단기적, 장기적 사역 목표를 기획하고 수립해서 미래 지향적인 교육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뉴비전교회의 미래 모습을 만들고자 합니다. 특히 2021년에는 성도님들이 COVID 팬데믹을 주님 안에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COVID 팬데믹 이후에 필요한 여러가지 교육 사역을 미리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기도하면서 임원들과 함께 팀장님과 팀원들을 잘 섬기면서 많은 소통을 하며 섬기는 교육 사역원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역.원.장. 4행시

사 ♠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기는 교육 사역원
역 ♠ "역시"라고 칭찬받는 교육 사역원
원 ♠ 원하시는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 사역원
장 ♠ 장차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교육 사역원

난민가정 성탄선물 전달

글 | 최혜숙

할렐루야!
성탄절을 맞이하여 난민 팀 여러분들의 기도와 섬김으로, 근거리 지역 난민 학생들과 가족 그리고 Sacramento와 Fresno로 이주한 가정을 포함한 14가정의 60명에게 성탄 선물을 전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주셔서, 2017년 10월 28일부터 난민 선교팀에서는 Seed Homework Club & ESL- 지금의 Seed Academy를 시작하여, 난민 가족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요즘은 난민 자녀들의 학교 숙제를 도와 주는 Homework Club, 난민 부모님들의 영어를 도와주는 Adult ESL Class 및 난민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Good News Club을 매주 Zoom으로 진행합니다. Good News Club은 2019년 가을부터 시작하여 매주 토요일에 진행하고 있으며, 그중 몇 학생들은 끝난 뒤에도 남아서 궁금한 내용을 진지하게 질문을 하여 교사들이 오히려 도전과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스리랑카, 아프리카 등지에서 고통의 과정을 겪고 미국에 들어왔지만, 이곳에서 문화 차이와 언어 스트레스, 낮은 임금으로 인한 빈곤 및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 여전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난민들은, Seed Academy를 통하여 그들을 기억하고 관심을 두는 크리스천들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예년처럼 모든 가정을 다 방문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대부분의 난민에게 전화나 메세지로 먼저 연락을 드리고, 이진수 목사님의 성탄 메세지를 담은 성탄 카드와 함께, 성탄 선물과 가정에 필요한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는 gift card들은 우편으로, 혹은 직접 방문이 필요한 가정들은 문 앞에, 그리고 Good News Club에 참여하는 난민 자녀들에게는 복음클럽 교사들이 성경을 선물과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새크라멘토로 이사한 무슬림 가정에서 아이들이 Seed Academy 선생님의 성탄 방문을 기억하고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한 선생님이 자원하셔서 새크라멘토까지 직접 가서 선물을 전달한 것입니다. 성탄절을 축하하지 않는 무슬림 가정의 아이들이 성탄절을 기억하는 것도 감사하고, 난민팀의 성탄 선물, 성탄 카드 및 성경 전달을 통하여 무슬림 가정이 계속 관계를 맺으며 복음의 끈을 함께 붙들고 있음이 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가정의 남동생이 그 근처에 살고 있는데 연락이 되었고, 그의 한 살배기, 막내아들 이름이 유세프 (요셉)인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아들 이름으로 연결이 되어 Jesus Film에서 '다리어' 번역 '예수 영화' 사이트와 요셉이 나오는 장면이 있는 예수님 탄생 부분의 Video clip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 더욱 감사합니다. 이 무슬림 가정이 예수님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을 알아 가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Day care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다가 Corona virus로 인하여 Layoff 된, 두 어린 자녀와 함께 사는 어려운 난민 싱글 맘이 있는데, 뉴비전교회의 한 목장과 몇몇 분들께서 사랑의 헌금을 모아 주셔서 잘 전달할 수 있었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끝으로, 아프리카 에리트리아에서 미국으로 온 지 일 년 된 한 난민 가정에서 난민팀으로 보내온 메세지를 나눕니다.

"Thank you, and we are so greatful that you are with us and we wish you Merry Christmas "

이 어려운 시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기억하고 관심을 두고 선물을 보낸 그 선물을 받은 난민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따뜻하게 흘러가기를 기대하고 기도드리며, 난민 성탄 선물 전달을 위해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며,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몽족선교팀

글 | 이광희

매달 셋째주면 프레즈노 몽족의 아이들에게 내려가던 일정이 팬데믹으로 전면중단 되었을 때 이렇게 오랫동안 못가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다.
매달 만나던 아이들이 집안에 갇혀 이 긴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던 차에 멈춰졌던 프레즈노 행이 크리스마스를 맞이 하여 조심스럽게 진행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줌미팅이 이루어지며 팀이 속속 꾸려지고 이 어려운 시기에 아이들과 가정에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이 전하여 지는 기회를 꼭 주십사 우리는 마음을 모아 기도했다.
총 16개 팀이 가정단위로 꾸려졌고 12월 19일 이른 아침 안개가 가득한 고속도로를 달려서 프레즈노 하모니 교회에 도착하여 파킹랏에 미리 준비된 선물과 성경책 그리고 전도지를 싣고나니 차 트렁크가 가득 찼다.

각자의 차안에서 줌미팅으로 일정과 안전수칙을 전달 받고 하모니교회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받으며 우리는 출발했다.
각 팀마다 방문하여야 할 가정은 20~30 정도였다. 주소를 찾아 나서며 어떻게 만남이 이루어질까 하는 기대가 생겼다.
방문리스트를 들고 우리는 대문앞에 서서 우리를 소개할 때 아무래도 팬데믹의 영향으로 방문을 거절당하기도 했고 아이들을 직접 만나는 것이 어렵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많은 아이들에게 선물과 복음의 메세지를 전할 수 있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각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았다.

아이들을 못만나 돌아서 나오기도 했지만 또 어느집에서는 사촌들이 모여 있어 한꺼번에 15명이 넘는 아이들을 만나기도 했다. 그 중에서도 예전에 만남이 있었던 가정을 방문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 그 가정에는 모두 8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태어난지 얼마안되 엄마 품에 안겨있던 아기가 막내였다. 그 아기가 이제는 막 걸어다니는 모습이 왜 그렇게 감격스러웠을까. 이 코로나

의 와중에도 아이들은 잘 자라고 있으니 염려말라고 보여주시는 것 같았다.
그렇게 모든 집을 돌고 산호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랩업미팅을 하며 각자 소감을 나누었다.
미리 준비해간 짧은 비디오를 함께 보며 예수님을 전하신 자매님, 기도해 주시고 선물 준비해준 분들의 수고로 많은 아이들을 만났고 4명의 아이들이 영접하는 기쁨이 있었다고 나눠주신 자매님, 방문한 집마다 기도를 받겠다고 해서 함께 기도하고 성경책을 나눠드릴때 요한복음 3:16절 말씀을 함께 읽을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하신 자매님, 나이 많고 혼자 지내는 분들을 만나 기도할 때 기도받으며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던 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신 형제님, 함께한 자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에서 아이들과 함께 할 때 크던작던 좋은 것들이 있음을 다시 확인하셨다는 형제님, 처음이라 선물전달과 복음전달이 어려웠지만 미리 준비해가신 성탄카드를 각 가정에 함께 전달하셨다는 형제님, 아이가 4명 있는 가정을 만났는데 매일밤 성경 읽는 본이 되는 가정을 만났다고 나눠주신 자매님,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인 젊은 아기엄마 얘기, 올해 가족의 죽음으로 혼자라는 생각에 어려워 하는 분에게 위로의 메세지를 전하신 자매님, 주소 착오로 잘못간 아파트에서 만난 한 분이 다른 분들을 소개해주고 실수가 실수로 끝나지 않음을 나눠주신 자매님, 축복기도를 가정마다 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나눠주신 형제님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기쁨이었고 우리 모두의 감동이었다.

오히려 우리가 위로 받고 오히려 우리가 더 감사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하모니 교회의 황인주 목사님이 나눠주셨던 얘기도 힘이 되었다.

코비드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일주일에 두번 스쿨런치를 전달하시는 황목사님의 수고로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더 많은 밭에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있음에 기대가 되기도 했다.

글 | Eunice Lee

It's not an exaggeration to say that this pandemic has changed the world. But NVC had this opportunity to give back to the community and spread God's love during these hard times. Christmas is a time of celebration where we remind ourselves of our Lord and Savior's birth. I wanted to be a reflection of God's generosity, and so I was very happy that my family embraced the chance to share God's love with NVC as part of the Hmong mission.

Fresno is a city where many displaced Hmong people live. They first came as refugees from Laos and surrounding countries and settled down in public housing projects, which many still live in to this day. The Hmong population is one of the most marginalized of the Asian-American populations in the United States, and many of the Hmong in Fresno face poverty and rely on public assistance to get by. Harmony Korean Church has been working very hard for the past many years to reach out to the Hmong community through outreach events, Korean language lessons, acupuncture clinics, and activities for children. With the pandemic, many of these activities have been shut down for the unforeseeable future. Many of the Hmong people, who are low-income, have been hit particularly harshly by the pandemic.

This season, New Vision decided to help Harmony Korean Church in their mission to go to the community directly and give out presents to the children who usually come to the church. Although our church helps out only occasionally, the pastor of Harmony Korean Church is still continuing in his mission to reach the Hmong community. Now, he visits from home to home, going to schools to pick up free lunches and passing them out to children twice a week. It is a different avenue of outreach than he was used to, but he still took advantage of the opportunity to still stay connected to the community, and I was touched by his heart for the people. Though it was a government-funded opportunity, he was still able to share God's love. To him, it felt as if he was sowing the seeds and he trusted in God's ability to do the rest. His passion reminds me that as long as we are willing, God opens new doors for us to keep on continuing in the mission to bring more people to know him. Even when we feel like he is not working, especially during times like these, He is still working for our good in ways that we may not realize.

I was also very blessed by seeing our church members come together to spread God's love. Despite the obvious limitations of social distancing and stay-home orders, our church members worked very hard to ensure that this Christmas mission was a success. They worked hard to get donations for the children's presents, went out to purchase everything themselves, and organized volunteers in order to have a team to drop the presents off to each address. We all took very drastic measures to ensure everyone's safety. Volunteers wore gloves, face masks, and face shields to ensure their safety and the safety of the Fresno community members. It was a bit scary and it was a reminder of how dangerous COVID-19 is, but this entire experience was a huge blessing.
At first, I was very nervous. I wasn't sure how to

start off the conversations with each family or how to end them. Especially with the fear of COVID-19, I wanted to be extra careful with the way I presented myself to the people we were trying to reach so that they could feel safe and secure. With gift boxes and pineapples in our hands, we knocked on each door with a smile. We asked families for prayer requests and prayed for them together. There was sometimes a language barrier, especially when the people we encountered didn't speak English. But giving gifts is universal, and words were not always necessary to share God's love for them. It was wonderful to see familiar faces on our route. In one of our routes, we visited a familiar household with eight children; the last time I had seen them, the baby had just been born. Now, he was a year old and was able to walk around by himself. They were very happy to see us, and even offered us some eggrolls as thanks for the gifts.

We had a zoom debrief session on our drive back home, and while listening to what people said, I was happy that many children were able to be reached. Some church members even shared how some people were able to accept the Lord when the gospel was shared. Because of the pandemic, many people became disconnected from each other, but for us, we were able to stay connected through the church. The hardest part of the pandemic has arguably been the loneliness and isolation that ensues from being separated from others for so long. It is a difficult time to find hope and each day seems to drag on with no end in sight. Yet in the moments when time felt stopped for me, God was still moving. The stories that we shared that day showed me that God was working in others' lives, and it wasn't just an experience that I was watching from the outside – He reminded me that I, too, am a part of the body. The gentle grace that God showed me was the most memorable part of the experience. Faith is not something we do alone, but one that we do together as one body in Christ.

I thank God for this opportunity to share his love with the Hmong people of Fresno. I hope to see them again, and I know that he will continue to protect them during these difficult times. I will continue praying that as God touches their hearts, that they will come to know him and love him. I know that Harmony Korean Church is doing great things with the Lord's kingdom, and I am proud that New Vision Church partners with them with this work.

교회창립40주년

'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날의 회고 / 교회와 나)

글 | 최창섭 원로안수집사

새해 2021년 2월이 되면 우리 교회가 '산호제 제일침례교회'로 세워진 지 40주년이 되는 뜻깊은 창립기념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동안 수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을 받았고 믿음의 성장과 함께 인근 지역 커뮤니티를 섬기며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교회로 오늘에 이르게 되었음을 온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리기 원합니다. 40년이라는 우리 교회의 역사 흐름과 함께 저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기 원하는 마음으로 지난날들을 회고해 봅니다.

미국에 온 저는 몇 년이 지나 1985년 5월 산호세에 있던 어느 교회를 찾아가려다 Foxworthy에 위치한 교회 이름이 비슷했던 다른 교회의 오후 1시 주일 예배를 드리러 잘못 오게 되었는데 이 교회가 바로 뉴비전교회로 이름을 바꾸기 전의 산호제 제일침례교회입니다. 주소만 가지고 교회를 찾아오니 미국인 교회에서 한국인들이 예배드리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교회 성도님은 전체 약 200명 정도였으며, 당시 이지춘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따발총을 쏘는 것같이 말이 아주 빠르고 열정적이었습니다. 설교 시간만 약 35~40분이었으나 지루한 것을 느낄 수 없었으며 처음 예배를 마치고 성도님들이 교회 본당을 나갈 때 성가대에서 '주기도문 찬양'을 했는데 저는 그때 그 찬양을 들으며 참 좋은 영적 느낌을 들었으며 그 느낌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날 첫 예배를 드린 후 친교 시간을 통해 도넛과 커피를 마시며 담임 목사님, 성도님들과 교제의 시간을 가지며 우리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한 첫날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지춘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됐냐는 질문에 교회를 잘못 찾아왔다고 대답을 했는데 35년이 지난 오늘날 생각을 해보면 처음 산호제 제일침례교회로 온 것이 잘못된 길(Wrong Way) 이었으나 지난날을 돌아보면 우리 교회에 오게 된 것이 결국 아주 잘 된 길(Good/Right Way)이며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나이 30대에 우리 교회에 출석한 이후 세월이 지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과 천국의 영생을 확신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또한 저 자신의 신앙생활, 삶의 가치가 많이 변화되었고 지금도 그런 과정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창기 우리 교회의 주일 예배 설교 말씀과 성경학교 소그룹 모임(당시 주교 또는 주교 반이라 칭했으며 오늘날의 목장), 그리고 금요 성경학교(금성)는 이곳 실리콘밸리, 베이 지역에서 정평이 났으며 금성에는 다른 교회 성도님들도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교회 성도님들의 대부분이 금성에 참석하여 말씀 공부를 통한 제자 사역이 아주 활발하였으며 교회 직분자나 중요 사역을 위한 자격 요건이 3단계 이상 성경 공부를 이수해야 했습니다. 저도 물론 지금은 없는 6단계(최선의 삶, Master Life)까지 금성에 참석하였습니다. 금성 3단계 교실을 당시 최영기 교육 목사님이 담당하셨는데 그때 한 시간 계속 기도하기와 자신의 죄 소각식이 지금도 생각나며 3단계 성경 공부를 통해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배운 것이 저에게는 큰 영적 소득이었습니다. 금성 6단계 '최선의 삶' 성경 공부를 할 때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적는 것이 좋다는 강의를 듣고 그때 설교 노트를 시험 삼아 시작했던 것이 오늘날까지 설교를 적으면서 듣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1981년에 창립된 후 건강하게 부흥 성장을 하게 된 요건 중 하나는 이지춘 원로 목사님의 목회 열성과 초창기에 아주 헌신적이며 존경 받을 만한 집사님들이 담임 목사님과 함께 충성을 다해 교회의 기둥 역할을 하며 교회를 섬기고 여러 성도님에게 본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서리 집사도 사무 총회에서 매년 투표로 선출을 하여 새로 추가되는 서리 집사는 매년 10명 미만의 소수이기에 서리 집사가 되기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우리 교회가 부장 집사 제도였는데 저에게는 부장 집사들은 모두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면서 곧 주교반과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구역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는데 당시 제가 소속한 주교반 교사는 (오늘날 목자) 전종태 집사님 (오늘날 원로 안수집사님)이었습니다. 주교반 모임 때 공과책으로 성경 공부 및 나눔의 시간을 가졌는데 해당 성경 본문에 관한 역사적, 성경적 배경 등을 잘 준비 해와 설명을 해 주며 인도하는 아주 훌륭한 집사님으로 차후 오랫동안 이성원 원로 안수집사님과 함께 우리 교회의 교육부장으로 또한 금성 신약 개론을 강의하며 섬겼습니다. 그때 임영곤 권사님은 구약 개론 교사로 섬기셨습니다. 주일 예배의 명설교 말씀과 매주 기다려지는 주교반 모임, 금성 성경 공부, 구역 예배 모임, 그리고 교회 한글 학교와 사회부에 소속되어 배우며 교회를 섬기는 봉사는 제 신앙생활의 기초를 다지는 데 매우 중요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출석을 시작한 후 첫 번째 달 Fremont 지역 구역 예배에 처음 참석하였는데 당시 구역장이던 안상준 집사님이 구역 예배를 드리며 처음 참석을 한 저에게 부구역장을 하라고 일방적으로 임명을 해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며 얼떨결에 그냥 부구역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구역장이 된 것이 우리 교회에서의 처음 직책이 되었습니다. 이후 몇 달 안 되어 구역장님의 개인적 사정으로 구역 예배에 참석을 못 하게 되어 제가 부구역장이기 때문에 지난 두 번의 구역 예배 때를 기억하며 구역 예배를 인도하게 되면서 결국 그냥 구역장이 되었습니다. 구역장에 이어 구역 임사와 부 교구장 되어 심방과 구역 식구들 경조사에 열중하게 되었는데 어느 성도님 아기 첫 돌을 위해 아기 걷는데 보조용으로 사용하는 Walker를 구입하여 구역에서 축하하며 선물을 했던 것, 그리고 Fremont에 있는 Elizabeth Lake에서 구역 야외 예배를 드리고 어둠이 오고 별이 보이는 시간까지 구역 식구들이 함께 교제를 나누며 재미난 시간을 가졌던 것, 구역 지역에 있는 한국 식품점 주위에서 구역원들과 함께 노방 전도를 했던 것이 좋은 추억으로 생각이 납니다.

산호제 제일침례교회에서는 매년 2월 첫 주가 창립 기념 주일에 주교반 대항 성극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성극 대회를 위하여 주교반에서는 최소 2~3개월 전부터 각본을 만들고 배역을 정해 아주 열심히 준비하고 성극 대회에 출연하는 아주 흥미로운 교회의 연중행사였습니다. 거의 모든 주교반이 성극 대회에 참석하여 전 교인들이 참여하고 참관을 하였습니다. 몇 달 동안 반원들이 같이 연극 연습과 함께 웃고 교제를 나누며 특히 새 교우님들과

모두가 속히 친숙해지는 교회의 연중행사였습니다. 저는 성극 중 교회 안에서 고전 13:1-3을 낭송하는 교역자의 역할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성극 중 솔로몬의 지혜(당시 이원복 집사님과 김순덕 집사님이 출연)로 아기의 주인이 누구인지 판결하는 멋진 연극이 있었으며 주평 연극 전문인이 연출하여 공연한 연극에 우리 교회 이상국 형제가 주인공으로 발탁이 되어 출연하는 것을 관람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해 목장 또는 공동체 성극 대회를 재개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1991년은 제 신앙생활에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당시 서리 집사는 매년 사무총회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을 했는데 교회 출석을 한 지 6년 만에 예상치 않게 제가 서리 집사로 선출이 되어 처음으로 집사의 직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사가 되면서 또한 같은 해에 친교부장이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과분한 직분, 직책이었습니다. 집사가 된 후 제가 제일 먼저 한 것은 십일조 헌금이었습니다.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집사가 되었으니 십일조 헌금은 당연히 해야 한다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임 친교부장이 되어 여태까지 매 주일 예배 후 친교 시간에 도넛과 커피, 보리차가 항상 제공되었는데 당시 문영순 집사님이 연세가 드신 분 중에는 도넛을 안 드시거나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저에게 한 번도 아니고 세 번 정도 말을 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었는데 이후 당뇨병이 있는 성도님들이나 연세 드신 성도님들에게 설탕기가 많은 도넛이 안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일 년 주일 친교 예산을 52주로 나누어 그 금액을 모든 주교반에게 알리고 주교반에서 매주 예배 후 교회 성도님들의 친교를 위해 도넛 말고 다른 것으로 대체해 각 주교반에서 임의로 준비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후 시행이 되어 도넛은 주일 친교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전 교인의 친목 도모를 위해 스포츠 레저로 매주 토요 하이킹으로 샌안토니오 파크 트레일 걷기, 그리고 토요 조기 축구와 함께 탁구 세 가지를 시작했는데 토요 하이킹에는 이영규 집사님, 탁구는 단민철 집사님, 그리고 토요 조기 축구는 이효식 형제님이 팀장을 맡고 이상화, 강동규 집사님이 주축이 되어 조기 축구가 활성이 되었습니다. 이후 친교부장을 두 번 더하게 되며 봄, 가을로 연세 많으신 소망 회원님들 그리고 이후에는 연세 드신 성도님들을 위해 관광용 버스를 일일 대절하여 샌프란시스코 파크, 바닷가에서 가까운 San Mateo County Park, Sacramento River, Avila Beach 온천, 요세미티 공원 등에 하루 일정으로 모시고 다녀오곤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다 박남숙 장로님이 리더가 되시어 처음에는 찬송가를 합창하시고 다음에는 자유곡으로 돌아가며 노래를 하시는데 일본 노래, 한국 노래, 유행곡까지 어찌나 그렇게 노래를 잘들 하시는지 보통 이상이셨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 친교부 요원과 채기창, 장관혁, 박인배 집사님 등이 함께 도와주어서 불고기, 갈비, Oyster 등을 주식으로 바비큐를 대접해 드렸는데 식사하시는 것은 젊은이들 못지않게 아주 잘 드시며 유쾌한 시간을 가지신 것이 기억납니다. Avila Beach 온천에 소망 회원들을 모시고 갈 때는 수영복을 준비해 오시도록 했는데 수영복을 입고 온천을 하실 때 안전을 위해서라도 저만 같이 들어가(저 혼자만 들어 오면 좋겠다고 하셔서) 개인 또는 그룹으로 멋지게 포즈를 취하시고 사진을 찍어 드린 것이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몇 명의 권사님은 연세가 90대가 되셨는데 그때가 즐거웠다고 지금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 후 사회부장을 두 번 하면

서 지금도 하고 있는 흑인회관에서 홈리스 사람들에게 주일 이른 아침에 예배후 Continental Breakfast를 제공했는데 메뉴로는 Pancake, Scrambled egg, sausage, bacon이 주였으며 커피, 우유, 주스를 제공하여 겨울에는 150~200명, 여름에는 80~100명 정도가 와서 식사했습니다. Pancake를 만드는 데는 하희엽 권사님이 최고였습니다. 손으로 만드는데 어찌 그렇게 동그랗게 크기도 똑같고 적당하고 먹기 좋게 잘 만드는지, 맛도 아주 좋게 잘 만들었습니다.

1991년 하면 무엇보다도 제가 9기 전도 폭발 훈련을 위해 훈련생으로 등록하여 16주간 강 훈련을 받은 것이 오늘날까지 전도 폭발 훈련에 종사하게 된 시작이었습니다. 실은 제가 미국에 온 후 6년 만에 한국에 갈 때 연로하신 어머님께 전도하기를 원했지만 아무 말도 못 하고 돌아왔습니다. 다음 해 다시 한국에 갔을 때는 아예 어머님과 같이 서울 잠실에 있는 어느 작은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같이 드리고 이어서 어머님을 모시고 목사님 사무실에 찾아가 어머님을 전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는 구원의 확신이 생겼는데 늙으신 어머님이 걱정되었던 것입니다. 목사님이 전해 주신 복음을 들은 후에 결국 어머님이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후에 전도에 큰 관심을 두게 되어 드디어 9기 전도 폭발 훈련에 훈련생으로 조인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첫 훈련을 받을 때 훈련자는 이추자 사모님이었고 준 훈련자는 유경숙 집사님(현 유상열 선교사님의 아내로 부부가 태국에서 선교사로 사역 중)이었는데 준 훈련자인 유경숙 집사님이 주로 제가 복음 암송하는 것을 훈련시켰습니다. 외우는 것에 철두철미한 유경숙 집사님 때문에 저도 약 30분 동안 외워야 하는 복음 제시 전체를 약 8주가 되어 거의 완벽하게 외우게 되었습니다. 전도 폭발 훈련은 전도 대상자 앞에서 직접 복음을 전하며 현장 훈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긴장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전도 대상자 한 명의 영혼이 구원을 받느냐, 아니냐 하는 이 중대한 순간에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에 이루어 지지만 제가 전할 복음을 제대로 외우고 있지 않아 복음이 막히면 하나님 앞에서 안 될 일이라 생각되어서 직장과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온전히 기도하며 복음을 외우는데 모든 시간을 드려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복음 전문이 소책자로 나오고 CD도 있어 듣고 보면서 외우기가 훨씬 용이한데 제가 처음 전도 폭발 훈련을 받을 때는 당시 CD는 없었고 음성 테이프 하나 받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테이프를 들으면서 외우자니 조금 듣다가 리와인드 하여 다시 듣고 이것을 되풀이하다가 도저히 진도가 안 나가 30분 정도 되는 음성 녹음을 조금씩 받아 적어 한참 걸려 복음 전체를 글씨로 적은 완성본을 만들어 그것을 가지고 외웠습니다. 결코 작은 분량이 아니었는데 집중을 하고 조금씩 외우기 시작하여 포기치 않고 집중하여 계속 외우니 결국 전부를 외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 정말 열심히 기도했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외울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직장으로부터 교회에 와서 전도 폭발 훈련 클래스를 마치고 준 훈련자, 훈련자와 함께 전도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맡겨진 복음 파트 암송한 것을 전하다 훈련 후반기에는 서론부터

복음 제시 그리고 결신, 즉석 양육까지 혼자 복음 전체를 전하는 현장 전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 전도 대상자가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영접 기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새 생명이 태어날 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어 한 영혼을 구원하신 것, 하나님 구원의 역사 현장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쓰였다는 기쁨과 감격은 어떤 다른 섬김과 봉사로부터 느낄 수 없는 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현장 전도 훈련을 마치고 교회에 돌아와 다른 팀들도 같이 모여 현장 전도 보고를 하며 서로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고 10시 30분이 지나 교회에서 집으로 운전을 하며 높은 하늘 위에 있는 별들을 쳐다보며 하나님이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저 자신이 쓰였다는 기쁨과 감격, 은혜를 마음껏 받고 느끼며 하이웨이를 달려갈 때의 그 마음은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컸습니다. 전도 폭발 훈련으로 복음을 전할 때 눈물을 펑펑 흘리며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님 그리고 임금님 예화로 임금님이 자신의 어머님의 죗값을 치루기 위해 대신 채찍을 맞은 것을 들려줄 때 놀라서 몸을 움츠리고 결국 예수님을 영접한 자매님들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전도 폭발 훈련을 받은 후 여러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직장에서 퇴사를 하는 미국인 부인, 제 아들 소프트볼 경기를 하는 관중석에서 제 옆에 앉은 다른 학부모에게, 동네 한국 식품 가게에서 쇼핑하는 한국인 부인을 차에서 기다리던 백인 남편에게, 한국에서 오신 김대환 집사님 부부의 양가 부모님에게, 한국 출장 가서 택시 운전 기사님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같이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때를 기억합니다. 전도 폭발 훈련으로 인하여 한번은 전도부 노방전도 팀이 홈디포에 하루 노동일을 위해 일거리를 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남미 젊은이들에게 도넛과 커피를 조식으로 제공하고 전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전도 폭발 훈련을 교회 모든 성도님께 강력히 권면해 드리니 동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장년 전도 폭발 훈련은 정명희 집사님이 팀장으로 아주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1기 시니어 전도 폭발 훈련은 2021년 1월에 시작으로, 60세 이상이며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누구나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제가 전도부장이 되어서는 우선 다른 교회에서는 어떻게 전도사역을 하나 배우기 위해 남가주 사랑의 교회 전도 담당 목사님과 동양선교교회 이희문 전도 담당 목사님(오늘날 전도 폭발 미주 한인 본부 대표)을 방문하여 그 교회들의 여러 전도사역에 대하여 설명을 듣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도 부장일 때 우리 교회의 새생명축제에 한국의 유명 가수 윤형주 장로님과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목사님을 초청하여 교회 본당이 꽉 차는 성도님들(다른 교회에서도 많이 참석)과 축제적인 분위기에서 새생명 전도대회를 하였습니다.

1998년은 제 신앙생활에 또 다른 도약판이 되는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1기 안수집사로 선출되면서 새로운 직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1기 안수집사님들이 모두 교구장의 직책을 맡아 지정된 지역 내의 몇 개의 구역을 섬기는 사역이었습니다. 저는 교구장으로 Fremont, Union city, Newark, Hayward와 Pleasanton, Dublin, San Ramon 지역을 담당하게 되었

습니다. 오늘날 사랑의 공동체 지역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교구장이 되어 먼저 교구 가정들부터 방문하여 인사도 할 겸 우선 Pleasanton, Dublin, San Ramon에 거주하는 모든 성도님 가정을 매주 2가정을 구역장, 임사(김의웅, 박낙원/동원, 송시우, 문중환)들과 함께 방문하여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며 친분을 쌓았습니다. 이후에는 이지춘 담임 목사님께 요청하여 먼저 Fremont 지역 성도님 가정을 대심방을 하였고 그 후 Pleasanton, Dublin, San Ramon 지역 성도님 가정을 대심방을 하다가 제2기 담임 목사님으로 이형원 목사님이 부임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지춘 담임 목사님의 요구에 따라 이형원 목사님과 매주 한번 2-3가정을 대심방을 하였습니다. 밤중에 이동할 때마다 4~5개의 차가 같이 움직이며 제가 담당하고 있던 교구 대심방을 이지춘, 이형원 목사님과 마치게 되었습니다. 대심방을 마치고 나니 어디에 사는 누구, 어린아이들까지 알 수 있게 된 것이 차후 교구장 사역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후 2000년대 초에는 당시 전도 부장이었던 이정훈 집사님의 도움으로 우리 교구 지역의 한국인 가정 명단을 받아 매주 토요일 Fremont 지역에서는 주로 김백수, 최성우 집사님과 그리고 Pleasanton 인근 지역은 그 지역 구역장, 임사들과 약 일 년 동안 방문 전도를 했습니다. 토요 노방전도를 마친 후 어느 날 김백수 집사님 댁에서 김명숙 집사님이 프라이팬에 금방 만들어 대접한 따끈따끈한 녹두 빈대떡이 정말 일미였고 감사했던 추억이 있습니다. 교구 임원 회의를 매월 한 번씩 가지며 Fremont , Union City 지역에서는 한국 식품점을 중심으로 구역에서 함께 노방전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북부 지역 교구에 속한 구역들이 활발하여 매월 구역예배 참석도 아주 좋았으며 계속 성장하여 구역이 더 늘어남과 함께 Pleasanton, Dublin, San Ramon이 독립 교구로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곳 교구/구역 성도님 일동이 저에게 기념패를 만들어 준 것을 지금까지 감사한 마음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2002년은 복음 전도를 목적으로 하는 단기선교에 동참하여 첫 번째 단기 선교로 한국 남도에 있는 완도와 배를 타고 가야 하는 대모도, 소모도에 갔습니다. 주목적은 전도이지만 의료 선교를 겸하여 박추 치과 의사와 의학 공부를 하는 박 집사님의 아들 그리고 박 집사님의 84세된 장인 어른이 일본 오사카에서 오셨는데 20대에 일본에서 의학 공부를 하셨고 외과 의사가 되신 후 당시에는 거의 은퇴를 하시어 아주 오래된 환자만 돌봐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연세보다 아주 건강하셨으며 대모도, 소모도에서는 마을 회관의 딱딱하고 허술한 방바닥에서 충분한 쿠션이 없이 개미같은 벌레도 보이는데 아무런 불만족 표시 없이 매일 일정을 잘 보내셨습니다. 저는 이 박사님 옆에 앉아서 박사님이 환자 진료 후에 병명을 내리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환자들에게 말을 해주고 비닐봉지에 병명과 조제한 약을 넣어 주고 언제 몇 개의 약을 먹어야 하는지 적어 주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 약들은 우리 교회의 손명화 집사님이 단기 선교팀을 위해 준비해 주었습니다. 이 박사님 말씀으로는 생전 하루에 100명이 넘는 환자를 진료해 본 적이 없다 하시며 젊었을 때 대한민국 조국을 떠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조국을 위해 의료 봉사를 하게 된 것을 아주 감명 깊이

느끼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쉬웠던 것은 이 박사님께 예수님 믿을 것을 권면해 드렸는데 피하셨습니다. 3년 후 제가 오사카에 단기선교를 하러 갔을 때 다시 만나 뵌 적이 있었는데 오사카 다운타운에서 저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한국 섬 복음/의료 선교를 시작으로 단기 선교에(한국 섬 선교 2회, 일본 단기선교 11회 □ 오사카, 고베, 삿포로) 동참하여 복음을 전하며 기력이 있는 동안 주님을 위해 전도와 선교 사역에 계속 쓰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완도에서는 50~60명이 되는 현지 연세 드신 분들에게 현지 교회의 도움으로 점심 식사 후에 복음을 전하게 되어 복음의 핵심은 전도 폭발 훈련과 같이 하며 서론에는 저 자신의 삶과 신앙 간증을 지루하지 않게 15분 정도 하고 이어서 복음의 핵심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의 영생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지 원하는 사람은 손을 들어 달라고 구원의 초청을 하였습니다. 놀랍게도 20여 명이 손을 들어 영접 기도를 하도록 리드를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본 적이 없었는데 전도 폭발은 실로 개인 전도 뿐만 아니라 그룹, 단체 전도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였으며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체험을 통해 2005년부터 시작한 일본 단기 선교에서 주일 저녁에는 일본 교회에서 Gospel Night 찬양, 복음 집회를 통해 교회 성도님들과 방문객에게 마지막 순서로 복음을 전하며 성령님이 일본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저와 선교 대원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일본 단기 선교를 통해 대원 모두 각자가 은혜를 받기 때문에 매해 일본 단기 선교는 전에 다녀온 성도님이 또다시 일본 선교에 조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매년 과반수가 되어 경험 있는 대원과 새로운 대원이 협동하여 좋은 팀이 만들어지는 것을 봅니다.

2006년에는 6차 교회 정관 위원장으로 봉사를 했으며 이때 정관 수정을 하며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권사 제도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당시 처음에는 일정 권사 자격 요건을 정해놓고 누구나 이 요건에 합당하고 권사 직분을 받기를 원하면 일정 교육을 받은 후에 권사가 될 수 있었는데 이후에 일정 숫자의 신임 권사를 선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007년은 우리 교회가 San Jose Tully Rd/Center Rd 로부터 오늘날 Milpitas City 에 있는 위치로 옮기며 급속한 교회 성장을 하게 된 해가 됩니다. 이사 오기 전에 약 1,200~1,300의 성도님이었는데 이사 후 약 1,000명의 새 성도님이 급속하게 증가하였습니다. 교회 건축을 위한 시청 청문회, 건축 비용 등을 위하여 교회 전체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다락방 기도라 하여 매일 성도님들이 돌아가며 교회를 위해 금식 기도를 했고, 금요일 성경학교가 끝나면 10시부터 철야 기도회도 있었습니다. 교역자와 온 성도님들이 돌아가며 매일 금식 기도를 드리는 다락방 기도가 다시 시작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0년에는 안수 집사장으로 선출이 되었고 그때 3대 담임 목사인 진재혁 목사님이 한국 지구촌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이 되어 퇴임식을 안수집사회 중심으로 준비를 했으며 4대 신

임 담임목사님 청빙을 위한 청빙 위원으로 관련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김주용 집사님이 청빙 위원장으로 청빙 위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협조가 아주 좋았고 세운 절차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정관에 의해 담임 목사님 청빙 광고를 신문에 내면서 한편 이지춘 원로 목사님과 진재혁 담임 목사님과 미국 내 한국 교회의 신망이 두터운 목사님께 담임 목사님 후보를 추천받아 우리 교회의 새로운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하는 과정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제가 전도 부장일 때 우리 교회 부흥회 강사 목사님으로 오시어서 알게 된 남가주 사랑의 교회 김승욱 담임 목사님과 동양선교교회의 강준민 목사님에게 추천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김승욱 목사님께서 3명의 후보를 추천해 주었는데 그중의 한 후보가 바로 Davis에서 목회하고 있던 현재 우리 교회의 이진수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추천받은 담임 목사님 후보들과 일부는 영상 인터뷰를 하며 설교도 들어 보며 최종 후보 5~6명으로 정하고 청빙 위원 각자가 평가한 후 점수를 제시하여 점수가 월등히 높게 나온 이진수 목사님을 첫 번째 후보로 인터뷰하기로 하고 진행을 했는데 인터뷰 과정이 아주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 총 소요 기간 2~3개월 만에 사무 총회를 통해 이진수 목사님을 우리 교회의 4대 담임 목사님으로 최종 결정을 하였습니다. 11월에 부임하여 첫 주일 예배에 설교 시작으로 공식적으로 우리 교회의 담임 목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청빙이 속히 이루어져 떠나는 진재혁 담임 목사님과 후임 이진수 담임 목사님이 회동하는 기회도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청빙의 모든 과정이 순조롭고 속히 진행되었으니 모든 것을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2011년은 우리 교회 창립 30주년 준비 위원장으로 일 년 내내 여러 행사 준비로 바쁘게 보낸 한 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전 교회 목장 중심으로 불우 이웃 돕기 모금을 위해 Walkathon 을 기획하고 실행을 했는데 장소는 Milpitas High School 운동장을 사용했고 이를 위해 학교와 시청을 상대로 허가를 받고 차량 안내, 성도님들의 모금 활동 독려, 당일 점심 식사, 진행 등을 준비 위원들이 잘 맡아 주고 하나님이 도우사 $20,000 이상이 모금되었습니다. 이 행사에 약 1,100명 정도의 성도님들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Walkathon 행사장에 Milpitas 시장과 돕는 기관의 대표들이 축사해 주었고 2년 후에 한 번 더 Walkathon 행사를 Milpitas High School에서 하며 약 $30,000이 모금되어 Milpitas 초등학교 불우 학생 돕기, Milpitas Food Pantry, InnVision Shelter, Real Options(여성 임신에 관한 상담), Silicon Valley 한미 봉사회를 도왔습니다.

2012~2013년에는 목회 협의회원으로 선교 소위원회(전도부, 선교부, 사회봉사부)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선교 차원에서의 교회 개척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김백수 집사님과 같이 남가주 사랑의 교회 수석 부목사님과 ANC 온누리교회(유진소 목사님)를 방문하여 실제로 어떻게 새로운 교회들을 개척했는지 그리고 ANC 온누리교회에서는 사회 섬김, 봉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듣고 교회로 돌아와 교회 개척을 위한 타 교회의 실례를 보고했습니다. 이어서 저는 우리 교회의 목협회 선교 소위원회 간사로 우리 교회에서 교회 개척을 위해 그리고 교회 내 장애인 사역과 교도소 도서실 설치를 위한 예산안(잉여 헌금 사용)을 만들었습니다. 같은 시기 크리스마스 시즌에 밀피타스 초등학교의 불우 학생 돕기로 약 50명의 저소득 가정의 학생들의 명단을 받아 우리 교회의 각 목장에서 학생 한

명을 맡아 학생이 원하는 선물 리스트를 보며 백화점이나 장난감, 학용품 가게에 같이 가서 선물 구입하는 것을 돕고 교회로 돌아와 한연경 집사님과 자매님들이 맛있게 만든 점심을 같이 먹고 난 후에 구입한 선물들을 포장지로 예쁘게 정성껏 포장하여 큰 백에 넣어 주고 같이 사진도 찍는 모두에게 즐겁고 아이들도 부모 같은 우리 교회의 성도님과 함께 가고 몇 시간을 같이하며 원하는 선물도 몇 개씩 받고 아이들 부모님들도 그러한 순간들을 목격하며 모두가 기쁨으로 가득한 순간들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교회에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2015년은 예전부터 마음에 지니고 있던 노방 전도를 2월부터 혼자 매주 토요일 주로 교포 마켓과 갤러리아 마켓에서 2시간 동안 혼자 시작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노방 전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오랫동안 전도폭발 훈련을 같이 했던 엄양자 집사님과 같은 목장 소속인 최정남 집사님이 조인을 하였고 이어서 민미나 권사님이 조인을 하여 자원자 중심으로 노방 전도팀이 만들어 지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매주 토요 노방전도에 김형용 집사님, 김연숙 집사님, 박기홍 집사님이 조인을 하여 노방 전도팀이 성장하여 가기 시작 했습니다. 노방전도 지역의 다변화를 위해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스페인어 한 페이지에 뒷면에는 영어로 되어 있는 전도지를 뉴비전교회의 이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를 위해 전도지 영문은 이진수 담임목사님이 점검을 해 주셨고 이 영문 전도지를 베이 지역에 있는 중국어, 베트남어, 스페인어 사용 교회의 목사님을 전화로 컨택을 하여 번역을 요청 드렸습니다. 주님이 도우시사 목사님들이 쾌히 수락을 하고 각 언어로 번역을 하여 보내 주어서 다국적 전도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다국적 전도지가 만들어진 후 한국 식품점에서만의 노방전도가 아니고 매주 교포/갤러리아 마켓, Great Mall, 99 Ranch Market in Cupertino Village, 베트남 마켓 Little Saigon, Mitsuwa 일본 마켓을 순회하며 매주 약 150-200 명에게 전도지를 나눠 주었으며 기회 있을 때는 일대 일로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생겨 우리 노방 전도팀을 사용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경우도 이따금 있었습니다. 일대일 전도는 Great Mall 이 안에서 앉아서 쉬는 사람들이나 안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아주 좋은 곳 입니다. 교회 사무실 옆에 노방 전도에 참가를 자원하는 포스터를 만들어 개인이나 목장에서 자원을 하면 아무때나 같이 노방전도를 할 수 있도록 노방 전도팀에서 돕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매주 자원하는 목장이 돌아가며 노방 전도를 하도록 준비를 하였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실행이 안되었고 Social Distancing이 완전히 제거 됐을때 □ 아마 2021년 가을 부터는 목장 노방전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며 기도 합니다.

전도 폭발 훈련은 봄, 가을로 5~7조를 만들어 진행하였는데 특히 48기 훈련 때 아주 우수한 훈련생들이 있어 고무적이었습니다. 2017년, 48기 훈련생으로 지금까지 전도 폭발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이민숙 집사님과 차동희 권사님이 대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49기 훈련 때는 몇 명의 훈련생들이 중간에 드롭하여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50기 훈련 때 박순희, 박준우 집사님 등 다시 좋은 훈련생들이 들어와 전체적으로 건강한 훈련 조직으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2019년 2월 51기 전도 폭발 훈련을 하는 동안에 3월 들어 70차 전도 폭발 미주 한인 지도자 임상훈련을 3박 4일의 일정으로 우리 교회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오는 본부 임원, 강사 그

리고 훈련을 받으러 오는 모든 훈련생(목회자, 교회 리더십, 집사들)을 공항에 도착한 후 돌아갈 때까지 모든 교통, 민박, 교회에서 세 끼 식사 및 간식, 첫날 저녁 만찬(훈련생 한 명에 우리 교회 중보 기도자 2명 합석) 준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준비 위원들의 아주 좋은 협조와 팀워크로 모든 일정이 아주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본부 임원들의 구두 평가에서 복음 제시 시범이 그동안 여러 교회에서 보인 시범 중 우리 교회가 최고급이라는 평가와 함께 외부 참가자 모두 음식 및 간식도 아주 좋았다고 평가를 해 주었습니다. 2019년 봄 우리 교회에 있은 전도 폭발 지도자 임상훈련으로 인해 우리 교회 전도 폭발 팀원들의 헌신 된 마음과 자세가 확고히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교회 내부에서도 총 300명 정도가 봉사하였기 때문에 전도 폭발 훈련에 대한 인식도 점차로 좋아지는 결과도 되였습니다. 전도 폭발 지도자 임상훈련을 아무런 문제 없이 성공적으로 잘 마침으로 우리 교회 전도 폭발팀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2019년 5월, 51기 전도 폭발 훈련을 마치며 저는 전도 폭발 총괄팀장을 하며 그동안 제가 맡고 있던 장년 전도 폭발 훈련 팀장직을 총무 정명희 집사님에게 이양해 주었습니다. 정 집사님은 지난 6년간 열심히 전도 폭발 훈련을 위해 모범적으로 이바지를 한 아주 좋은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이런 헌신 된 집사님에게 전도 폭발 훈련의 중추 역할을 하는 장년 전도 폭발 팀장직을 넘기게 된 것을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총괄팀장으로 정 집사님을 돕고 멘토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때에 맞추어 새로운 일꾼을 새워 주며 격려해 주고 힘이 되어 주는 것이 교회를 위해 중요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정 집사님이 팀장이 된 이후 전도 폭발 훈련이 매우 성장하여 지난 12월 3일에 끝난 54기 전도 폭발 훈련에 45명(15개조)이 아무런 낙오자 없이 온 과정을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이 돕고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저는 2021년 1월 21일 시작할 제1기 시니어 전도 폭발 훈련 준비를 위해 좀 분주하게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니어 전도 폭발 훈련은 60세 이상으로,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고 활동하는 데 육체적 어려움이 없으면 누구나 훈련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4/4 분기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남은 인생이 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시니어 전도 폭발 훈련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60세 이상 되시는 성도님들의 좋은 관심과 참여하여 주실 것을 권면합니다. 시니어 전도 폭발 훈련을 받고 나면 복음을 확실히 이해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구원을 재확신하게 되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 드리게 됩니다.

받은 것이 복음이오니 천국에 갈 때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웃 커뮤니티를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제 남은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바라보며 살도록 저를 오늘날까지 그리고 천국에 갈 때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가 힘써 지켜야 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글 | 이지춘 원로목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천지의 주재이시며 사랑과 자비의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죄인 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대속의 화목제물로 내어 주신,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마음을 도려내는 아픔과 고통으로 실행하신 분이시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어 하늘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고 친히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고 언약하셨다.

코로나 팬데믹이 선포된 지도 벌써 거의 일 년이 되어간다.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임도, 성도들의 교제도 많이 제한 되어 모든 교회가 큰 타격을 받았고, 존폐의 갈림길에 처하게 된 교회들도 많다. 많은 성도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고 복음을 위한 헌신의 열기도 식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설사 코로나 팬데믹이 아니더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도들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흔들어 놓고 복음을 위한 헌신의 열기를 냉랭하게 하기에 충분한 사건들은 교회와 가정과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국가와 민족적인 차원에서도 계속 있었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얼마 전에는 수많은 성도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이동원 목사님의 차남 이범 집사가 42세의 젊은 나이에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범 집사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한평생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믿음으로 헌신한 이동원 목사님 내외분에게 이 얼마나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을까? 결코, 아무도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몇 해 전에는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목회를 해 오신 남가주 세들백 교회의 릭 워렌 목사님의 아들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수많은 성도님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젊은 나이에 심한 우울증으로 고생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어디 자녀들이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성도들이 이분들뿐이었겠는가 마는 이런 소식들이 들릴 때마다 몹시 마음이 안타깝고 혼란스럽다.

바울 사도가 말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그런 고난이라기에는 많이 억지 같고, 그 엄청난 아픔에 비하여 타당한 선함과 유익함도 찾아보기 어려운 고난이 닥쳐올 때는 당사자들도 그렇겠지만 주변에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는 성도들도, "왜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들을 막아 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혼란스러운 마음과 더불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다. 심하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코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은 예수님의 돌아가심과 부활과 바울 사도의 삼층천 체험이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속성은 그대로 사실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많은 고난 중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 2:20)." 고 고백하며 사명을 감당해 나갔고, 마지막 순교를 하면서도,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딤후 4:6-8)." 고 예수님을 만난 후 순교하기까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았고 그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며 그의 인생을 마쳤다.

바울 사도가 말한 선한 싸움, 그의 달려갈 길은 복음을 위한 고난의 길로 주와 함께 영광을 받을 당위성이 분명한 고난의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웠다면, 당위성이 분명하지 않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는 얼마나 더 어렵겠는가!

그러나 내 인생의 황혼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를 돌이켜 보며 느끼는 것은 사실 우리는 무지 무능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잘 모른다는 것이다. 잘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전혀 모른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롬 11:33-36)." 이라고 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께 "왜?" 라는 질문보다는 "주님의 선처하심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고백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이다.

쉽지는 않지만, 이번 코로나 팬데믹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 28:20)",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롬 8:28)" 고 하신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잡고, "주님의 선처하심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초월하는 영생의 차원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조금이라도 덜 부끄러울 것이다.

퍼스펙티브스 2 기 선교훈련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글 | 서은영

송구영신예배를 통해 에스더 4:14절 말씀을 받았고 정확히 이해되지 않았지만 올 한해 모든 결정의 기준을 삼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인 시간 부족으로 망설이다 퍼스펙티스브 2기를 등록했는데 역사적 관점을 마치며 궁금증을 풀어 주셨습니다.

"이 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놓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강의 중 '시세를 섬기는 일'을 묵상하라고 알려 주셨고 제일 먼저 기억 난 것이 아들의 꿈이었습니다.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싶은 아들에게 기독교 세계사에 이름이 남을 만한 일을 하면 좋겠다고 얘기했더니 단번에 싫다고 했습니다.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알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둘 다 가능하게 할까?' 질문했는데 모든 사람을 예수님 믿도록 전도하면 된다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결단했고 얼마전 아들과 성경을 읽는데 요한복음 5:23절 말씀으로 한번 더 확인하셨습니다 .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다리' 아티클 발표를 준비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통해 사랑 없는 요란한 꽹과리 였음을 회개할 기회도 주셨고 룻기 4:11절과 로마서 16장으로 그런 저를 위로하셨습니다. 룻과 같은 여인, 루포의 어머니, 보아스와 같은 남편,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까지. 제가 추구해야 할 롤 모델과 배우자/아버지상까지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과를 공부하던 중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잠언 10:26) 말씀이 마음을 찔렀습니다. 맡겨진 사역들을 위해 충분히 기도하지 못한 것, 성경 공부에 힘을 다하지 않은 것. 팬데믹을 핑계로 할로윈 저녁 벨을 울리던 외국인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하는 일을 포기한 것. 커뮤니티 봉사에 무뎌진 것 등 세세하게 알려주시는 아버지의 훈육을 경청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통독을 통해 하나님의 열정을 매일 새롭게 다운로드 받아 엮어주신 자매들과 아이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저 자신도 아이도 글로벌시민으로 사는 것이 목표였는데 이제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고 가장 먼저 버킷리스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가고 싶어 했던 스페인에 살면서 아프리카 북부지역을 섬기는 것이 꿈이어서 모로코 요리를 연습하고 있었는데 한 단계 나아가 Arabic-speaking Moroccan을 품고 기도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성경책, 신앙의 길잡이 되어 주시는 부모님, 슈바이처 박사 전기, David Platt 목사님의 래디컬 다음으로 다섯 손가락에 꼽히는 퍼스펙티브스. 함께 해주신 선교사님, 팀장님, 2기 수강생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구세주 예수님, 정결하고 거룩하게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립니다.

퍼스펙티브스 2 기 선교훈련

다시 시작!

글 | 김경식

강좌 시작 열흘 전, 김애경 권사님으로부터 카톡 문자가 왔다. "미션 퍼스펙티브스 함께 해요 꼭!!" 그리고 다음과 같이답을 했다. "네? 그게 뭔데요? 제가 금성 로마서 하는 중이라 이것도 따라가기 바쁜데요. ㅜㅜ" 다시 권사님의 한마디, "왜냐면 이번이 좋은 기회라서요. ㅎㅎㅎ" 그리고 그 다음은, "네, 알겠습니다. 권사님이 하라고 하시면 해야죠." 이렇게 해서 나의 2 기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다.

저는 오늘(12 월 22일), 55 세가 되었습니다. (이런! 벌써...) 못해(모태) 신앙이니까 55 년을 신앙 생활, 아니 교회에 다닌 거죠. 그런데, 왜 2기 신앙 생활이라고 표현을 했냐 하면, 지금까지는 "선교! 아우, 그건 내가 하는 거 아냐. 나는 다른 곳에 은사가 있을 거야. 그건 잘 하시는 분들이, 자~알~ 하시게 끔 두고, 나는 일단 나부터 잘 하자." 이것이, 1 기 신앙생활의 근간이 되는 세계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퍼스펙티브스 과정을 하며 조금 달라졌습니다. "헐, 선교가 임무라고? 그냥, 할 사람만 하는 거 아니었나? 큰일이네. 어떻게 하나. 난 A 형이라 사람 만나서 설득하고 이런 거 잘 못 하는데. 그나저나, 뭘 알아야 전하는 거 아닌가? 여태껏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금성 강사님들 설교나 강의를 듣기만 했지, 전하려면 뭘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 큰일났네, 큰일났어!"

퍼스펙티브스(Perspectives), 한국말로 말하기도 조금 힘들죠? "펙"에 악센트를 주어야 그나마 좀 자연스레 끝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도 어려운 과정을 COVID-19 중에 듣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시작하기 열흘전까지는 말이죠. 모두 아시겠지만, 우리말로 하면 "관점" 또는 "시각"입니다. "선교"라는 '예수님이 주신 임무'를, 지금까지와는 다른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너무 자세히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예고편은 그냥 예고편으로 끝나야지, 결말까지 모두 이야기하면, 다음에 과정 들으시는 분들 재미없으실 수도 있으니, 맛보기로 조금만.

일단, 이 과정은 선교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믿음을 재점검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선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임무인 것은 확실하지만, 그전에 먼저 우리가 갖추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교회 내에서 듣게 되는 좋은 이야기만 하지도 않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 이야기하고, "돈"이나 "빈곤"과 같은 현실적인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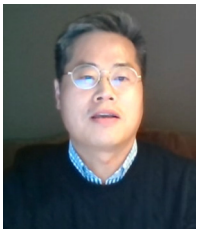
저는 샤르코-마리-투스(CMT)라는 불치성 유전질환을 갖고 있습니다. 신체 내 말초신경이 마비되었거나, 마비되어가는 병입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젓가락으로 무엇을 잡는 것이 힘들어지고, 무엇보다 가만히 서있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발가락이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항상 발가락을 사랑해 주세요. ^^) 서 있는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 발가락에서 오는 감각이 없으니 이게 정말 힘든 일인 거죠. 그날그날 몸 컨디션에 따라 걷는 것이 좀 부자연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에게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합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하거나, 성가대에 서 있다 보면, 이제 그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수십 번도 더 하게 됩니다. '그냥 서 있는 것도 이렇게 힘드니,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이죠. 퍼스펙티브스 과정을 하고 나서, 갑자기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진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제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상황을 보지 말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보고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세요. 항상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은 퍼스펙티브스 과정을 마친 간증이 아닙니다. 오늘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언젠가, 오늘부터 시작된 제2기 저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간증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뉴비전성경학교

바/울/서/신 오직 믿음으로

글 | 정상규



가을학기가 개강 한다는 계획을 듣고 이미 전도 폭발 2단계 훈련을 결정해 놓은 터라 이번 학기는 금요 성경 공부 수강이 어렵겠다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던 차에 Pandemic 수혜(?)를 톡톡히 입고 있었고, 지난 학기 수강 신청했다가 중단되었던 아쉬움도 있어 일단 저지르고 보자는 생각에 수강 신청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화요일은 전도 폭발 현장 전도 훈련, 수요일은 횃불 기도회, 목요일은 전도 폭발 수업/훈련, 금요일은 성경 공부, 토요일은 목자 훈련, 그리고 주일 예배와 목장 모임으로 월요일 제외하고 매일 훈련과 모임에 참석하는 강행군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신약 인물 중 예수님을 제외하고 가장 탁월한 인물을 꼽는다면 단연 사도 바울을 꼽는 데에 주저함이 없었기에 4단계 바울 서신은 꼭 듣고 싶었던 과정이었고 기대와 기쁨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매주 성경을 읽고 수업을 듣는 중에 사도 바울을 통로로 은혜와 사랑의 말씀을 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이신칭의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과 주의 날에 대한 설명, 고린도 교회의 허다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과 화해의 사역들에 대한 말씀이 결국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르침임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기쁨, 목회와 그리스도인의 윤리에 대한 권면의 말씀들 또한 경건의 모양조차 갖추지 못한 삶을 돌아보고 정비해 보기로 결심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4단계 성경 공부를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되었음을 숙고할 기회가 되었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이자 선물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절망하고 방황하는 많은 불신자가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되기를 기도하며 이 일을 위해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섬기는 것이 저의 사명임을 깨닫고 다시금 결심을 다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제 나름으로 이번 학기 성경 공부 주제가로 정한 복음 성가 가사를 묵상하며 소감을 마무리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뉴비전성경학교

바/울/서/신 한마디 소감문

From 김원철

말씀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상속자 됩시다. 행복했습니다.

From Samuel Jung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기초를 다진 사도 바울을 본받아 마지막 때에 절망하고 방황하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되기를 기도하며 이 일을 위해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섬기는 것이 저의 사명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From 김미영

아는 것이 힘이다

From Justin Lee

바울 사도와 같이한 행복한 여정이었습니다.

From Boghee Lee

집사님, 정성스러운 강의 준비 감사드려요. 뉴비전 성경학교를 잘 부탁드립니다. 바울서신 집사님들~~ 짧은 교제 시간이어도 함께여서 더욱 신나게 공부했습니다. ^0^

From 정지성

우리도 바울서신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바울처럼 열정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From 이광희

만나지 못하는 기간임에도 함께 성경 공부하며 외롭지 않았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From 임유정

귀한 배움의 시간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도 온라인으로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From 이재경

바울서신을 새롭게 되짚어 보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From 신세희

김원철 집사님 덕분에 바울 사도의 마음을 더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From 정영경

김원철 집사님 덕분에 성경을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교사의 본을 보여주신 모습 늘 감사했습니다. 바울 서신서를 함께 배우며 동행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From 정현자

집사님, 너무 감사했고요. 우리 모두 잘 배웠습니다.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뉴비전성경학교

친밀한 부부의 삶

글 | 김유미

남편과 저는 교회에서 각자 사역을 하느라 목장 모임을 제외하고는 함께 교회에서 공부하거나 사역을 하지 않았기에, 늘 남편과 함께 하는 무언가가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마침 남편이 매주 금요일 차세대 사역을 섬기다 그만두게 되어 시간이 되자, 저에게 함께 '부부의 삶' 성경 공부를 듣자고 하여서 이 클래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친밀한 부부의 삶을 배우는 시간이라 하여 맘에 맞는 부부들이 매주 모여 배우자에게 감사한 점, 고마운 점, 장점 등등을 나누며 서로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떠올리고 기억하여 앞날을 함께 약속하기를 기대했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 선생님의 숙제나 질문들은 매우 실제적이고 적용할 부분이 넓었고, 부부가 서로 평상시에 이야기하기 어려웠거나 속으로 홀로 참고 삭이며 이야기하지 않던 갈등의 상황을 초래하기 마련인 주제들이어서, 클래스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습니다. 답을 생각하는 과정에 남편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신중해야 했고, 그러한 가운데 서로의 마음을 좀 더 알아볼 수도 있었으나 나를 향한 남편의 아쉬움을 들을 때면, 왠지 모르게 저의 마음에 서운함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반면 어떤 경우엔 남편이 저를 향한 불만이나 아쉬움이 많다고 답을 할 만한데도 남편이 그런 점이 없다고 대답해주면 그러한 남편의 배려와 마음이 은혜롭고, 고맙고 따뜻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클래스에서 공부하다가 진솔한 나눔들로 뜻하지 않게 배우자의 마음이 민망하게 될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곧이어 그 맘을 꿰매어 줄 수 있고 다독이며 사랑을 이어줄 수 있는 간단한 질문이나, 아니면 부부들이 모였기에 가능한, 30초간 손잡기/ 1분 간 눈 마주쳐 보기/백허그 해 주기 등의 함께 쉬어가는 코너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살포시 해 보았습니다.^^

부부의 삶을 배우는 클래스이므로 남편과 같이 공부를 하고 수업을 하는데 유익했던 점은 부부가 무언가를 함께 함으로 공통관심사를 갖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에 따른 부부의 삶을 배우고 실천하다보니 더욱 믿음의 가정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며, 반면 어려웠던 점은 부부가 사이가 좋을 때는 클래스에 임하는 것이 수월하였으나 서로 투닥거리고 사이가 멀어질 때는 함께 나란히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힘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데도 선생님 부부의 학생들을 위한 사랑과 기도와 또한 주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붙잡아 주심으로 끝까지 클래스를 잘 마칠 수 있어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가 넘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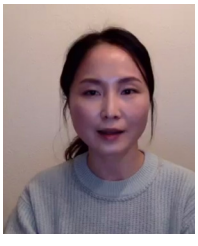
보통 남편이 농담하면 저는 실없는 소리를 한다며 핀잔을 주고 그러지 말아 주기를 당부했지만, 공부하고 나니 가끔 남편의 실없는 농담은 남편의 마음의 벽이 낮아져 저를 향한 마음의 창이 열렸다는 표시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 실없는 소리가 들리면, 저도 기꺼이 마음을 낮추고 창을 열어 남편의 열린 마음에 응하여 받아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친밀도가 높아지게 된 것 같습니다. 또한 클래스에서 'I statement'를 배우고 난 날은 남편이 저에게 그대로 응용하여 이야기하여서 더욱 부부의 대화 질을 높이고 서로 돈독한 관계를 쌓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클래스를 마치며, 남편에 대해 좀 더 알게 되었고, 저에 대한 평상시의 마음도 들여다 볼 수 있었으며, 배우자가 가까이 있음으로 가벼이 여기지 말고 좀 더 귀한 사람으로, 인격적으로 대하여야 한다는 것을 서로 배웠고, 결혼이란 언약 관계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서로에게 신실함으로 순종하여야 한다는 것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고마우신 성령님은 우리 부부에게 원종익 선생님과 원정화 권사님을 통해 영원히 함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의 길을 가야 하는 진실한 부부 사랑의 본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부부를 더욱 친밀하게, 우리 가정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과 감사와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뉴비전성경학교 1단계

성경공부 중 주신 생명의 선물

글 | 임수경



2015년에 새 직장으로 인해 이사 오게 된 산호세에서 뉴비전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디모데 공동체를 통해 좋은 교회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부에서 남편을 만나 저희는 결혼하게 되었고 이제는 평화 3 영커플 목장의 목원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그리고 목장 식구들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고 있으며 그 가운데 항상 생각만 하고 도전하지 않았었던 성경학교 1단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서 직접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마주하지 않고 진행하는 수업이었지만, 비디오 챗으로도 말씀을 접하고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을 공부하며 목사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부분들을 이해하려 노력하다 보니, 어떻게 성경을 읽고 요약하는 연습을 해야 하는지부터, 예수님은 진정 어떤 분이신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하는 내 마음가짐은 어때야 하는지, 나아가 앞으로 내가 주님께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일지 생각하게 되는 의미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연령대의 성도님들과 함께 짧게나마 교제하는 가운데, 서로 비슷한 점을 발견하며 의지가 될 때도 있었고,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다른 관점들은 저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게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간다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오직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듣고 혼자 성경공부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며 저만의 틀 안에 갇힌 신앙생활을 이어오던 저에게, 뉴비전교회의 목장 안에서의 교제와, 또한 성경학교를 통해 만난 여러 성도님과의 짧은 만남 속에 나누었던 대화들은 저의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 서로 교제하는 중에 선하신 하나님은 저의 마음을 항상 어루만져 주시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또한 다른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더욱 가까워지기 위해 열심인 모습을 보며, 의지도 되었고 함께 하는 기쁨 또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특별 가을 새벽기도에 동참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자연스레 들게 되었고, 저를 항상 사랑해 주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성경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매일매일 기도하는 연습과 습관을 들이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런 귀한 시간 속에서 얼마 전, 하나님은 저희 가정이 지난 3년 동안 가지고 있던 기도 제목 중 하나인 소중한 생명을 선물로 주심으로서 저희 가정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도에 답해 주신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선하심을 저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앞으로 태어날 아기와 함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 더욱 진실로 기도하고 그분을 알아가기에 힘쓰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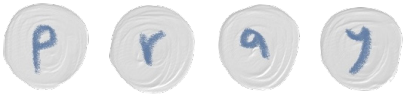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수업을 이끌어주신 담임 목사님과 황의현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수업 과정 안에서 감사와 기쁨을 느끼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뉴비전성경학교 1단계

초신자에게 부어주신 기도의 삶

글 | 장정윤

저는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교회에 다닌 지 2년여밖에 되지 않은 새내기 신도입니다. 그 2년 동안에도 주를 옮기는 이사를 하고 covid 19도 겪으며 실제로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린 것은 많지 않았고 성경을 제대로 공부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단지 제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확신만 가지고 있었지 그것 말고는 교회나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었고 그래서 그냥 제 방식대로 예배를 대하고 기도를 하며 믿음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는 예배와 기도, 성경 읽기는 무엇을 해도 오래가지 않았고 그 방식도 계속해서 변했습니다. 주일도 지키다 안 지키다, 기도를 해도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실지 확신이 안 서는 상황을 겪으며 영적인 선배, 조언자, 동반자의 필요를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작년 가을에 뉴비전교회에 등록을 했고 교회에 성경 공부와 교제를 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집에서 교회까지 거리가 멀고 아이도 있어서 고민만 하던 중 covid 19으로 인해 온라인 클래스가 열렸다는 소식에 감사히 향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필요했던 시기에 이런 기회를 갖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향수 1단계 소그룹이 있는 매주 화요일이 이제는 그 다음 일주일간의 믿음 생활을 지켜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있습니다. 특히 예배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고 아침저녁으로 그리고 시시때때로 기도하는 삶을 살 게 되었습니다. 매번 기도에 하나님께 저의 죄와 오만함, 부족함을 고백하는 시간은 제가 기도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향수 1단계 공부가 끝난 후 혼자서는 지금의 마음가짐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성도 간 교제할 수 있는 곳을 찾고 끊임없이 공부하며 믿음 생활을 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싶습니다.

매주 모임마다 열과 성으로 감동을 주시고 많은 것을 일깨워주신 권사님 그리고 함께해주신 집사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특히 권사님께서 나눠주신 기도에 대한 확신으로 저 또한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저에게 향수 모임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뉴비전성경학교 1단계

방황 중에 만난 믿음의 사람들

글 | 하은영

1단계 성경 공부를 등록하기 전의 저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겹치면서 신앙생활에 대한 열정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성경책을 거의 읽지 않고 말씀도 주일 예배 외에는 거의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귀에 거의 들어오지 않고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때 교회 온라인 예배 시간에 향수 예배와 성경 공부에 대한 광고를 들었습니다. 신앙적인 탈출구를 찾고 있던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성경 공부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1단계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기초적인 공부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듣고 또 듣고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한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권사님을 통해 한가지 한가지씩 다시 배우면서 믿음의 기초를 다지고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무엇보다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배우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매일 특별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고, 다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도록 힘쓰고 성경 공부반에서 같이 공부하는 자매님들과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성장하면서 또한 마음에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성장한 것은 억지로라도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그동안 게을러졌던 저 자신을 돌아보고 성경을 읽는 습관을 기르게 됐습니다. 아직 저의 믿음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과 떨어져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 말씀을 읽고 들으며 믿음의 사람들과 더욱더 가까이 함께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믿음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던 저에게 향수 예배와 성경 공부는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다시 잡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저의 갈 길을 인도해 달라고 한, 저의 기도에 구체적으로 응답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뉴비전성경학교 1단계

소중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글 | 이형남

남편의 건강 상태로 몇 년을
제대로 교회 생활을 못했습니다.
클래스에 등록하게 된 동기는
딸이 권해서 등록하게 되었어요.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너무 소중하고 행복했어요.
그룹을 통해서 대화하는 순간순간도 너무 귀했어요.
공부하면서 변화된 점과 적용을 위한 결단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값지고 귀하게 여기게 되었고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 닮아가는,
베풀고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의 열정적인 인도하심에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했습니다.
매주 화요일이 기다려지는 저의 모습에 감사하고
지나온 인생길 되돌아볼 때 부끄러운 일도 많고
후회되는 일도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길을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1단계를 행복한 시간으로
잘 마치게 해 주심을 가슴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뉴비전성경학교 2단계

생명력 있는 말씀과의 만남

글 | 김효정

뉴비전교회를 등록하면서 3단계까지는 꼭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그러하듯 저 역시 바쁜 삶을 핑계로 2단계를 등록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올해는 꼭 해보자 하는 결심을 했고 그러던 중 코비드 19으로 인해 교회가 아닌 온라인으로 훈련을 받게 된다는 소식에 부랴부랴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고 하나님을 믿었기에 '2단계'에 어떤 기대보다는 그냥 교회 다니니까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나누다 보니 한계가 있었고 다소 집중하기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한주 한주 시간이 지나면서 함께하는 권사님과 자매님들과도 익숙해졌고 짧은 나눔 가운데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알고 싶고, 경험하길 원하는 마음은 동일하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간증문을 쓰며 2단계를 통해 내가 무엇을 얻었을까 생각해보니 그건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매주 나오는 숙제를 통해 성경을 이리저리 찾아가며 읽은 그 말씀들이 저에게 생명력 있게 다가왔고 때론 그 말씀들을 하루 혹은 며칠씩 묵상하기도 했습니다. 2단계를 통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 원하심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더 남은 몇 주 동안 더욱 성실하게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뉴비전성경학교 2단계

준비된 전도자

글 | 신주희

코로나를 겪으며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 지금이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순종해야 하는 시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교회의 모임들을 쉽게 참여할 수 없었는데 이 팬데믹 시간을 주님께서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어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끝없이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온라인이라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방법으로 한걸음 주님께 나아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종일 남편과 아이들을 섬겨야 하는 주부로서 향수와 전도 폭발 그리고 큐티 모임을 하는 것은 저의 생각으로는 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어가시는 기적을 바로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아직도 과제나 숙제를 하기에는 버겁기는 하지만 버거운 대로 모자란 대로 그 속에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큰 감동이 없을 때도 있고 어떤 날은 아이들의 보챔으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야 하는 형식적인 시간도 있었지만 그 배움 자체로도 저에게는 거름이 되어 주님이 허락하신 성령의 열매를 맺는 날이 올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수업에서 받은 은혜도 감사한 일이지만 권사님과 자매님들의 얼굴을 제 눈에 담아 익혀, 지금 당장은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없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 좋은 인연으로 또는 기도하는 친구로서 맺어주시리라 기대합니다. 값없이 영생을 얻었다는 것, 회개할 곳이 있다는 것, 함께 기도해주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 모두가 감사입니다.

뉴비전성경학교 2단계

하나님의 은혜

글 | 안지현

먼저 이번 네 번만의 2단계 도전 후 여기까지 마칠 수 있게 된 것에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번에 2단계 성경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친정 아빠가 하늘나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아빠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우리 가족에게는 너무도 충격이었습니다. 암 투병을 하고 계셨지만, 치료도 잘하고 계셨고 아빠를 비롯해 모든 가족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거라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충격은 너무나 컸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순간 들었지만 저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란 걸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빠를 보내드리고 얼마 있다가 2단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성경 공부를 지금 이 정신에 잘 할 수 있을까 포기할까도 생각했지만 이번에 포기하면 또 언제 할까 생각되어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더욱이 아빠 일 이후로 저는 실망감으로 제 신앙의 상태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다시 제 신앙을 회복 시킬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저에겐 너무나 큰 감동과 큰 배움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려는 저를 잡아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매주 숙제를 하면서 오랫동안 읽지 않았던 성경책도 다시 가까이하게 되고 기도도 게으르지 않게 기도 짝도 만들어 주셔서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 하는 것도 좋지만 기도 짝을 위해 기도하면서 좀 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주 고난에 대해 배우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 또 나에게 주실 축복을 기대하는 맘을 갖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뉴비전성경학교 2단계

때를 예비하시는 하나님

글 | 이소영

뉴비전1단계를 마친지 10년 만에 2단계를 다시 등록하였습니다. 내 맘에 나는 교인이고, 모태신앙이고 주일성수도 잘하고 이만하면 됐지 너무 바쁜데 다음에 얼마든지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늘 생각했습니다. 마치 가장 좋은 책과 학용품을 가득 매고 학교 가듯 교회를 다니며 내 안의 마음은 늘 좋은 맘, 정결한 것들로 가득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졌던 좋은 책, 학용품은 한 번도 꺼내어 써본 적이 없었고, 그때는 좋은 것들이었지만 지금은 오래 된 것들이고 쓰임 받지 못해 고장난 것처럼 내 신앙도 윤기 하나 없이 시들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팬더믹 상황이라 집에서 일하게 되면서 아이들과 좁은 집에서 씨름하며 지내다 보니 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2단계에 등록했고 다행히 온라인 수업은 저한테는 선물 같았습니다. 길에서 버리는 시간이 없으니 더 좋았습니다. 회사 스케줄까지 바꿔야 했지만 가능케 하셨고, 식구들도 집에서의 저의 시간을 인정해주어 감사했습니다.

2단계는 저한테 무척이나 유익했습니다. 기초 다지기라고 할까요? 초심의 그리스도인으로 돌아가서 뭔가 더 알면 재밌겠다고 하는 맘이 들게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새삼 느끼고 깨닫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많이 읊조렸던 구절이 앞뒤 구절과 맥락이 맞춰지면서 더 큰 의미가 있었고 매주 수업이 저의 부족함을 한없이 느끼게 했고, 그로 인해 노력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이 상황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뜨거웠던 십수 년 전의 내 모습이 그리워지고 하나님은 항상 때를 예비하신다는 그 말의 의미가 가깝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제가 계획한 2단계 수료와 3단계로의 진행이 순조롭기를 매일 기도드립니다.

부족한 것이 너무 많지만, 그 또한 때를 따라 알게 하시고 채우게 하실 하나님을 믿기에 앞으로 달려가 보려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소영이, 엄마, 아내가 되고, 또 찬양하며 말씀 읽고 예수님 따르는 모습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에게 축복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의 이 시간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뉴비전성경학교 2단계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온 코로나바이러스의 기적

글 | 조순임

아들 셋을 키우는 저는 매일 바쁜 일상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을 내어 무언가를 앉아서 진득이 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잠이 들면 피곤한 몸과 침대가 하나가 되어 , 예능 프로그램 한두 시간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날려 보내곤 했습니다.

그러다 코로나 19가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는 시간이 시작되었고 저희 가정도 여느 가정처럼 남편의 비즈니스가 잠시 문을 닫게 되었고, 학교를 가던 아이들도 모두 집에 있게 되면서 그렇지 않아도 적응 안 되는 남자 넷과 하루 종일 함께해야 하는 끔찍한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한두 달 가다 금방 정상화될 거란 생각에 오히려 바빴던 남편이 아이들과 낮에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면서 가족 간에 더 친밀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세네 달이 넘어 장기화되면서 남편과의 마찰이 생기고 아이들은 화풀이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은 코로나 상황, 다시 시작된 남편의 비즈니스는 예전 같지 않았고, 집에서 매일 놀리며 방치되는 아이들 교육문제 , 남편과의 의도치 않은 잦은 다툼.. 모든 것이 저를 스올로 빠뜨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나약한 저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말씀으로 찬양으로 사람으로 저에게 빛을 보내주셨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오히려 시간이 지나 시간과 장소로부터 자유로움을 장점으로 보여주시고 여행을 가서도 예배를 챙겨서 드리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부담스럽던 목장 모임이 새로운 목장에 대한 편안한 마음을 주시어 형제자매들과의 친밀한 교제와 그 속에 진정한 위로와 섬김의 감동을 알게 해 주시는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또한 그동안 제 속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아시고 생각하지 못한 자매들을 붙여주시어 큐티 모임을 갖게 하시고, 향수 예배 성경공부 2단계를 통하여 더 큰 배움과 성령 충만으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시작 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 보내고 나면 소파에 눕기 바빴던 제가 그 시간 매일 아침 감사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 식전 기도도 못 드리던 제가 아이들에게 식전 기도를 가르치고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거리적인 문제로 엄두도 못 내었던 아이들 크리스천 학교 옮기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셨고 매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히12:11) 말씀처럼 코로나가 주는 고난의 상황이 힘들고 지칠 때가 많지만 그 시간은 결코 저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과 뜨거운 교재를 시작하게 해 준 소중한 시간이었고,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고난을 내가 주체가 되어 해결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게 해 주시고 모든 것을 주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그분께 맡기고 그 안에 감사와 평안, 자유를 느끼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말을 많이 들 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바꾸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만은 인격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실 수 있다고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하나님만이 저를 잘 아시는 분이시고 저의 필요를 잘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기에 환난 중에라도 주님이 주는 평안과 자유를 매일 소원하며, 기도드립니다.

끝으로.. 늘 저와 함께하시는 주님 , 말씀으로 저를 연단시켜주시고 조금씩 저를 변화시켜주심에 감사하며, 세상과 구별되는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뉴비전성경학교 3단계

때를 예비하시는 하나님

글 | 박은경

이번 가을 팬더믹 기간 중에 향수 3 단계를 통해 성경 공부를 하게 된 것은 놀라운 주님의 은혜입니다. 3단계의 주제인 '내 삶의 주인 바꾸기'를 매주 마음에 새기며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랐던 제가 15 년 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순간 이미 주님의 제 삶의 주인이셨으며 구원자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때때로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기지 못하고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인데, 3 단계의 주제인 삶의 주인 바꾸기는 저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습니다.

이번 향수는 저를 포함해서 두 명의 멤버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공부 첫날부터 시작되는 삶의 간증들,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지 매주 그 나눔들이 제게는 너무나 기쁨이었고, 주님으로 인해 벅찬 시간들이었습니다. 매주 교재의 내용은 하나하나 놓칠 수 없는 제게 필요한 내용들이었고, 권사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그 교훈들은 삶에서 우러나오는 것들로 제 삶을 돌아보고 적용하고 다시 정리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공부한 자매님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하는 신실한 자매님이셨습니다. 매주 중보기도 짝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정말 소중한 동역자입니다. 코로나 기간에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뜨겁게 기도해주고 위로해주었습니다. 외국에 사는 동생이 코로나에 걸린 일, 친정아버지의 건강, 지인의 남편이 갑작스러운 수술과 사별 등 고비를 넘길 때마다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사실 향수를 시작하기 전 친정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암 수술로 지난 여름을 친정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놀랍게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보내주신 것도, 그 기간에 암 판정을 받고 수술하신 것도, 그리고 아버지께서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함께 시간을 보내며 돌보아드릴 기회를 주신 것도 모두 주님의 놀라운, 기막힌 은혜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나를 향한 사랑과 최고를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고 누리지 못하였는데, 정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늘 선하시며, 최고를 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오랜만에 몇 달간 지내고 나서 미국으로 돌아오니 먹먹한 마음이 들었었는데, 향수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기도 했고, 매주 향수 시간이 기다려질 정도로 모임을 좋아했습니다. 인도자 김애경 권사님의 가르침과 교재에서 배운 것들을 삶에 적용해 보고 나누는 그 시간이 있어서 이번 가을이 더욱 풍성하고 특별했습니다. 많은 내용들을 공부했지만, '현재 순간의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께 매일 큐티하면서 적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향수 3 단계가 더욱 특별한 것은 매주 큐티 나눔을 한 것입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을 받게 되었고, 매 순간 주님께 묻고 답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함께 해주신 권사님과 자매님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토록 놀라운 은혜를 항상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뉴비전성경학교 3단계

신앙의 구슬을 꿰어주신 사람들

글 | 오설화

뉴인생에 대한 고민들을 마주해야 했던 시간들 속에서, 저는 하나님 이외의 모든 세상 지식, 지혜를 찾아 헤매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아이들이 유아기였던 (2-3 세) 시절부터 이 곳 실리콘 벨리에 9년 전 와서 지금까지, 너무 다른 교육시스템과 문화를 가진 도시들을 평균 2년마다 대여섯 번 이사를 하며 삶과 육아를 해 나가는 것은 제게 고된 짐이었습니다.

그렇게 표류하다가 이 곳에 왔던 첫 해에, 청소년 교육 수업과 1 단계 수업을 들었고, 그때 예배에 참가했던 저를 보면, 저는 철저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주님, 사랑, 찬양을 가사로 부르며 예배하는 분들 속에서, 어리둥절하기만 했던 제가 생각납니다. 그때는 예배가 그저 수업을 하기 전 잠시 거치는 예의 정도로 생각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주인까지 되어야 하는지, 하나님이 왜 그렇게 찬양을 받아야 하는 분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너무 낯설기만 한 분들이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둡고 폭풍 같았던 최근 몇 년을 거친 후 갈급한 마음이 많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맞게 다시 성경공부를 인도하시는 권사님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작년 가을에 사실 예배가 너무 드리고 싶어 가까운 곳에 혼자 조용히 가곤 했는데 그곳에서 밤에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진짜로 믿게 되는 자신을 보며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여정 안에서도 저는 '내가 설마 창조를 믿겠어? 아무리 하나님을 알게 되고 좋아하게 되더라도'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건 정말 어릴 때부터 부모님 영향 아래 기독교 집안에서 자연스레 듣고 자란 사람들이나 믿던가, 아니면 믿고 싶던가겠지 하던 생각이요. 그런데, 어느새 제가 그냥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믿어지는 게 신기하고, 그동안 거친 낯선 도시들과 나라에서 스쳐 갔지만, 내게 하나님 이야기를 육아, 결혼, 그리고 성경공부 통해 슬쩍 흘려주던 인연들이 떠오르면서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들 중엔 성경을 선물한 이들도 서넛 이상은 있었는데, 모두 나의 믿음의 목걸이에 구슬을 하나씩 둘씩 꿰어 주고 사라졌구나 싶었고, 그렇게 나타나고 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를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음을 믿게 까지 도와줬구나 라는 생각에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들은 나를 전도했음에 실패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 사람도 낭비되지 않았음을 느낍니다.

그다음 구슬은 어디에 있을까? 라는 즐거운 상상을 하며 기다리던 중에 권사님과 다시 연결시켜 주신 하나님. 그때 나는 창조를 믿는 내가 신기해서, 아는 크리스천 지인들과 간간히 문자 연락을 하던 중에, 처음 수업을 했던 권사님과 다시 연결이 된 것입니다. 은혜 입은 자로서 감사가 흘러나올 때, 하나님은 또 내게 필요한 사람과 자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교재의 각 장이 어쩌면 제게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한 것들인지, 흡수하느라 버겁고 어려운 수업이긴 했지만, 묵상, 고요함을 시작으로 한 배움의 연속은 제게 정말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케 하셨습니다. 코비드라는 상황이 여러 사람들에겐 더 힘든 삶을 주기도 해서 안타깝지만, 제게는 가장 최고의 환경이었습니다. 삶의 불편한 고민, 나의 불편한 내면에서 도망가고

자 다른 것들로 발길을 돌리기가 쉬운 저를, 오직 집 안에서 가족을 위해 충만히 섬김을 실천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만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훌륭한 여건이었습니다.
묵상의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매일 성경을 최대한 꾸준히 들었으며 과제로 하는 성경구절 묵상과 적용 결과를 적는 과정들은 저의 상태와 변화를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 듣기 훈련은, 일상에서 중요한 일에서 어떤 일을 할 때나 말을 할 때나 하나님께 물어보는 습관을 조금은 형성해준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의 작은 일상에서 많이 느껴지는데, 예전에 바로 내 습관대로 반응하고 행동했던 것보다 그 열매들은 차이가 많기 때문입니다. 쓸데없는 마음의 분란, 가족 내의 작은 부딪힘 들을 많이 제거해 주고, 제 마음에 평안이 훨씬 오래 지속되고 있음을 봅니다.

기도에 대한 훈련도 많이 된 것 같습니다. 혼자서 열심히 하고 있었으나 방법과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회개, 감사, 간구의 기도는 되는대로 해 왔지만, 하나님의 의의 나라를 위한 기도 , 리더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내가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는 것 등은 저의 기도의 반경과 깊이를 확대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기도의 순서가 말해주는 메시지가 컸습니다. 기도에도 섬김이 먼저라는 메시지는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또 개인 훈련 뿐 아니라, 단체 훈련 장들은 여럿이 모여 같이 예배하고 고백하고 섬기고 인도받을 때 내 삶이 어떻게 빚어질 수 있는지 청사진들을 보여 주었습니다. 진작에 했어야 하는 건데, 쿠퍼티노 삶이 너무나 바쁘고, 믿음의 여정이 중요한 것 같다는 희미한 생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하나님을 더 몰랐기에 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나의 삶을 해결해 주고 서포트해주는 지혜로운 존재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직은 내가 주인인 삶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내 삶이 바로 갈 수 있고, 나와 같이 삶을 나누는 사람들 또한 그 혜택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르는 가족이나 지인들도요. 하나님 임재 안에 있을 때 작은 일상도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하물며 한 사람의 인생 전체 그리고 그 인생이 여파를 줄 수밖에 없는 주변과 세상에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 낼까 생각해 보면 너무나 자명한 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빚어 주시는 일상이 쌓여서 내 삶의 방향이 되기에, 이제는 매 순간 매일 하나님 인도를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참 어렵습니다.

그 인도를 잘 받기 위해 공동체에 정말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드디어 교회 등록하고 첫 목장 모임도 줌으로나마 했습니다. 교재 통해 배운 단체 훈련, 섬김 등을 이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고 성장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 밖에서 제 멋대로 살아온 습관이 오래 지속된 사람이기에, 앞으로의 제 구원의 여정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계속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의 육적인 본능은 잠시 또 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지만, 그 주신 소망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계속하겠습니다.

디모데 공동체의 새로운 목자들을 소개합니다!

COVID-19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디모데 공동체의 열정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난 3월 중순부터 온라인으로 모임으로 진행된 목장 모임이 이제 새로운 목자 & 새로 편성된 목장과 함께 디모데 공동체의 2021년의 챕터를 열려고 합니다.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기 전에 사랑하는 뉴비전교회 성도님들께 디모데 공동체의 새로운 목자들을 소개합니다!

정가영

2021년 디모데 공동체의 목자로 섬기게 된 정가영입니다. 새해에는 나도 모르게 둔감해지고 나태해진 말씀, 기도, 예배 생활이 더 회복되고 살아나길, 복음이 다시 나의 삶의 중심축이 되어,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닌, 실제 내 삶에서 피가 되고 살이 되어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한 해 되길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작게는 목장 안에서, 또한 크게는 공동체와 교회 안에서 사도행전 적인 생명 운동과 제자 운동이 더 일어나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보는 해가 되길 기대하며 목자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재도

안녕하세요, 디모데 공동체에서 막내 목자로 섬기는 한재도 입니다. 처음으로 공동체를 목자로 섬기게 되어 사역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기대도 있습니다. 목장 가운데서 나눠질 은혜와 간증들, 또 그 안에서 이루어질 교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라 믿기에 기대가 됩니다. Pandemic 가운데 훨씬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지 모르지만, 목자로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디모데 형제자매들을 섬기며 다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많은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장혁재

제 이름은 장혁재이며 이직으로 인하여 산호세로 오게 되어서 2년 전부터 뉴비전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특별히 정해진 섬김의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새로 부임하신 황의현 목사님의 권유로 디모데 공동체의 목자로 섬길 기회를 얻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목사님과 공동체 섬김 이들이 여러 모임과 나눔, 토의 등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디모데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만들어져 갈 수 있을지를 기도하고 고민하는 모습들을 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멋지게 만들어져 갈 디모데 공동체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어 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웅

뉴비전 디모데 공동체에 등록한 지 이제 3년 차 된 김대웅 입니다. 이번에 뉴비전교회에서 처음으로 목자로 섬기게 되어서 설레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섞여서 드네요. 저는 모태 신앙으로 자라왔지만, 아직도 목자로 섬기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목자로 섬기는 것에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 묵상 가운데 주님의 능력만을 믿고 그의 인도하심에 의지하여 섬기기로 했습니다. 새롭게 편성된 목장에서 어떤 형제자매들을 만나게 되고, 또한 새로운 교제를 통해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성장해 나아갈지 기대가 됩니다. 저 또한 목자로 더욱 성장하고 주님과 더 가까운 관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배아름

안녕하세요. 제가 뉴비전교회에 온 지 벌써 거의 2년이 되어가네요. 저는 이번 2021년 처음으로 목자로 섬기게 되어 굉장히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롭게 섬길 기회, 마음 그리고 용기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저에게 어떠한 지혜, 리더쉽 그리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실지가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 목자로 섬기는 것을 통해 목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또한 그 은혜를 나누며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디모데 공동체와 새롭게 시작되는 공동체의 목장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임유정

안녕하세요, 저는 디모데 공동체에 재편성되는 목장에 목자로 섬기게 된 임유정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에서 순종하며 지난 몇 년간 목자로 섬기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고 목원들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 자신이 비워지고, 저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는 안 되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며 더욱더 감사하며 기쁨으로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코로나로 인해 많은 모임과 교제의 시간이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고 지난 목장 기간이 종료되면서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재편성되는 목장은 어느 때보다 새로운 마음가짐과 기대로 시작하는 목장인 것 같습니다. 익숙하지만, 또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목자로 섬기면서 모임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하나님이 중심에 계신 신앙생활을 함께 하며 서로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를 기대합니다.

임정현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질 목장의 목자로 섬기게 된 임정현이라고 합니다. 비록 뉴비전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목자의 자리가 참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라고 생각하고 저희 목원들을 최선을 다해 섬기려 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 제자리걸음만 하는 저의 신앙이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진

2020년 힘들고 상한 영혼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2020년 코로나뿐 아니라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생기며, 괴롭고 화나며, 그 속에서 저의 연약함이 많이 드러나고, 여러 사건을 마주했을 때 나타나는 나의 반응을 보며 실망도 하고 자책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나타났습니다. 저의 연약함과 겨자씨만 한 믿음 없음을 보여주시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로 섬기게 된 이유는 주님이 관계 가운데서 일하시고 저를 끝까지 붙드시는 분이심을 알기에,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려 합니다. 목자로 섬기며 그 시간 가운데 주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주심을 기대하며, 그 가운데서 목장에 동일하게 흘러 목장이 주님을 새롭게 또는 다시 만나고 복음을 누리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김현지

디모데 공동체의 새 가족 목장을 섬기는 김현지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비대면 및 온라인 접촉이 뉴노멀이 되어가는 요즘 우리의 사역도 완전히 새로운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디모데 공동체의 새가족부를 섬기는 목자로서 하나님께 사랑과 지혜를 구하며 우리에게 보내주실 새 영혼들을 섬기길 원해요. 다시 얼굴을 마주하며 교제할 그 날까지 예전과 다른 형태지만 중심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전합시다! 새로운 환영의 문을 열고 있는 디모데 공동체의 동역자들, 사랑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디모데 공동체의 새로운 목장은 2021년 1월에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장을 섬기는 목자들과 새롭게 시작하는 디모데 공동체의 목장을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뉴비전교회의 대학청년부 디모데 공동체의 "새벽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다시 교회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Arise! Revive! Regenerate! 디모데 공동체!

역사 속 성경 (1)
십자군의 배경

글 | 김원철

이 글에서 언급하는 교황청, 가톨릭, 교황 등은 부패했던 10~16세기 중반의 로마가톨릭(구교)을 언급하는 것이고, 현재의 가톨릭과는 상관이 없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1517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개신교가 나왔듯이 종교개혁 50년쯤 후에 가톨릭 자체의 종교개혁(반종교개혁으로 불림)으로 '새로운 모습의 가톨릭'이 나옵니다. 가톨릭이라는 이름은 같이 사용했지만요. 이 글에서 두 사건을 연결한 것은 글쓴이의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 있음을 밝힙니다.

십자군, 다들 아시죠? 탄압에 억눌린 시리아 기독교인을 구하라는 교황의 '과장된' 호소에 감동되어서 시작되었다고요. 그런데 교황은 왜 이런 호소를 했을까요? 고통받는 백성들을 너무 사랑해서? 본인이 시리아 사정을 잘못 알고 있어서? 글쎄요. 먼저 이 호소의 배경이 될 수 있는 카노사의 굴욕 사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카노사의 굴욕. 한 번쯤 들어 보셨죠? 어떤 왕이 교황에게 대들었다가 파문되어서 카노사에 가서 교황께 용서를 빌고 파문 취소되었다. 이런 내용 맞죠? 그런데,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후 둘은 사이좋게 행복하게 지냈다??? 이럴까요?

이 당시 교황과 왕들은 세상의 권력을 놓고 서로 경쟁합니다. 왕들은 자기 영토 내의 수도원을 자기가 지배하려고 하고, 교황은 왕들 영토 내에 있는 수도원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독차지하려 하였습니다. 수도원에서 무슨 이익이 있냐고요? 수도원들은 토지도 많이 소유하고 있어서 토지에서 생산되는 곡물도 많았고, 또한 수도원 이름으로 파는 상품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익이 많았습니다. 수도원에서는 맥주나 포도주 등도 만들어서 세금 없이 팔았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진정한 교회 개혁'을 이루고 싶어 하는 그레고리 7세가 1073년에 교황이 됩니다. 그런데, 그의 '진정한 개혁'이라는 것이 이웃을 돌보는 개혁일까요? 안타깝게도 이 교황이 추구하는 '진정한 개혁'은 교황이 이끄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교황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는 것, 그것이 그의 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 성직자를 자기 사람들로 채워갑니다.

그러자 당시 신성로마제국의 황제였던 하인리히 4세는 교황이 임명한 성직자들을 내보내고 자신이 직접 성직자들로 바꿔버립니다. 이에 화난 교황은 1076년에 황제를 파문합니다. 황제는 처음에는 파문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교황이 독일 지역의 제후들을 설득해서 새로운 황제를 추대하려고 하자 다급해집니다. 그래서 황제는 1077년 1월 겨울에 교황이 잠시 방문한 카노사성 앞에 가서 맨발과 수도사 복장으로 3일간 용서를 빕니다. 교황은 주변 사람들의 권유에 마지못해 파문을 철회합니다. 지금까지 등장인물은 교황 그레고리 7세와 황제 하인리히 4세 2명뿐입니다. 기억하시겠죠? 하인리히는 영국식으로 하면 헨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기억하는 카노사의 굴욕은 여기까지일 듯 합니다. 여기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눈 속에서 맨발로 3일 동안 무릎 꿇고 있었다는 기록도 있는데요. 이는 후대 일부 역사 기록자들의 극적인 과장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하면 동상뿐만 아니고 관절염이 걸리게 됩니다. (노약자는 절대 따라 하지 마세요.)

이 굴욕을 참았던 황제는 신성로마제국으로 돌아가서 3년 동안 권력을 안정시키고 곧바로 로마로 쳐들어옵니다. 다급한 교황은 현재 베드로 성당 앞에 있는 산탄젤로성으로 일단 피신하여 몇 년 동안 버티다가 이탈리아 남부의 살레르노로 도망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해(1085년)에 사망합니다. 그러니 카노사의 굴욕 사건의 최종 결과는 교황 권위의 추락입니다. 이 사건 후 약 15년간 후임 교황들도 로마 시내로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로마에는 프랑스에서 세운 대립 교황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레고리 7세 교황 사망 3년 후에 우르바노 2세가 교황이 됩니다. 이 교황은 무엇보다 교황 권력을 안정시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둔 무리수가 향후 2백여 년 동안 유럽을 황폐화한 십자군 전쟁입니다.

이 교황은 1095년 프랑스의 클레르몽에 가서 '세상은 신에게(즉, 교황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과 '시리아에서 핍박받는 기독교 형제들을 해방시켜야 한다'고 연설합니다. 이 연설은 '주님이 명령하셨다, 주님이 원하신다'로 마칩니다. '교황이 원한다'로 하셨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이 연설에 흥분한 유럽의 귀족들과 백성들은 그다음 해(1096년)부터 십자군 원정을 시작합니다. 각 지역의 왕들은 대부분 참여하기 싫어했지만 교황에 밉보이지 않을 정도까지는 지원합니다. 물론 프랑스 생루이 왕처럼 열성적인 왕들도 있었습니다. 왕이 십자군 전쟁을 떠난 곳의 권력은 성직자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 덕(?)으로 원정 시작 다음 해인 1097년, 우르바노 2세 교황은 로마에 있던 대립 교황을 몰아내고 무사히 로마 라테란 교황청으로 돌아갑니다. 전쟁이 지속되면서 속죄받고 싶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속죄권 또는 속죄권 가진 사제를 임명, 파문할 권위를 가진 교황의 권위는 점점 높아집니다. 심지어 1200년 즈음의 교황인 이노센트 3세는 '교황은 태양, 왕은 달'이라고 선언할 정도로 교황이 세상 권력의 중심에 섭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들어 본 사건들이 있으시죠? 아비뇽 유수, 면죄부, 종교개혁…. 맞습니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십자군 전쟁이 길어지면서 교황의 권위도 점점 약해지더니 1300년경에는 프랑스 왕에 의해 교황청이 아비뇽으로 강제로 이전되는 일까지 발생합니다. 아비뇽 유수입니다. 강제 이전 70년 후 교황청이 로마로 돌아옵니다만 도덕적으로 무너진 교황 주변 세력은 사치와 부패로 '돈을 사랑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말씀이 생각나시죠? 그들이 '사랑하는 돈'을 위해서 성직 매매가 성행하고 면죄부 장사를 하는 일까지 발생합니다(1500년경이 피크임). 그리고 이러한 타락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연결됩니다.

다음 호에서는 '아브라함 시대의 페르시아인'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쿠오 바디스
Quo Vadis

* **감상영화**: 쿠오 바디스 Quo Vadis
* **감　　독**: 머빈 르로이 Mervin Leroy
* **제　　작**: 1951년, 미국
* **상영시간**: 175분
* **장　　르**: 드라마/로맨스/멜로
* **관람대상**: 전체 관람가
* **출　　연**:

로버트 테일러 Robert Taylor
(마르쿠스 비니키우스 역)

데보라 카 Deborah Kerr
(리기아 역)

레오 겐 Leo Genn
(페트로니우스 역)

피터 유스티노브 Peter Ustinov
(네로 역)

패트리샤 라판 Patricia Laffan
(포파에아 역)

핀레이 큐리 Finlay Currie
(베드로 역)

아브라함 소페어 Abraham Sofaer
(바울 역)

버디 베어 Buddy Baer
(우르수스 역)

* 헨릭 시엔키에비츠의 "쿠오 바디스" (소설의 줄거리)

사악한 폭군 네로 황제가 다스리는 로마 시대의 귀족 청년 비니키우스는 리기아에게 한눈에 반합니다. 페트로니우스는 사랑에 빠진 조카 비니키우스를 도우려 하지만 일이 잘못되어 리기아는 행방을 감춥니다. 비니키우스는 리기아를 찾아내고 마침내 두 사람은 사랑을 확인합니다. 리기아는 로마에서 금지하고 있던 그리스도교 신자로 비니키우스도 점점 그리스도교에 감화되어 갑니다. 네로 황제는 로마에 불을 지르고 그 죄를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뒤집어씌워 잔인하게 처형합니다. 그런데도 로마 시민들 사이에 그리스도교에 대한 믿음이 널리 퍼지고, 네로 황제에 대한 불만이 마침내 폭발합니다. 페트로니우스는 황제를 조롱하는 편지를 남기고 자살합니다. 네로 황제는 반란군과 신하들에게 떠밀려 죽음을 맞이합니다.

** 책과 영화를 통한 나의 작은 생각의 편린들 ...

'네로 시대의 이야기'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이 소설은 타락한 로마 제국의 귀족 사회 모습과 그와 대비되어 박해를 받던 초대 기독교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민족주의 문학이기도 한 이 소설 속에 묘사된 고난 받는 기독교 신자들은 작가의 조국 폴란드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 소설은 폴란드가 제정 러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시기에 발표되었는데, 작가는 소설 속에서 압제와 폭정을 일삼던 네로 황제가 최후를 맞이하고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퍼진 것처럼, 폴란드 역시 언젠가 제정 러시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1905년에 작가는 '쿠오 바디스'로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서 세계적인 작가가 되었지만, 조국의 독립을 보지 못한 채 1916년에 일흔 살의 나이로 스위스 보베에서 조용히 생애를 마쳤다고 합니다. 작가는 '쿠오바디스'를 통해 숱한 박해와 고난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결국 인류에게 널리 퍼지는 종교가 되는 이유를 설득력 있게 그리고 있습니다. "쿠오 바디스 도미네(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질문은 사도 베드로가 그리스도께 던진 질문입니다. "네가 내 백성을 버렸으니 내가 가서 다시 십자가에 매달려야겠다"라는 주님의 대답을 듣고 베드로는 로마로 돌아가 사형 선고를 받고 순교합니다. 이것이 타락한 로마를 정복한 승리의 키워드였습니다. 2020년 잊지 못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의 고백과 함께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2021년에도 십자가를 달게 지고 묵묵히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랑하는 뉴비전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디모데후서 4:7-8)

SOLI DEO GLORIA!

청년사마리탄 안재규목사

크리스마스 예배

‘사진으로 보는 뉴비전’ 코너에서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교인들의 이런저런 모습들을 사진에 담아 뉴비전호로 보내주세요.
nvcpub@newvisionchurch.org

향수 45편

향수 CONTENTS

3 강청금 믿음의 여인들 믿음의 여정 안에서
4 유선희 믿음의 여인들 기도의 밧줄
5 박지원 믿음의 여인들 어느 날 갑자기 선택을 해야 한다면
6 정문경 믿음의 여인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7 신수진 마더와이즈 회복 주님의 신부로서 사는 삶
8 최이정 마더와이즈 회복 그리스도의 신부
9 이수연 마더와이즈 회복 너는 사랑스러운 주님의 헵시바!
10 이효미 마더와이즈 회복 간증문
11 안지원 마더와이즈 지혜 나를 만져주시는 하나님
12 전서영 마더와이즈 지혜 인생의 숱한 씨실과 날실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13 곽지혜 마더와이즈 지혜 축복된 사명과 감사
14 노다은 마더와이즈 지혜 간증문
15 안상미 마더와이즈 지혜 순종
16 이주현 마더와이즈 지혜 간증문
17 이여준 마더와이즈 지혜 하늘 아버지, 나를 감싸 안으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18 임은영 마더와이즈 지혜 간증문
19 조순희 마더와이즈 지혜 나의 삶의 우선순위
20 서은영 마더와이즈 자유 광야로 나아가며
21 이승연 마더와이즈 자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22 박주희 마더와이즈 자유 나의 생명되신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네
23 이정현 마더와이즈 자유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
24 최연화 마더와이즈 자유 간증문
25 오애란 마더와이즈 자유 간증문
26 배은아 마더와이즈 자유 영적인 자유를 경험하다!
27 정예진 마더와이즈 자유 뜻밖의 선물
28 최지선 마더와이즈 자유 자유함을 얻기 위해 내가 지금 할 일
29 김국희 말씀카페 사랑반 우리 하나님 아버지
30 국은희 말씀카페 기쁨반 기도하면 내가 그를 기뻐하리니
31 송혜란 말씀카페 기쁨반 욥기에서 배운 것들
32 김윤영 말씀카페 기쁨반 간증문
33 김미혜 말씀카페 기쁨반 간증문
34 김종원 말씀카페 평화반 고난 뒤에 감추어진 축복
35 이사라 말씀카페 평화반 밤에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
36 한현주 말씀카페 인내반 감동의 목소리 선물
37 박정하 말씀카페 인내반 내 인생의 영적 로드맵 그리기
38 노혜원 말씀카페 인내반 욥, 끈기로 순금임을 증명하다
39 채경선 말씀카페 인내반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40 손명화 말씀카페 온유반 욥의 고통으로 이해되는 연단의 법칙
41 이한나 말씀카페 온유반 코비드-19을 통한 감사
41 박순희 이슬비 성경암송 도전과 성장
42 정신애 이슬비 성경암송 붙어 있으면 됩니다
43 전연향 이슬비 성경암송 동행
44 이한광 성혜정 전도사 은퇴 성혜정 전도사님을 향한 고별 간증
45 김영미 성혜정 전도사 은퇴 감사꽃 한아름
46 성혜정 은퇴인사 뉴비전교회의 사역을 마치며

강청금

믿음의 여정 안에서

믿음의 여인들

처음으로 부리더로 반에서 섬기게 되면서 한 학기가 지나고 나니 리더 집사님의 기도처럼 누구보다 먼저 저에게 도전이 되고 배움이 가득한 시간임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여인들을 듣는 것도 좋았지만 직접 찾아보고 성경을 꺼내 읽고 설교들을 찾아가며 듣고 찬양과 좋은 영상들을 나눠보면서 더 깊은 묵상을 나눌 수 있어 좋았습니다. 섬기는 자리가 부담스러워 고사할 때는 알 수 없던 한 그룹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에 앉게 하시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와 필요를 예수의 옷을 입고 대신하여 간구하며 사랑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지금까지 가지지 못했던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한 중보가 얼마나 필요한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소그룹 모임이 한 시간, 한 시간 쌓이면서 좀 더 서로를 알아가게 되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예전에는 남에게 관심도 없던 모습이 이제는 알람을 맞춰놓고 중보를 하면서 기도 노트를 펴지 않아도 그들을 위한 기도가 나오게 하시는 변화에 감격하고 기도를 리더 집사님과 함께 드리고 난 후 느껴지는 성령님의 뜨거운 열기에 밤 잠을 설치면서 기뻐하는 중 저에게는 예상치 못한 시험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가족과 인터넷 없이 시간을 보내 보면서 산책을 싫어하던 첫째 아이가 산책 후 돌아오는 길에 말없이 손을 잡아주는 그때의 기분은 하나님이 이렇게 또 한 번의 영적 성장을 시켜주심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제 속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는 내 열심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하나님보다 더 컸음을 인정하고 내가 이런 일들을 잘하는구나라는 달란트 발견이 모든 내 자리에서 완벽하게 해내고 싶다는 욕구로 변하려는 내 속의 욕망을 자각하게 되면서 믿음의 여인들에서 배운 믿음의 용기란 바로 나의 노력으로만 살아가려는 죄의 습성을 발견했을 때 시린 가슴과 자각하기 싫은 현실의 본모습에 다시 한번 그 발 앞에 엎드린 마리아처럼 주의 발아래서 배우고 따르며 내 모습 그대로 나아와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과도한 인터넷의 사용 금지는 그전에 온라인 게임 앱을 지울 때나 삶의 시간 속에 알람으로 기도 시간을 저장하고 성경을 읽고 하던 것보다는 훨씬 힘들고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래도 남편과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고 서로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며 아이들과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많아져 앞으로 더욱 성장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제는 본성의 한계를 넘어서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신앙인으로 자라가길 소원합니다.

유선희

기도의 밧줄

믿음의 여인들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나의 삶은 지쳐갔고 영적으로는 바닥에 떨어져 있는 느낌이 들었다. 향수 예배 시작은 나의 믿음을 끌어올릴 수 있는 시간임을 알기에 '믿음의 여인들' 반을 등록하게 되었다. 믿음의 여인들을 공부하면서 내가 그동안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한 여인들이었는데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한 명 한 명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들 속에는 나의 성경 지식보다 더 많이 헌신하며 섬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었다. 그 당시 배경을 보면 여인들은 남자들보다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활동 제약도 있었는데 어떻게 그런 헌신. 믿음들이 있었을까를 생각하면 감탄만 나올 뿐이다. 그 중에 기도하는 한나를 공부하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다.

한나는 오랫동안 자녀가 없음으로 고통 당하는 와중에 끊임없이 예배하였다. 또한 기도의 밧줄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길로 움직이게 한 한나. 그리고 드디어 사무엘을 얻고 다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훈련시키고 온전히 그 아들을 주님께 맡겼다. 어떻게 그런 믿음이 있었을까. 상상이 가지 않는다. 한나의 상황은 나의 상황과 너무나 비슷함이 많았다. 그렇기에 그 아픔을 절절히 느낄 수 있었다. 결혼을 하고 9년이 지나도록 주님께선 나에게 자녀를 갖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셨다. 처음 몇 년은 금방 주시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기다렸지만 3년, 5년이 넘어가면서 절망도 많이 하고 주님을 원망하고 울부짖어 기도하는 나를 많이 보게 되었다.

몇 번의 유산으로 자연 임신으로는 갖기 힘들었고 시험관도 여러 번 실패하였다. 주변엔 너무 쉽게 되는 임신을 왜 나에겐 주시지 않으신 걸까 주님께 여쭤보고 여쭈어 보아도 묵묵부답이었다.

길을 가다가 임산부와 아기만 보아도 부럽고 슬프고 마음이 시렸다. 날이 갈수록 난 더 초초하게 되고 어디를 가도 속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게 되었다. 결혼한 사람 대화들은 대부분 아이들 얘기로 가득했고 나만 동감하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한 시댁에도 뵐 면목이 없었고 친척들은 애써 외면하지만 지나가는 말로 건네는 말들이 내 마음에 상처가 되어 되돌아왔다

8년쯤 기다렸을 무렵이었을까 교회에서 가족단위로 축복기도를 해주었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실 때 무언가 나에게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다. 꼭 자녀를 주어서 가족을 이루 시게 하시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감사함으로 눈물은 하염없이 흐르고 있었고 그 느낌은 지금도 기억난다.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의 고통을 씻어주고 주님의 귀한 자녀를 주시기로 확정해주신 날 그 후로 좀 더 인내의 시간이 필요했지만 주님이 주신 확신이 있었기에 기대하고 기대하며 참아낼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드디어 주님의 주신 아름답고 귀한 선물이 나한테 찾아오고 만나고 꿈같은 10년의 시간들이 지나고 지금은 개구쟁이로 건강하게 내 옆에서 하루에도 몇십 번 엄마~를 부르며 재잘거린다. 뒤돌아보면 그 긴 고통의 세월 동안 주님께서는 나를 단련시키신 깊은 뜻이 분명히 있으리라 믿는다. 한나의 희생으로 싹이 나고 열매 맺고 주님의 귀한 제사장 사무엘을 세우신 것처럼 기도의 밧줄을 놓지 않고 나의 삶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의 자녀를 온전히 맡기고 그 삶을 이끄시도록 오늘도 기도해본다.

박지원

어느 날 갑자기 선택을 해야 한다면

믿음의 여인들

3월에 자택격리 이후 팬데믹 상황이 길어지면서 남편과 세 아들이 집에서 온라인 수업과 재택근무로 하루 세끼 식사 준비와 집안일 분주하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팬데믹 초기에 갖었던 막연한 불안감과 코비드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의 자리에 매일 같은 생활의 반복과 분주함으로 불평과 피로함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가을 향수에서 믿음의 여인을 배우고 있었는데 성경에서 그냥 지나쳐 읽었던 믿음의 여인들 특히 기생 라합의 믿음과 용기 그 실천에서 저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역시 교만하고 굳은 생각을 가진 저를 주님은 깨우쳐 주시고 가장 낮은 기생을 쓰셔서 용기 있는 행동으로 이스라엘을 돕고 자기 가족을 구하고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어서 예수님 족보에 오르는 그런 큰 쓰임을 받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선택의 순간 라합은 그 이전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여호와가 홍해를 가르시고 아모리 왕들의 멸망도 들었고 이 땅 위에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에 라합을 그런 용기를 내어서 정탐꾼을 숨겨주고 도와주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았기에 하나님을 선택하였고 그 뒤에 그녀와 가족을 모두 살리며 본인 또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믿음의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 주님의 위대하심을 바로 알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역사하심을 깨달았습니다. 항상 상식을 뛰어 넘으시는 가장 낮은 자리의 기생 라합을 쓰셨으며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되었지만 온라인에서 더 뜨겁게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모이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향수 자매님들과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배우며 눈물을 같이 흘리며 기도 하게 하였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위로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문경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십니다.

믿음의 여인들

이번 가을 학기는 둘째를 임신한 상태이기도 했고 아이가 온라인 수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향수를 잘 집중해서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어렵게 느껴졌었던 욥기 말씀 카페도 너무 듣고 싶었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하게 수업을 듣고 싶어서 다시 믿음의 여인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침부터 분주했고 온라인 수업에 적응이 안된 아이의 호출과 요구를 들어주느라 정신이 없었고 임신 중이어서 허기짐을 못 참아 아침은 꼭 챙겨 먹어야 했고 몸은 빨리빨리 움직여지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자리에 껴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중간중간 인터넷 커넥션이 끊어지고 안 좋고 여러 가지 이유로 흐름이 끊겨도 자매님들의 믿음의 삶의 나눔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임하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믿음의 여인반은 여러 번 참여했고 공부했지만 참 신기하게도 매번 새롭게 느껴지는 게 정말 은혜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이번 학기는 한나가 기억이 납니다. 둘째 아이를 임신 중에 있어서였는지 아이를 간절히 사모하며 구하는 한나의 마음이 느껴지며 생명의 소중함이 깨달아지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둘째에 대한 마음이 있었었지만 저의 생각과 계획대로 쉽게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을 겪으며 또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주시는 걸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둘째 자녀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저에게 가장 좋은 타이밍에 허락해 주신 선물이라는 깨달음이 들어서 감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 가운데 생긴 아이라 혹시나 힘들진 않을까 걱정할 수도 있겠지만 누구보다 저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기 동안에 잠도 많이 자게 해 주시고 삼시세끼 더 잘 챙겨 먹게 해 주시고 너무 피곤치 않게 해 주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시기에 사람들과의 만남도 줄어주니 아쉬울 수도 있지만 그 대신 말씀을 가까이할 수 있는 시간들도 늘고 많은 것들과는 단절되었고 막혀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신에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훈련을 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라는 상황이 완전히 무시되는 것은 아니고 때때로 두려움이 엄습하지 않는 것도 아니지만 생명의 주관자시고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매일매일 고백하는 제가 되기를 환경의 막막함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늘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되기를 오늘도 바라고 기도합니다.

신수진

마더와이즈 회복

주님의 신부로서 사는 삶

큰 아이가 학교 생활 중에 큰 아픔을 겪으며 힘들게 고등학교 주니어 시니어를 지나는 동안, 엄마로서 아이와 같이 바쁘고 같이 힘들어하면서 아이의 일만이 내 삶의 중심이 된 채로 나 자신은 사라진 듯했다. 가족들을 뒷바라지하며 소모품으로서 존재하는 듯한 생각 때문에 우울하고 지쳐있었다. 하루하루가 이렇게 견뎌내기 힘들 바엔 차라리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실 날이 빨리 왔으면 하며 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게다가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무심해진 상태여서 기계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바쁘다는 핑계로 향수 예배에는 참석하지 않고 있었다.

새로 같은 목장에 배정된 서정윤 자매님께서 내가 전에 자유반을 수강했었으니 이번엔 회복반에 등록해 보는 게 어떨지 권유하셨다. 자발적으로는 새로운 일에 한 발자국도 내딛고 싶어 하지 않는 내 성격에 자매님의 권유는 큰 힘이었다. 게다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수업을 한다는 것이 교회까지 편도 30분 운전거리도 번거롭게 느끼는 나에게는 큰 편의였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었던 것도 은혜였다.

마더와이즈 회복을 통해서 나를 놀랍게 변화시킨 실마리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신부로 선택되었다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유대의 결혼 관습을 이야기로 꾸며서 풀어가는 가운데, 머리로 알고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잘 느껴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이 시각적이고 구체적으로 다가왔고 이제는 의심 없이 내 마음속에 느껴지게 되었다.

요한복음 15절 16장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라는 말씀이 첫 주의 말씀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 게다가 나라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셨다는 사실이 놀랍고 감격스러웠다. 그리고 과실을 맺으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에 걸맞게 나를 준비해야한다는 책임감으로 살아가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약혼 이후 결혼식날 데리러 오실 때까지 어떤 모습으로 준비하고 기다려야 할지 알게 된 것이다. 주님의 신부로서 나를 깨끗하게 할 것이고 아름답게 꾸미고 합당하게 행동할 것이다. 주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나에게 필요할 것을 모두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나도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어 졌고 그렇게 드리기로 주님께 약속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입은 나를 만들기를 힘쓸 것이다. 비록 완벽한 모습을 만들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님은 내게 실망하지 않는다. 여전히 나를 신부로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안다. 세상이 거짓말로 속이며 내가 중심에 있지 않으면 실패자라고 몰아붙일 때 이젠 더 이상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뒷바라지하는 엄마로서 살아가는 내 모습을, 희생만 할 수밖에 역할로서 일궈낸 작은 열매들을 주님이 값지게 여기실 거라고 믿고 지금의 나의 환경을 감사할 수 있게 됐다. 가족을 섬기는 것도 주님이 주신 은사였고 사명이라는 것, 이 땅에서 내 삶은 주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 금과 보석으로 만든 신방을 위해서 쌓아 올려지고 있는 벽돌이라는 것, 이런 깨달음으로 내가 주님의 신부로서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귀한 존재라는 것이 설명되었다.

또한, 주님이 택하실 다른 영혼들이 주님을 모르는 상태로 절망적인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께 어서 빨리 선택받는 축복을 누리도록, 내가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겠다는 다른 사명도 생겼다. 믿지 않는 부모님과 형제에게 이 사랑을 빨리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내게으름을 재촉하기 시작했다.

주님, 저를 다시 데리러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지금의 나의 삶을 사는 동안 사명감을 가지고 기쁘게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심히 부족하더라도 당신이 사랑을 거두어 가실 거라고 의심하지 않아요. 제 힘으로는 부족함을 고백하며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겠어요. 저를 사랑해주시고 택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최이정

그리스도의 신부

마더와이즈 회복

이번 학기 마더와이즈 회복은 하나님이 저에게 마련해 놓으신 시간이라 생각하고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팬데믹 상황 전에 바빴던 화요일의 일상이 잠시 주춤해지면서, 향수에 다시 등록할 수 있었고, 이 시간 회복을 통해서 많은 은혜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첫째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성경에서만 표현되는 천국이 사실 마음에 와 닿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회복을 공부하며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이 세상 끝나고 예수님을 대면한다는 것에 저의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기름을 늘 준비해야 함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나의 마음이 예수님께 늘 향하여 있는지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향하여 있을 때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도 맺을 수 있음을요.

둘째, 예수님이 나에게 향하신 무한대의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공부 중에 천국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두신 보석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의 머리로는 얼마나 크고, 얼마나 빛나고,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보석에만 눈이 가고, 이 땅에서 평범하게 사는 내가 과연 천국에서 그 보석을 본들 얼마나 좋을까 상상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속 내용을 읽고 묵상할 때, 예수님이 나에게 향하신 무한대의 사랑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나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을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 깊이와 넓이를 저의 생각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이 저에게 향하신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회복을 통해 내가 먼저 회복이 돼야, 가정도 회복이 되고 또한 나에게 향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남편과 저의 아이들에게도 향해 있음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이번 학기 많은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이수연

마더와이즈 회복

너는 사랑스러운 주님의 헵시바!

마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회복을 택하면서 어떻게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실지 많은 기대를 했었다. 그러나, 레위와 술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혼을 준비하는 신부로서 어떤 몸가짐과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며, 나의 결혼생활을 돌아보게 하셨고, 남편과 주님께서 주신 기업: 삼 남매, 세 아이들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게 하셨다.
나에게 초점이 맞추어 있던 회복에서 우리 가정을 향하신, 남편과 세 아이들과의 관계의 회복과 치유를 보여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로서 내가 얼마나 내가 사랑받고 소중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마음으로 느끼게 해 주셨다.
남편과 세 아이들에게 소홀했던 순간들을 보여주면서 남편도, 세 아이들도 주님의 소중하고 귀중한 신부들임을 또한 알게 하셨고, 가족들을 통해 내가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지 또한 알게 하셨다.

이제 남은 시간들을 고린도 4장 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로 기록되어 있듯이, 사람의 눈치나 칭찬을 구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열매 맺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칭찬을 위해, 부끄러움이 없는 하루하루를 주님의 신부로, 돕는 배필로, 지혜로운 신앙의 선배이며, 엄마로 뒤를 돌아보지 않는, 주님께서 주신 푯대를 향하여 한발 한발 믿음의 행보를 하기를 다짐해 본다.

시편 30:11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 띠우셨나이다. 아멘!

이효미

마더와이즈 회복

간증문

이번 학기 향수는 사실 예배만 보고 소그룹은 다음 번에 하자 하며 시작하였다. 온라인 수업하고 있는 아이를 챙기기에도 바빴고 다른 공부도 하고 있어서 마음의 여유도 없었다. 그러다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마더와이즈 회복반에 들어왔고 반겨주시는 집사님들 덕분에 기쁜 마음으로 또 함께 하게 되었다.

회복 공부를 통해 하나님은 티끌 같은 나를 자신의 아들(예수님)의 신부로 나를 택하심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내가 무조건 따라야 함이 아닌 내가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나를 기다려 주신다고 했다.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기에 기다리며 등불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늘 준비하는 모습으로 내 안의 변화를 이루며 오실 신랑을 기대하며 기다려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나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최종 목적이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천국 소망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머리로는 맞아요 주님 그랬지만 실제 나의 삶은 너무나 부끄러웠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내가 그의 창조물 임을 알면서도 자꾸만 내가 뭘 하려고 하고 내가 선택한 사랑인 것처럼 난 종종 행동하곤 했다. 나한테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신 적도 없는데 스스로 내가 세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자책하고 실망하고 힘들어했다 그것은 참으로 오만한 행동이었고 나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이전의 내가 아닌 정결하고 깨끗한 주님의 신부로 내 안의 것들이 바뀌야 한다는 것을 오이에서 피클로 변하는 것에 비유한 설명이 있었는데 나 자신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피클로 되려고 하면 다시 오이인 예전의 나로 돌아가 다시 주저앉을 때가 많았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나를 씻어낼 수 있는데 그 시간을 감내하지 못하고 내 죄를 내가 다시 끌고 돌아오곤 했다.

그랬던 나에게 온전한 사랑으로 괜찮다 하시며 때로는 누군가의 기도로 때로는 성경말씀으로 때로는 마더와이즈 교재를 통해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나의 작음을 돌아보며 나를 택하시고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해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린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에 용서로 시작하여 마지막은 나 자신을 용서하여 내 마음에 더 이상 미움과 불평이 아닌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진정한 회복임을 알게 해 준 이번 클래스를 들으며 난 그동안 왜 사람들의 인정과 시선에만 나 자신을 두었었나. 이제는 그러지 말자! 그리고 그 마음 변치 않길 기도하며, 고난의 시간을 통해 나오는 진정한 회개의 시간을 통하여 그래서 더욱 성숙한 사람이 되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부가 되길 소망한다. 그리고 아직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이 속히 마음의 문을 열어 잔치에 같이 들어가길 간절히 바란다.

안지원

마더와이즈 지혜

나를 만져주시는 하나님

향수 예배. 마더와이즈에 대하여, 목장 자매님들 또 교회 자매님들을 통해서 듣고 항상 기회가 되면 가고 싶고 듣고 싶었었는데, 일을 핑계로 참석하지 못하고 언제나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로 인해 모든 일과 생활이 바뀐 이후 "줌으로 향수 한대, 너도 빨리 등록해"라고 언니의 한마디에 고민하지 않고 바로 등록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새벽부터 밤까지, 또 하고 있는 일들, 하루하루 바쁘게 지내고 있던 나에게, 향수 예배와 마더와이즈는 내가 주님의 딸로, 여성으로, 아내로, 또 엄마로서 어떻게 더 잘 지낼 수 있는지 느끼고 배울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내가 나한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 생각하며 마더와이즈 공부를 시작했는데 새벽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숙제를 하면서 그 시간이 힘들지 않고 조용히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마더와이즈 첫 부분에 나는 삶의 지혜를 어디서 찾고 있을까 라는 질문에 답은 알고 있었지만 말씀에서 지혜를 구하지 않고 친구들 아니면 아이들 친구 엄마들을 통해 그 답을 구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주님께 먼저 맡기지 않고 나 스스로가 해결하려고 했던 저였습니다. 나를 다시 바라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앞으로 내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이 저와 항상 동행하신 다는 말씀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19-20)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사소한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뜻대로 저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전선영

인생의 숱한 씨실과 날실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마더와이즈 지혜

타주에서 이사온지 3년이 다 되어가지만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처지로 지내던 차에 알고 지내던 자매님들이 향수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나눠주시는 것을 듣고 지혜 클래스에 등록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아내로서, 세 아이의 엄마로서 제 한계를 느끼며 부족함을 많이 느끼던 중에 마더 와이즈 클래스는 제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맞춤 처방이 가득 들어있을 것처럼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게다가 좋아하는 자매님이 듣고 계시다니 낯을 가리는 저도 그 자매님께 의지하며 부담없이 들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두 번째 시간부터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클래스가 시작되기도 전, 늦게 합류한 제게 교재를 전하러 직접 저희 집에 찾아와 주신 자매님의 사랑과 정성이 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전해주신 교재를 받자마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한 장마다 많은 지혜의 말씀들이 가득 찬 교재를 읽는 재미에 빠져 첫 클래스가 무척 기다려지고 설레기까지 했습니다. 낯선 분들과의 만남을 부담스러워하는 저로서는 생각지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첫 클래스가 시작되고, 한 주간 각자의 자리에서 공부한 내용들을 나누는 자리는 특별했습니다. 자매님들의 각기 다른 생활환경과 경험 속에서 나오는 나눔을 듣는 것은 교재에서 느끼는 기쁨과는 또 다른 그것이었습니다. 같은 교재를 읽었음에도 각자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온 내용들이 다 다른 것도 신기했습니다. 매주 같은 내용을 공부했지만, 모두 다른 인격체이고 지금까지의 인생 경험도 다르다 보니 나눔이 다양하고 그것들이 모여서 전혀 새로운 의미로 재탄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재질도 색감도 다른 씨실과 날실들이 새롭고 특이한 느낌의 옷감을 만들어낸 것처럼 저희 소그룹만의 독특한 그 느낌이 참 따듯하고 포근해서 매주 다음 모임이 기대되었습니다. '6' S 기도' 또한 제게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기도도 서툴고 중언부언하기 일쑤였던 부족한 기도지만, 제가 기도하는 자매님의 간절한 기도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저 또한 주님과 친밀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명 한 명 모든 지체의 기도를 듣고 서로가 서로의 간구를 전심으로 중보 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임에도 서로가 가족처럼 가까워지는 경험은 세상의 모임과는 구별되는 특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업이 저에게 특별했던 점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클래스를 통해 배움과 기도로 하나 되어 가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남편의 뇌종양이 재발되었다는 절망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처음 며칠 동안은 낙심과 불안으로 눈물만 흘리며 보냈는데, 검사 결과를 두고 함께 기도해주시던 제 기도 짝이신 리더 자매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기도와 격려를 통하여 곧 정신을 차리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소그룹의 모든 자매님들 또한 진심 어린 중보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여섯 시간에 걸친 장시간의 수술에 초조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몰려들 때도,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기도로 무장한 주님의 군대와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병원과 아이들이 있는 집을 오가며 전전긍긍할 저를 위해 아이들의 끼니를 챙겨주시는 자매님들의 실질적인 도움을 통해서는 구하기도 전에 제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여러분들의 중보기도 덕분으로 남편은 수술을 잘 마쳤고 무사히 퇴원 후 집에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치료의 여정이 남아있지만, 지금까지 그랬듯이 어느 순간 어디를 가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 손 꼭 붙잡고 다음 발길을 내딛습니다.

축복된 사명과 감사

곽지혜

마더와이즈 지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항상 있었지만 우선 순위가 자주 뒤바뀌는 질서 없는 일상 속에서 시간을 내고 몸과 마음의 게으름을 이겨내고 꾸준하게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말씀을 배우고 삶을 나누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모임이 있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물리적 거리로 인해 향수 예배를 참석하는 것은 그동안 포기하고 있었는데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어 기대하는 마음으로 향수 예배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아이 셋을 돌보면서 성실하게 잘 참석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있었지만 그래도 예배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고 하나님께서 어떤 가르침과 은혜를 주실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주제별 소그룹을 하면서 공부하고 묵상할 수 있어서,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서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마더와이즈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정에서는 아내로서, 엄마로서의 하나님의 저를 향하신 계획과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귀한 사명을 주신 것에 감사드렸습니다. 결혼을 하고 한 남자의 아내가 되고 서투르게 하나, 둘, 셋의 엄마가 되었지만 각각의 역할을 일관적이고 바르게 해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마더와이즈 지혜는 각각의 역할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해 성경적이고 모범적인 지침이 있어서 유익했고 제 삶에 도전이 되었습니다.

특히 마더와이즈 지혜에서 와 닿았던 부분은 어머니의 역할, 자녀와의 관계 부분이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세 아이들을 허락하신 것에 감사했고 어머니라는 소중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어머니는 자녀에게 육체적, 정서적, 영적인 생명을 주는 사람이라는 말씀은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해 준 말이었습니다. 평소에 아이 셋을 키우면서 양육과 훈육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먼저 성경을 펼치고 기도하기보다는 육아서를 꺼내 공부하고 그것이 정답인 것처럼 따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와 아이들에게 궁극적이고 지속적인 방법이 되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듯해도 다시 반복되거나 또 다른 어려움들이 찾아왔고 또 그 방법을 일관적으로 해내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마더와이즈에서는 자녀에게 주어야 하는 세 가지 선물로 '사랑의 담요', '훈육의 회초리', '생명의 떡'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세 가지는 자녀를 양육하고 훈육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기본적인 가치를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아이들을 무조건적으로 따뜻하게 사랑해주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처럼 아이들이 바른 길로 가도록 말씀으로, 회초리로 훈육하고 순종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의 참 부모님 되시는 것처럼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들의 참 부모님 임을 알려주고 그들의 일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 이 세 가지는 성경적이고 중요하면서 간결해서 큰 깨달음이 되었습니다.

마무리하면서 무엇보다 아이들을 위해서 더 기도 해야겠다는 결심이 들었고 성경 속에 나온 자녀들을 위한 기도대로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제게 어머니라는 소중한 사명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힘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한 가지 향수 예배를 하면서 감사했던 것은 소그룹 모임 중에 센텐스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소모임 구성원들이 매주 한 가지 기도제목으로 두 세 문장씩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중보하는 마음이 모아지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아직 해 보지는 못했지만 가족들과 특히 아이들과 함께 센텐스 방식으로 기도해보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향수 예배, 마더와이즈를 통해 아내로서, 엄마로서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나가는데 동참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축복함으로 주시고 도우신다는 믿음이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참 지혜임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향수 예배와 마더와이즈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은 시간, 마더와이즈 지혜!

노다은

마더와이즈 지혜

간증문

저는 올해 코로나의 영향력이 한국까지 극심해지던 2월 이곳 산호세에서 출산을 하였습니다. 타국에서의 임신과 출산은 산후 우울증으로 이어지고 영적으로도 깊이 침체되어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상담을 요청하고 성혜정 전도사님께도 연락이 닿아 가을학기 향수 마더와이즈를 듣도록 권면을 받아 지혜반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Zoom으로의 모임이 익숙하지 않았지만 출산과 코로나바이러스로 어디에도 나갈 수 없는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마더와이즈 지혜를 공부하며 지혜로운 여인의 기초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초반부 구원의 확신을 확인하는 시간, 구원의 확신을 세모로 대답한 저는 리더님, 부리더님과 함께 새롭게 복음을 제시받고 영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초신자는 아니었지만 다시금 복음을 듣고 영접하며 제 초점이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께로 더욱 맞춰지게끔 인도해주신 거 같습니다. 이후 아내로서의 여성, 어머니로서의 여성, 여성의 사역 등을 배우게 되었는데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지혜가 필요함을 에스더나 룻 등의 여성들의 모습을 예로써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간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싶었는데 마더와이즈 지혜의 시간은 그런 지혜를 공급해주는 창고 같았습니다. 또한 다른 선배님들의 경험들을 들으며 아이가 어린 저로서는 많은 지혜와 경험을 마음에 미리 담아둘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로써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할 때 마음이 뭉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이요 딸이기도 하지만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며 이 딸이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고백하며 저 또한 성실히 육아와 중보를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전하겠습니다.

저에게 복음을 다시금 들려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남편의 돕는 배필로써 믿음의 어머니로써의 삶을 잘 살아가기를 소망하시며 저에게 이 시간을 통해 지혜를 공급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수고하신 리더님과 부리더님께 감사드리고 함께 6s 기도로 중보 하며 서로를 응원한 팀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상미

마더와이즈 지혜

순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격리기간이 길어지니 마음이 약해지고, 말씀에서 멀어지니 가족들 사이에도 불협화음이 생겨났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부족할 때 향수 온라인 예배가 찾아왔습니다. 교회에서 진행될 때는 아이들 등하교 문제로 참여할 수 없었는데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엄마로, 아내로, 그리고 나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고 기도해야 하는지, 제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따르고 닮아 간다 했지만 정작 삶에서는 순종치 않았던 과거를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출석을 거부하는 남편과의 갈등도 남편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고 말씀으로 순종하라며 다시 낮아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왜 또 나인지, 왜 매번 나인지 불평과 불만으로 말씀을 거부했지만 주님께서는 너여야만 한다며 제가 할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기도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기도하는 방법부터 변화되게 하셨습니다.

마더와이즈 지혜를 만나게 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삶 속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어머니, 아내, 자녀가 되기 위해 기도하며 노력하겠습니다.

간증문

이주현

마더와이즈 지혜

성경공부를 하면서 저는 기도의 영역이 확장되어 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지혜반을 들어가기 전부터 이번엔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어떤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실까? 하는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기도하며 하나님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성이 되게 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지혜를 어떻게 구하여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마더와이즈 지혜반은 매주 공부하면 할수록 설렘이 있었습니다. 너무 부족했던 나의 목마름이 한주 한주 말씀을 묵상하며 삶에 조금씩 적용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부족한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었지만 내가 매일 하나님과 나만의 온전한 시간이 없었음을 느끼며 매일 눈을 뜨면 30분이라도 성경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하기로 작정하고 주중에 매일 그것을 실천하였습니다. 하루 중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읽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니 매일매일 하나님을 잊지 않고 바라보는 시간을 갖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를 통하여서는 남편을 이 가정의 믿음의 제사장이고 리더 자임을 하나님께서 인정하게 하셨고 섬기는 마음 또한 주셔서 욱하는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며 안될 때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였습니다. 돌아보면 지혜반을 공부하는 동안 남편과 더 많이 웃게 되었고 제 맘에도 더욱 평안함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잘 되든 안되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남편의 갈비뼈로 만든 돕는 배필로 남편을 존경하며 남편의 심장을 지키는 아내로서의 역할을 귀하게 감당하기로 다짐해 봅니다.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는 맘이 조금 무거웠습니다. 성경공부를 하고 나서도 뒤돌아서면 또다시 아이들에게 잔소리 폭탄을 던지고 있는 제 자신을 보자니 참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답답한 제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저는 온전하지 못한 부모지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만드는 신 목적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일꾼으로 하니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부족한 육신의 부모이지만 우리 아이들의 참된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리라는 믿음이 드니 제 마음에도 평안이 오고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섬김과 봉사에 대한 질문이 던져질 때면 전 못 들은 척 숨고 싶고 피하고 싶은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이 책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 한 명 한 명을 다 다르게 만드셨듯이 지금 제 사명은 제 가정에서 아내로 엄마로 가족들을 섬 기 또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주시는 마음대로 도움을 주고 기도의 중보자가 되는 것도 나의 사명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명을 주시든 아멘으로 화답할 날을 기대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에 있어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그릇이 되도록 쭈욱 노력할 것입니다. 저를 이 자리로 택하여 주셔서 좋은 집사님들 자매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서로 중보 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늘 아버지, 나를 감싸 안으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이여준

마더와이즈 지혜

Shelter-in-place 기간이 길어지면서 가장 아쉬운 것은, 매주 교회에서 마주치며 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시던 분들을 자주 만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 한 분이신 지혜 2반 리더님과 자연스럽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향수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동기는 선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제가 나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던 부분들을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 주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전도의 기회를 주셨고 순종함 가운데 좋으신 주님을 새롭게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공부하며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말씀의 순서대로 나를 만나 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 14:20). 리더님께서 알려주신 종이접기 바구니를 가족과 만들고 하나씩 포개어 보면서, 유년기에는 하늘 아버지, 청년기에는 나를 감싸 안으신 예수님, 그리고 장년이 되어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순서대로 만나게 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한 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하셨고, 주님이었는지 몰랐던 만남들이 주님과의 만남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나에게 기쁨입니다. 주님을 더 알아갈수록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주님을 더 알아 갈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축복된 삶 임이 내게 현실이 됩니다.

주님, 주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매고, 주님의 뜻에 내 뜻을 매고, 주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맵니다. 주님의 말씀의 진리에 나를 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랑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세상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립니다.

간증문

임은영

마더와이즈 지혜

2020년 7월 여름 특강 소선지서를 친한 은하 언니랑 은혜스럽게 잘 마치고 2주 후…. 하늘이 무너지는 은하 언니의 백혈병 소식…. 일주일이 넘게 실감이 나질 않았다. 거짓말 같았다. 잠시 악몽을 꾼 것 같았다. 하지만 사실이었다. 우연히 향수에서 욥기서를 한다고 들어서 언니가 좋아하는 욥기서를 같이 듣고자 했지만 언니의 건강 상태와 병원 일정으로 진행할 수가 없게 되었다.

우연히 언니 중보 기도로 성혜정 전도사님과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다. 전도사님께서는 아이들 안부를 물으시며 마더와이즈를 들었냐고 물으셨다. 아니라는 나의 대답에 전도사님께서는 자신의 짧은 간증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이번에 꼭 들으라고 사랑의 권유를 하셨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날에 등록을 했고 등록했다는 소식에 전도사님께서 기뻐해 주셨다.

8주 동안 할 교재를 본 순간, 거룩한 부담감이 들었다. 할 것이 너무 많았다. '강의가 아니었네.' 또한 돌아가면서 교재 요약을 해서 카톡에 올려야 하고 밀리지 않게 교재 내용을 공부해야 했다. 그런데 다 끝나고 난 지금, 지혜반 리더님 외 함께 은하 언니를 위해 8주 동안 기도해준 집사님, 자매님들에게 너무 감사했고 향수 친구 초대를 통해 지혜반을 같이 마친 친한 동생이 열심히 말씀을 통해 고민하며 관계를 뒤돌아보고 응용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일 하심을 느꼈다.

지혜반을 통해 느끼고 깨달은 것이 많지만 그중에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다. 첫째는 남편과의 관계를 공부하면서 결혼한 지 11년이 되어서 결혼예식과 축하 음식에 성경적인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냥 문화적이고 서양적인 결혼방식이라고 생각했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보여주신 장면처럼 하객 가운데를 걸어가는 신랑과 내가 거룩한 언약을 보여주고 있음을. 서로 케이크를 먹여주는 모습은 서로 한 몸이 되는 선언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둘째는 자녀와의 관계를 공부하면서 훈육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다. 나는 무엇보다도 아이들 훈육을 똑바로 하려고 노력했고 부모에 순종하는 아이들로 키우려고 엄하게 할 때도 많았다. P 199 따르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운 자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즉 자녀를 훈육하는 진짜 이유는 훈육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기 위함이라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딸로서, 한 남편의 아내로서, 두 자녀의 엄마로서 나의 역할은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담는 깨끗한 그릇으로 항상 준비되기를 소망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남편에게 자녀에게 이웃에게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순종의 그릇으로 준비되기를 소망한다.

조순희

마더와이즈 지혜

나의 삶의 우선순위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며 시작한 마더와이즈 지혜 클래스는 지금까지 나의 삶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앞으로 내일의 방향을 인도해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좋은 아내이자 엄마로 세상의 많은 지식과 계획으로 열심히 산다고 했지만 결국 뒤돌아보니 남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아내요 엄마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여 제자리걸음 중은 아닌지 고민하며 때로는 의심하는 나를 보면서 실망하고 낙심될 때 지금 그대로의 나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며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으로 위로와 격려로 다시 품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는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세우며 남편으로 아들로 질서를 세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점검하고 적용하는 것임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일의 현실은 재택근무로 힘들어하는 남편의 어려움과 불편함에 공감하며 부드러운 말씨와 맛있는 음식으로 섬기며 집을 떠나 공부하고 있는 아들에게는 사랑과 격려로 말씀을 전하는 엄마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주변 상황은 변함없는 아내요 엄마이지만 내 생각 내 의지가 아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감당하게 하시며, 온전히 내 삶을 내어드려 토기장이이신 하나님께서 진흙 같은 나를 어떤 그릇으로 만들어 가실지를 맡겨드리는 순종의 결단으로 클래스를 무사히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서은영

광야로 나아가며

마더와이즈 자유

'광야를 지나며' 의 작곡가가 출연한 '새롭게 하소서' 영상을 소그룹 카톡방에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뭐 주꼬?' 물으셨을 때 진정으로 구했던 것을 다 채워 주셨다는 간증이었습니다. 만약 동일한 질문을 하신다면 나는 무엇을 구해야 할까에 대해 얘기했는데 나이 어린 두 자매님께서 이구동성으로 '하나님 한 분 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는 성숙한 믿음의 고백을 하셨습니다.

3년 전 마더와이즈 자유 마지막 과를 공부할 때 '지금 거하고 있는 편안하고 익숙한 자리를 떠나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옮겨가야 하는 부분이 있는가?' 라는 마지막 질문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먼저 용서를 구했고, 서로에 대한 오해가 풀렸습니다. 상황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와는 달리 기도하며 견뎌야 하는 기다림의 터널 속에서 말씀으로 준비시켜 주시고, 이번 학기 자유를 공부하며 빠져나오게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에스더 4:14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놓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2020년 새해 아침에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나의 부족함을 주님께 아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일한다' 말씀하시듯 소소한 나눔을 통해 저를 겸손하게 낮추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매님들의 목소리를 진리로 돌아가는 추진체로 사용하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거하고 있는 편안하고 익숙한 자리를 떠나 너의 삶을 향한 나의 계획으로 옮겨가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겠니?' 제게 다시 한번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저 주신 말씀 붙잡습니다.

룻기 4:11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홀로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독대하는 행복을 사모하며 은혜의 광야로 나아갑니다. Let your will be done in me.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기도할 때 크신 계획을 속삭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

이승연

마더와이즈 자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모든 것들이 의미 없고 하찮게 보였고 힘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아이도 사랑스럽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일대일 양육을 받으며 주님만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고 기도하며 은혜받던 때가 까마득하게만 느껴지고 끈 떨어진 연처럼 외로웠습니다. 세상 소식에 민감해지고 노출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감을 느꼈습니다. 이런저런 일에 치여서 금성과 향수에 등록하지 못해 참석을 포기하고 있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팬데믹으로 집에 있는 동안 소중한 모임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화를 참지 못하고 아이에게 소리 지르는 나 자신이 밉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일이 반복되곤 했는데 마더 와이즈 자유를 배우는 동안 그런 일이 왜 자꾸 일어나는지,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지에 대한 모든 답이 바로 이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나를 우울감, 절망감, 실패감에 빠지게 만드는 건 사탄의 공격이었고 혼자 해결하려 발버둥 치고 있었기에 이기지 못하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정죄하고 괴로워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연민은 매일 반복되는 가족을 위한 봉사에 대해 보상받지 못하는 가치 없는 일이라고 느끼게 만들었고 보람과 기쁨, 행복감, 감사함 모두 뺏어가 버렸습니다.

나의 가치와 자존감은 주님께서 함께하실 때 생긴다는 것,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 딱 붙어 있어야만 살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느끼는 요즘의 나는 표정이 밝아진 듯하고 아이에게 화내는 횟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일상에 감사하고 하루의 중간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직 갈길이 멀지만 세상적인 것들로 나를 채우기보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의 존재를 확인하고 나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 정말 감사하고 기쁩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내 아버지께 모든 것을 의논하고 아뢰는 것이 바로 그 해답이었다는 걸... 든든한 나의 뒷배,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에너지로 살기를 다짐합니다.

박주희

마더와이즈 자유

나의 생명 되신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네

오랜 기간 교회를 다녔지만 나의 의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한 내가 어쩌다 신앙 좋은 남편을 만나 남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믿음을 가지고 십여 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큰아이를 혼자 미국으로 유학 보내고 그 이후 온 가족이 미국에 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이 넓은 캘리포니아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은 나의 욕심과 계획을 철저히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졌지만 순순히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나의 육신을 붙들고 힘들어했던 때였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향수에 재등록 하라는 지난 학기 말씀 카페 김애경 권사님의 권유에 고민의 고민을 거듭하다 향수가 시작하는 전날 밤 12시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본 자매님들과 온라인을 통해 나눔을 한다는 것 자체에 큰 기대 없이 시작한 자유반은 처음부터 나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내 앞에 놓인 많은 고민거리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이 과거의 나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나의 양동이는 세상적인 욕심, 염려, 근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어찌 예수님의 생명을 제 안으로 초청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까요? 자유 과정을 들으면서 나의 육신을 내려놓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만 내가 살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도록 의지적으로 결단할 때 내가 변화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매일 가정 속에서 남편과 아이들과 지내다 보면 나의 육신이 내 속 사람을 지배할 때가 있지만 나는 주님이 주신 새 생명을 입은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되새기며 주님이 주신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자 합니다.

자유반의 자매님들과 삶과 신앙의 고민거리들을 나누면서 저에게 많은 도전과 위로가 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각자 상황에 따른 고민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 주권을 드리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며 내 시선을 어디에 고정시켜야 할지 다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제 언제나 나 자신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주셨고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리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의 여인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정현

마더와이즈 자유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

2년 전 향수 친구 초청 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는 마음에 예배에 참석하기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예배와 활동이 중단되면서 두려움과 불안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팬데믹 상태가 지속되던 어느 날 향수 예배 이메일을 받게 되면서 온라인 향수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또한 소그룹 모임에 마더와이즈가 있다는 것을 알고 신청을 하고 싶었지만 내가 참석하는 교회가 아닌데 신청해도 될까라는 생각에 망설이며 1주, 2주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친구 초청 예배가 있던 날 예배를 마치고 "소그룹을 원하시는 분은 남아주세요" 라는 말씀에 잠시 망설이다가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소극적인 저에게 제가 아닌 주님이 머물 수 있는 용기를 주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더와이즈 자유반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어색해하는 저에게 자유반 자매님들께서 너무나도 반갑게 환영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이곳을 예비하셨구나.' 생각하며 감사했습니다. 마더와이즈 자유를 시작했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은 언제나 함께하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더 깊이 확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가길 기도하며 제 삶의 변화를 기대해봅니다. 함께한 마더와이즈 자유반 리더님과 자매님들의 진솔한 나눔, 위로, 격려가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진정 필요로 하는 것은 오직 주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지치기 원리를 통하여서 내 삶에 가지 쳐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약한 부분을 이용하여 더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잘라내야 할 것들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특히 자녀양육과, 남편과, 나 자신에 대해 뒤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가끔 자녀들을 대할 때 나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아이들에게는 상처를 주며, 좋은 엄마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에 힘들었던 저는 자유를 통하여 이 마음은 사탄이 넣어주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는 말로 위로해주실 때 그동안 제 안에서 답답하고 풀지 못한 어려운 숙제를 해결한 듯한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다윗의 소극적인 육신의 태도, 엘리 제사장의 소극적인 양육방식을 공부하면서 아이들을 주님의 방식이 아닌 나의 방식으로 양육한 것에 대한 반성을 하며 주님이 주신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작년 땡스기빙에 아빠를 천국으로 보내드리고 오랫동안 아빠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좀 더 잘해드렸어야 하는데, 자주 만나 봬야 했었는데 라는 자책을 하며 깊은 우울증에 빠져있었습니다.
자유를 공부하기 전까지 아빠에 대한 아픔을 극복하지 못한 채 공부를 시작했고, 지나친 슬픔, 두려움, 자책, 걱정, 불안, 이 모든 것이 내 삶에서 잘라내야 한다는 것임을 자유를 통하여서 알려주셨습니다.
저의 모든 아픔을 아시는 주님은 마더와이즈를 통하여 저를 회복시켜주시고 진정한 주님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는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은 언제나 함께하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더 깊이 확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가길 기도하며 제 삶의 변화를 기대해봅니다. 함께한 마더와이즈 자유반 리더님과 자매님들의 진솔한 나눔, 위로, 격려가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최연화

마더와이즈 자유

간증문

그동안의 나는 내 감정에 충실한 내 자아로 살아온 것을 알게 되었다. 주님을 안다고는 했지만 실생활에서는 나의 정체성을 잃은 채 염려와 낙심, 외로움에 사무쳐 정작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고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주체가 되다 보니 주님을 놓치고 소중한 나의 정체성을 잃고 분주한 생각, 분주한 행동으로 세상적인 생각에 빼기고, 이렇게 살아가고 육신의 삶으로 빠져드는 일들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마저도 모른 채 살아왔던 것이다. 생각이 주는 사탄의 전략도 한몫했다는 사실을 최근 들어 깨닫게 해 주셨다. 내 생각이 아닌 주님께 초점을 맞출 때 사탄이 더 이상 오지 않는다는 사실도 깨닫게 된다.

오직 주님 안에 거할 때 내가 있는 것이고, 주님밖에 있을 때 나의 정체성을 잃어가며 내 삶이 낙심과 염려가 가득 차 있음을 알게 해주는 시간들이었다.

진리이신 주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있는 자녀로서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랑받는 자녀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소중한 클래스였고 서로의 삶을 share 하는 깊은 만남의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주님께 감사드린다.

오애란

마더와이즈 자유

간증문

처음에 자유 반을 들어왔을 때 좋아하는 자매님이 리더님으로 계시니 한번 들어보자는 마음으로 가볍게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로 살아가야 하는 올바른 방법들은 세상에 얼마든지 있으니 말씀에 대한 기대감은 없었습니다.

공부하면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엄마로서 아이들을 잘 키우려고 아등바등하며 가정을 컨트롤하려고 했던 것, 기대치에 맞지 않으면 비교를 정죄하는 모습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코로나 전에 저는 지쳐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도 기쁨이 없었고, 교회 오는 것이 제일 큰 부담이었습니다.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봉사도 그동안 해왔던 거니 의무감으로 하였습니다. 교회는 바쁜 일주일에 나를 더욱더 바쁘게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강제적으로 집에 있어야 했던 바쁜 나는, 집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할 일을 찾아 나섰습니다. 클라짓을 다 들어내고 정리를 하는가 하면, 백 야드에서 흙을 뒤집어엎고 텃밭을 가꾸고, 꽃을 심으며 요리를 하고, 아이들의 스케줄을 정리하며 계속 바쁘게 나를 채근하였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요, 너는 내 가지라. 모태신앙인 제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며 들어왔던 말씀이었습니다. 네 알죠. 주님.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머리로 알았던 것들이 가슴으로 내려오기 시작하였습니다. 혼자 깨닫지 못했던 것은 자매님들과 삶을 나누면서 나의 이야기로, 혹은 자매님들의 이야기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나의 속 사람은 이미 주님의 것이고, 죄로 인한 나의 겉사람이 나를 주관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형상의 속 사람이 진짜 나의 모습이 되도록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곁에 한 번도 없으셨던 적이 없구나'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곁에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심을 알았습니다. 내 삶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음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늘 함께해 달라고 기도했었는데, 이젠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저에게 그런 확신을 주셨습니다. 자유 반을 통해 이런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배은아

영적인 자유를 경험하다!

마더와이즈 자유

마더와이즈 자유를 등록하기 전의 나의 영적 상태는 코로나 19 이후로 너무나도 두렵고 연약한 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서 예수님을 매일 찾기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영적 게으름을 피우고 있을 때 믿음의 동역자인 가까운 동생의 권유로 마더와이즈 자유 성경 공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9/1일에 시작한 마더와이즈 자유 공부와 함께 화요 향수 예배에서 용기 말씀을 들려주는 건 나에게 보너스를 주는 기분을 갖게 했습니다. 8주간의 자유 소그룹 공부를 통해 나는 새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떠오르게 되었고, 예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내 아이들과 남편,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흘려보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더와이즈 자유의 저자 드니스 글렌은 미국 사람인데 마치 결혼 후 내 삶을 함께 살아온 것처럼 비슷한 경험을 가진 것에 새삼 놀랍고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해결 받는 자잘한 간증을 통해 속이 시원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혜로운 어머니 팁 실천을 통해 배운 것들을 실천해보려고 꽤 노력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소 그룹 내 자매님들의 은혜받은 경험과 현재 진행형인 기도 제목들을 통해 그동안 하나님 믿고 난 후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았었는지, 그런데도 그 받았던 은혜들을 잊고 살았던 것이 새삼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 온라인 수업과 남편 재택근무로 집안에서 조용한 내 공간이 없어서 향수 예배와 자유 소그룹 반에 개근하기 위해서 때론 차 안에서 또는 뒷마당에서 참여했던 기억은 두고두고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자유 공부가 끝나갈 때쯤 떨리는 마음으로 사춘기 아이들에게 엄마의 최근 상태를 물었더니 엄마가 더 조용해지고 자기 말을 잘 이해해주는 것 같고 평화로워 보인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와우!' 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자유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것 중 또 하나는 내 간구와 중보기도가 턱없이 부족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앞으로 자유 성경 공부는 끝났지만, 나의 간구와 중보기도는 현재 진행형이 될 것이고,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곁에 가지 된 내가 전적으로 붙어 있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 열심히 신앙생활을 자유함으로 기쁘게 해나갈 것입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신 예수님께 우선 돌리고, 8주간 소그룹을 위해 매주 안내자 역할을 해주신 리더 집사님과 1:1기도 동역자와 솔직하면서도 하나님 사랑이 갈급해 나눔을 통해 웃고 울고 함께 기도했던 사랑스러운 자매님들께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정예진

마더와이즈 자유

뜻밖의 선물

생각보다 길어지는 팬데믹기간 동안 어린 두 아들을 양육하는 저는 당분간 교회 모임은 참여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남편이 재택근무를 하고 두 아이가 모두 함께 있는 집에서는 저를 위한 모든 것은 포기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문득 소그룹 모임마저 없다면 저는 너무 외로워질 이 생활이 두려웠습니다. 도중에 포기하더라도 시작은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마더와이즈 자유반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유반 공부를 통해 그동안 제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경험한 이해되지 않았던 일들이 왜 제게 일어났고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 저에게 무엇을 깨닫기 원하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깨어짐의 증거들을 통해 교만했던 저의 모습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매님들과 삶을 나누면서 미숙한 저의 모습과 하나님을 향한 연약한 믿음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순종하며 주변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리더님들의 모습은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향한 뜨거운 열정 안에는 제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고난들과 이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이 함께 했음을 알 수 있었고 이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인생길이 두려운 제게 용기와 담대함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또한, 짝기도로 맺어진 자매님과 매주 이뤄지는 통화는 이 고독한 팬데믹 기간에 단비와 같은 힐링의 시간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때로는 육아로 지쳐 기도조차 하기 싫을 때 진심으로 저를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신 우리 자매님들은 제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불평만 늘어놓았던 제 자신을 회개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소모임이 제게 허락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하나님과 멀어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더와이즈 자유반 공부를 통해 끊임없이 저의 삶을 뒤흔드는 험난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이신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며 이것 만이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다시금 마음속에 새길 수 있었습니다. 팬데믹 뿐 아니라 산불로 너무 힘들었던 이 시기를 함께해 주신 모든 우리 마더와이즈 자유반 자매님들께 너무 감사합니다. 또한, 향수 예배를 섬겨 주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도 너무 감사하고 항상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길 소원합니다.

최지선

자유함을 얻기 위해 내가 지금 할 일

마더와이즈 자유

지난 학기 마더와이즈 자유 공부를 통해 배운 가장 큰 진리는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라는 것이었다. 가지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고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에게 포도나무의 생명이 흘러가야 하는 것이었다.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해도 된다는 사실이 나를 억누르고 있던 무거운 책임감에서 자유를 주는 것 같았고 정말 신이 날 정도였다. 하지만 향수가 끝난 후 배운 내용을 내 삶에 적용하지 못했고 그래서 오는 조바심이나 좌절감-지금 생각해보면 사탄의 목소리가 분명했다! - 으로 당연히 가을 학기에 공부하려 생각했던 '회복'을 선택하는 것은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래서 두 번째 자유 공부를 하게 되었다. 자유 공부를 다시 하면서 새로 알게 된 부분도 많았지만, 신기하게도 처음 공부하는 듯 새롭다고 느낀 것도 많았다. 향수 소그룹에서의 나눔을 통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교제하며 기도를 했는지 이해가 되었다. 혼자 성경을 읽고 교재로만 공부했으면 몰랐을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고 서로 위로하며 기뻐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지난 학기 자유 공부를 했음에도 제자리걸음을 했던 나는 같은 실패에 빠지지 않기 위해 이번 학기에 내가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았다. 예수님의 생명을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 내가 꼭 시작해야 할 일이다.

첫째,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자녀이고 친구이며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나의 영은 완전히 의롭고 선하다고 했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육신의 낡은 사고방식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쉽게 흔들리는 연약함에 힘들어할지라도 매일 한 겹씩 육신의 모습을 벗겨가다 보면 점점 더 자유로워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알고 있으니 감사하다. 이런 과정에서 주님이 함께 계시니 흔들리거나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 용기를 준다.

둘째,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그동안 나는 주로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보채는 아이와 같은 기도를 많이 했다. 하지만 주님의 의지, 뜻, 때에 따라야 하고 잠잠히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혼자 있는 낮에는 1시간 간격 알람이 울릴 때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주님을 만난다. 아직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언젠가 들을 수 있을 거라 믿고 그 시간의 평화로움이 좋다.

셋째, 내 삶 속에서 통제하려고 했던 남편과 아이들을 놓아주는 일이다.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여야 함을 다시 한번 배웠다. 자꾸 남편을 이기려 하고 내 맘대로 하려 했던 지혜롭지 않은 아내였다. 나는 아이들에게도 조건적인 사랑을 주고 있었던 엄마였다. 아이들이 내 말을 잘 듣고 하는 것의 성과가 좋을 때만 칭찬했다. 내 맘대로 안되면 쉽게 성내고 기대치는 늘 높았다. 아이들이 얼마나 고단했을까? 나에게 와 준 것만으로도 고맙고 소중한 아이들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알게 표현한 적이 있었나 반성해봤다. 요즘은 아이들을 볼 때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생각한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 단호하고 공정한 훈육,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키우는 지혜로운 엄마가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린다.

육신을 따라 살아온 나의 이기심과 죄성, 삶을 통제하려고 했던 욕심을 버리고 포도나무의 생명이 흐를 수 있도록 주님께 나를 맡긴다. 나의 생명 그 자체이신 하나님, 풍성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에도 가지치기해 주시는 주님께 순종하며 매 순간 십자가의 영향을 받으며 살기를 원한다. 내 뜻대로 살던 방식들을 모두 버리고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깨어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님 주신 평안과 자유를 누리며 살기를 소망한다.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어 다시 자유 공부로 이끌어주시고, 겸손함으로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린다.

김국희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카페 사랑반

욥기로 시작한 향수 가을학기는 저에게 정말 만만치 않은 한 학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향수에서 인턴으로 섬기길 원하셨고, 동시에 전도 폭발 훈련을 하게 이끄셨습니다. 처음엔 "아직 아니에요"라며 뒷걸음치던 내게 하나님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 용기를 주셨고, "하라고 하셨으니 하겠습니다"라는 순종의 마음과 부족한 저에게 능력과 용기를 주시길 원하는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고난을 상징하는 욥기를 공부하면서 제가 얼마나 욥기를 1차원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욥기를 이해하면 그것은 고난 후 축복이라는 단순한 이야기이지만, 가슴으로 이해하면 그 속에 숨겨진 심오한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장애 아이를 키우면서 오는 고난 속에서 이것만 참으면 나중에 하나님이 다 보상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단순히 버텼던 저의 삶이 이번 욥기를 배우면서 매일 오는 고난 속에서 눈 뜨고 있는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힘들어요, 아버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아버지", "정말 너무 화가 나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그냥 조용히 하는 인내가 아닌 끈질기게 버텨내며 하나님께 매달릴 때 멀리 위에 계신 하나님이 아닌 바로 제 옆에서 저를 들으시고 저와 함께 울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신앙을 가진 성도란 이름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란 이름에 더 가까워지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향수의 모든 자매님도 각기 다른 크기와 모양의 고난 속에서 울부짖을 때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시길 기도합니다.

국은희

기도하면 내가 그를 기뻐하리니

말씀카페 기쁨반

우리의 이 땅의 삶은 고난이라고 말한다. 욥의 고통은 내가 겪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이번 2020년 가을 향수를 통해 배운 욥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진리가 가득한 복음서이며 이 땅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필독서다. 고난이라는 무거운 주제였건만 우리의 심령을 감싸시는 성령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어 참 감사하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만나 뵙기를 소망하는 욥의 간구는 평범한 오늘의 삶을 더욱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게 한다. 평소에 가졌던 욥의 하나님께 대한 경건한 생활은 고난 속에서 빛을 발하듯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가는 밑거름이 되었음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자신의 생일을 저주할지언정 하나님께서 자신을 생명을 불어넣고 계신다는 고백에 '생명을 존속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하나님은 욥의 기도를 외면하시고 침묵하시는 것 같았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성령'을 그 마음 속에 심어 놓으셨음을 깨닫게 하신다. 믿음 있는 자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 고난 속에 혼자 견디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욥의 간구대로 하나님은 욥을 만나 주셨고,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로 욥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심이 참으로 놀라웠다.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를 인정할 때 나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임함을 깨닫게 하셨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의 의미를 깨닫게 하신다.

욥은 옳았고, 욥의 친구들을 옳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욥의 옳음이 의로움이 아닌 '기도'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찾게 되었다. 기도를 통하여 주님은 욥을 만나 주셨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도록 인도해 주셨다. 욥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떠도는 것이 아닌, 우리의 기도는 주님께서 들으시며 선하게 응답하실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주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신다. 욥을 비방하고 조롱했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라 하신다. 용서와 은혜받은 자로 사는 법을 알려 주신다.

사탄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자' 욥을 주목하게 하고 시험을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에게 선하신 뜻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어떠한 상황에도 나의 생각과 판단을 거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 하고, 또 나를 비방하고 조롱했던 자들의 영혼을 위해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자'라는 것을 욥기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었다.

욥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모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과 친구들이 내 모습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신학적 지식이나 외적인 경건의 삶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신다.

내 생각과 판단에 사로잡힌 '무지한 말이 생각을 어둡게 한다(욥38:2)', 그러나 하나님께 나의 부족한 생각들도 내어놓고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바라는 '기도(중보) 하면 내가 그를 기뻐하리니..(욥42:8)' 우리에게 구속자 예수님이 있어야 하듯, 믿음 있는 중보가 이 땅에 필요함을 깨닫게 하신다.

오늘도 나는 무지한 말에 머물렀고, 어두운 생각으로 번져 나갔다. 그러다 퍼뜩 욥기 말씀이 떠올랐다. 이것이 나의 모습임을 주님께 솔직히 아뢰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길 간구하였다. 이 땅을 다하는 그 날까지 주님께 나아가는 기도는 멈추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한다.

욥기의 말씀을 전에는 읽기만 하였으나 향수 말씀카페 욥기를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복음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음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송혜란

“욥기에서 배운 것들”

말씀카페 기쁨반

이번 학기 말씀 카페 욥기 공부를 통해 저는 등장인물인 욥, 친구들, 하나님을 새로 발견하고 배울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우선 친구들의 부당한 비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낸 욥의 끈기와 인내가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리라는 기대와 열망 끝에 하나님과 대면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른 욥의 인내를 배우고 싶습니다. 반대로 그의 친구들은 좋은 반면교사가 되었지요. 섣부른 위로나 충고의 폐해를 보여주며 자신의 잘못된 신념을 잣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얼마나 편협하고 악한 일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폭풍 속에서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권능의 창조주이시자 피조물에게 다가오셔서 대화하시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아버지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와 함께 등장인물은 아니지만, 욥과 친구들, 그리고 욥과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예표된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 신앙은 이번 욥기 공부에서 알게 된 보석입니다. 욥기에서 발견한 복음에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의 모든 길을 아시며 아들의 피로 구원하시고 영원히 함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김윤영

간증문

말씀카페 기쁨반

그동안 나는 욥기에 솔직히 관심도 없었고, 굳이 만나기 싫었고, 숙제 같아서 싫고, 내용이 너무 어렵고, 그저 피해 다니고 싶은 성경이어서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지만 계속 미루고 싶지 않았다.

과연 예상대로 욥기를 공부해가면 갈수록 성경 공부로 대충 나를 감추어 왔고 교양 넘치는 성도로서 포장하며 남들에게는 가리고 싶었던 나의 연약한 모습들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욥과 친구들을 바라보며 비아냥거리고 분노하고 억울해하는 나의 속마음이 정신없이 투영되었다. 욥이 겪고 있던 고난처럼 내가 익숙하던 습관과 삶이 내가 컨트롤 할 수 없다고 느꼈을 때의 절망감과 자괴감은 너무나도 크게 느껴졌다. 욥이 건강하고 부유하고 편안하게 지낼 때 만났던 그 익숙했던 하나님과는 다르게, 고난 중에서 만나게 된 하나님이 낯설게 느껴지는 상실감을 통해서 결국은 욥은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엎드려질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그렇게 엎드려진 욥을 통해서 그동안의 나 자신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다.

그리고 욥기를 통해 절실히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말이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고, 말씀으로 우리도 만드셨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그만큼 말에는 우주를 움직이는 엄청난 영적인 힘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힘을 주셨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한다. 설령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도 감정적으로 수용되지 못 하는 말은 그것이 상처로 되기 때문이다.

우리 주변에 욥과 같이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았다. 무고하게 고통받는 사람들, 실직자들, 비정규직, 독거노인들, 버려진 고아들, 전쟁터에서 사랑하는사람을 잃은 사람들, 사고로 사지가 잘려 나가서 고통받고 사는 사람들…

욥기는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는다. 욥기에도 그런 고통이 욥에게 왜 생겼는지 설명이 되어 있지 않은데도 함부로 하나님의 뜻이라며 재단하듯이 말하는 친구들이 등장한다. 그처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값싼 위로로 카톡 날리듯이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그 고통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그늘이 되어주고 옆에 있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었다.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해답은 중요하지 않다. 그 해답은 완벽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음만 갖고 있으면 된다. 우리는 그저 심판이 아닌 사랑과 섬김으로 - 주님이 그러셨듯이 - 위로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철저하게 요구하시는 삶이 아닐까?

이 욥기를 통해 나의 삶 가운데 말이 경박하지 않았는지, 내가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피상적이고 이기적인지 뒤돌아보게 되었다.

특히 욥기 6장을 배우면서 “우리들은 친구들과 최악의 우정을 경험할지라도 영혼의 친구들 soul friends에 대한 우리의 갈망을 끄지 않는데, 그 영적 친구들은 삶의 가장 힘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며 우리에게 설교하거나 우리의 영성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자들이다” 라는 내용의 설교내용이 내 마음을 강하게 자리 잡았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신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번 욥기 스터디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나만을 위한 등불 하나를 켜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 누군가 어둠에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 돌아보게 하는 등불로서 나에게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김미혜

말씀카페 기쁨반

간증문

2020 가을 향수 <욥기- 하나님과 씨름하기> 는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한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팬데믹이라는 고난 속에 놓여 있기에 우리는 더욱 고난에 대해 묻고 싶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싶어 합니다. COVID-19으로 전 세계의 교회, 학교, 일터 등의 문을 닫아야 했고 지역 간, 국가 간의 이동 또한 자유롭지 못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이 현실이 정말 끔찍하고 참담합니다.

고난….
인과관계가 당연한 고난이 있는가 하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불합리한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납득 불가한 고난들에 대해 수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욥처럼….

온전한 욥은 10명의 자녀와 그의 모든 소유를 잃습니다. 그리고 건강마저도 잃습니다. 욥을 위로하러 온 세 친구는 그를 오히려 정죄합니다. 욥은 자신에게 닥친 이 끔찍한 고난을 두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욥은 심오하고 정직한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침묵하시던 하나님은 대답 대신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 대해 묻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주인 되신 권리.
인과율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욥은 기쁨의 회개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선을 행하거나 복을 기원하면 복을, 악을 행하면 징벌을 받는 그런 상업적이고 인과율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그 분 안에서 자유와 은혜를 누리는 그런 관계입니다. 풀리지 않는 고난의 신비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영역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팬데믹이라는 고난도 어쩌면 하나님의 신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고난 속에서 특히 더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욥이 고난을 극복하면서 보여줬던 모습처럼 우리도 정직한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적 믿음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원

말씀카페 평화반

고난 뒤에 감추어진 축복

저는 침묵은 냉담하고 못마땅한 것에 대한 참음의 표현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13년 전 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침묵하심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었죠. 그 상황에 대한 부분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지만, 제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기에 하나님이 침묵으로 거절하신다고 단정했습니다.

이번 욥기를 배우면서 하나님의 침묵은 사랑과 용납하심의 대답이었고, 그동안 혼란 속에 던졌던 많은 질문의 해답을 바로 주시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와 은혜임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올해10월 초에 갑자기 찾아온 심장마비 전조증상으로 응급실에 가게 되었고, 심장의 대동맥에 스텐트를 삽입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골든 타임에 수술을 받게 하시고, 자매님들을 통해 적절한 필요에 대한 도움을 공급하셨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가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선하신 인도하심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남편과 저에게는 은혜로운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온 가족이 음식과 운동을 통해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훈련하기 시작했고, 함께 미디어를 끊고 말씀을 규칙적으로 먹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 부부는 두 손을 잡고 기도하며, 무너진 가정 예배의 제단을 재건하기 시작했어요.

육신의 병으로 인한 고난 뒤에 가정을 다시 세우시고 부부를 한 성령 안에서 화목케 하시며 연합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시기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를 더욱 신뢰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사라

“밤에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

말씀카페 평화반

욥은 고난과 동시에 축복을 받은 자이었다. 욥이 고난을 통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욥42:5)라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의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욥기 말씀 중 “밤에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욥 35:10)”은 나에게 가슴에 와 닿는 부분이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고난의 밤을 지나게 될 때가 있을 것이다. 나는 이 고난의 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임을 고백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고난의 밤을 지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칠흙 같은 어두움과 침묵, 때론 혼자 있는 것 같은 외로움에 처절한 눈물로 긴 밤을 새워야만 할 때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의 밤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나에게도 고난의 밤은 있었다. 큰아들의 소아암 치료의 시간은 끝날 것 같지 않은 칠흙 같은 밤이었고, 죽음의 두려움, 그리고 한없이 흘러내렸던 눈물들… 이 시간은 결코 녹록지 않은 내 인생의 캄캄한 밤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셨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밤에 노래하게 하셨다. 내 힘으로는 노래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눈물의 감사로 인생의 밤에 노래할 힘을 부어 주었다. 이번 욥기 말씀을 통해 나는 고난의 밤 이후 밝아오는 아침의 기쁨을 맞이하는 은혜를 주셨음에 다시 한번 감사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되었다.

혹시 고난의 밤을 맞이하신 분이 있나요? 밤에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반드시 아침의 기쁨을 주실 것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한현주

감동의 목소리 선물

말씀카페 인내반

저는 다른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향수 말씀 카페에 함께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온라인으로 기회가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욥기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차가 폐차되는 큰 교통사고를 겪었고 그 후유증으로 눈에 통증이 있고 글씨를 보면 어지럽고 두통이 심해져서 글씨를 읽는 것, 영상을 보는 것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과연 교재를 읽고 "욥기" 나눔을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아픔을 아시고 이미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천사를 예비하셨습니다. 첫 나눔 시간에 제 상황을 솔직히 내어놓았고 중보기도 부탁을 드렸는데 다음 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이름만 겨우 알게 된 인내반 자매님이 카톡으로 욥기 교재 질문을 녹음한 음성 파일을 보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씀카페를 같이 듣고 있는 자매입니다.
교재가 빽빽하게 씌여있어서 읽기 힘들고 눈이 피로하시죠?
아름다운 목소리는 아니지만, 교재의 내용과 질문을 녹음해서 보내드립니다.
혹시 다른 도움이 필요하시면 꼭 말씀해 주세요. 녹음하면서 저도 유익했어요.
자칫 놓치기 쉬운 질문의 내용을 잘 알 수 있었으니까요.

오히려 감사로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글을 보내주는 자매님 덕분에 감동의 목소리와 더불어 욥기 공부와 숙제를 열심히 했습니다.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제 상황과 처지를 다 아시고 자매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녹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후에 매주 과제를 빠짐없이 녹음해서 보내주신 자매님을 통해 욥에게는 없는 영적 공감의 친구가 우리 반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신실하심을 경험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이유는 만 가지도 만들 수 있지만 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하려고 마음먹으면, 하나님이 돕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시며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간증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박정하

“내 인생의 영적 로드맵 그리기”

말씀카페 인내반

이번 학기는 ‘욥기’라는 말에 어려울 것 같고 큰 고통의 무게가 부담스러워 이번에는 다른 클래스를 들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제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게 욥기를 공부하라고 절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역시나 제게 매주마다 생각해보지 못한 것을 생각해보며, 큰 배움과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중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제게는 6살짜리 딸이 있는데, 현재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고, 마지막에 요가 클래스가 있습니다. 스크린 쉐어를 통해 요가 수업이 시작되자 긴 원피스를 입고 있었던 딸이 옷이 불편하여 옷을 갈아입었는데, 그때 마침 선생님이 화면을 보다가 속옷 차림의 딸을 보고 놀라서 황급히 화면을 꺼주고 제게 ‘수업 시간에 적절한 옷차림’ 에 대해서 아이에게 얘기해주면 좋겠다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너무나 놀랐던 저는 자초지종을 물어보기보다는 정말 그랬냐며, 왜 그랬냐며 딸을 다그쳤고, 결국 저의 높아진 언성에 딸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뒤늦게 이유를 듣고 상황을 파악한 저는 딸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제게 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자녀 양육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항상 아이의 편이 되어주고, 아이의 말에 먼저 귀를 기울여주라고 외치곤 했는데 정작 그 상황이 되자 저는 물어보기는 커녕 언성을 높여가며 다그쳤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제 모습을 돌아보며, 제가 그렇게 조언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저는 그 럴 수 있는 대단한 엄마여서가 아니고 그저 제가 그 상황에 처해있지 않기 때문일 뿐 저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제 모습에서 욥의 세 친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며 가르치려고 드는 교만함,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리인 양 옳다고 외쳤던 나의 교만함, 나의 잣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였던 나의 교만함을 다 들추어내시며, 진정한 영적 친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셨습니다. 황 목사님의 설교에서 speech is silver, silence is gold 라는 말씀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한 자매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 자매의 힘겨운 상황과 그에 따른 낙심과 좌절의 상태를 보게 하셨을 때, 저는 지금까지처럼 그 고통의 크기를 가늠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제가 그 상황에 닥치지 않았기에 함부로 조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만났던 하나님을 나누었을 뿐이고, 그 아픔이 느껴져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며 그 자매는 저를 안아주면서 “얘기를 잘 들어줘서 고맙다” 라고 했습니다. 그저 들어주는 것이 때로는 가장 큰 위로가 된다는 저의 배움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은혜의 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욥기의 마지막 과를 공부하며 나는 내 인생의 영적 지도를 그릴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나의 영적 여정에서 궁극적인 최종 목적지는 42장의 욥처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이었다. 왜냐하면 건강, 부, 명예, 지위 등과 같은 세상적 가치에서 자유로워 어떤 상황에 처해있더라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다면, 나는 매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서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여정에서 한 걸음씩 인도하여 주는 것이 나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즉 기도나 성경 공부, 큐티나 예배, 나눔과 교제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걸음이 아닌 점프를 하여 그 최종 목적지에 좀 더 빨리 도달할 수 있게 지름길을 열어주십니다. 또한 그 여정 속에서 내가 욥기 38-41장을 통해 보여주신 창조주, 주권자 그리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마음에 새길 때 나는 within the track을 유지할 수 있지만 내가 그것을 잊고 인정하지 못할 때는 off the track이 되어 옆길로 새고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욥기 42장 6절과 같이 먼지와 잿더미 속에서 했던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은 다시 잃었던 방향을 되찾고 track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십니다. 지금의 저를 하나님이 이끌어주셨다고 고백하면서도 은연중에 그중에 몇 프로는 나의 노력과 의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생각,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순간에 정말 전능자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맡긴다고 말은 하지만, 온전히 믿지 못하고 다른 이들의 경험이나 전문가의 지식에도 발을 걸쳐놓고 의지하는 모습들을 내려놓고 회개할 때에 다시 저는 목적지를 향해서 한 걸음씩 다시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제 영적 인생 맵을 그리고 나니 모든 것이 너무 분명하고 명확해졌습니다. track에서 벗어날 때마다 바로바로 제자리를 찾으며 최종목적지를 향해서 오늘도 전진하고자 합니다. ‘욥기’라는 성경에 지레 겁먹고 도망가려던 저를 불러 앉히시고, 매주 깨달음을 주시고 제 인생의 영적 맵까지 그리게 해주신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노혜원

“욥, 끈기로 순금임을 증명하다”

말씀카페 인내반

아이들을 챙겨야 하는 분주한 아침에 잘 집중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었지만, 향수 소그룹 모임은 언제나 많은 배움과 도전을 주기에 염려를 내려놓고 말씀 카페에 조인했다. 조금은 지루하게 느껴지는 욥기를 배운다고 하여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첫날부터 자매님들의 고난의 순간과 기도 제목들을 나누게 되면서 앞으로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다.

먼저 공부를 하면서 욥의 세 친구를 비판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친구였는지 뒤돌아보고 반성하게 되었고, 같이 울어주고 묵묵히 옆에서 기도해 주며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영적 친구가 되길 소망하게 되었다. 또한 절대 욥에 비할 수 없겠지만, 나와 사랑하는 가족에게 일어난 여러 육체적, 관계적,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간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고, 그 고난을 통해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되었음을 감사로 고백하게 되었다.

가장 새로웠던 배움은 성경에서 말하는 ‘욥의 인내’는 가만히 혀를 꽉 깨물고 조용히 기다리며 고난의 시간을 견디는 ‘인내’가 아닌, 힘든 상황을 열정적으로 버티는 ‘끈기’에 더 가깝다는 것이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위해 적극적으로 씨름하며 끈기 있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너무나 잘 아는 욥기 23장 10절에 나오는 ‘단련’이란, 찌꺼기를 정화하거나 철이 금이 되는 연금술 같은 과정이 아니라, 순금이 진짜 순금인가를 증명하는 테스트 과정을 뜻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어느 날,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그룹의 한 자매님을 위해 기도하면서 ‘정말 열심히 순전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자매님에게 왜 이런 시련이 계속 일어날까?’라는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종일 가슴이 답답했었다. 그런데 인내반에서 배웠던 이 구절이 떠오르면서 그 자매님이 진정한 순금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순금 증명의 시간’을 허락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었다. 그 뒤로 자매님을 만날 때마다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순금처럼 아름답게 보였고, 신실한 주님을 의지하며 순금으로 증명될 그 순간을 위해 평안함으로 중보할 수 있게 되었다.

욥기 공부를 마치니 자연스레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들도 많은데, 험난한 고난이 또 찾아온다면?

물론 힘들고 절대 사양하고 싶지만, 정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의 30cm 자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을 절대 측량할 수도, 가늠할 수도 없음을 고백하며, 내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티끌과 같은 존재임을 인정하고, 욥처럼 끈기 있게 잘 견뎌 나가길 소망한다. 그리고 순금은 아니더라도 고난이란 단련의 시간을 통해 내가 14K 도금이라도 좋으니 제발 금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크리스천으로 증명되기를 욕심내어 본다.

채경선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말씀카페 인내반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욥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도 온전하고 정직한 욥이라고 부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그에게 시험하도록 허락하시고, 또한 욥의 세 친구가 그를 비난하고 욥이 대답하는 과정과 마지막에 하나님이 욥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며 마무리하는 내용이 참 어려우면서도 의문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욥기에 관련된 설교 말씀 들을 찾아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향수를 듣기 힘들 것 같은 사정이 있어 고민하던 중 말씀 카페에서 욥기를 공부한다는 말에 하나님이 들으라고 하시는구나 느꼈습니다.

기대감에 공부하면서도 머릿속에 드는 질문도 많았고 욥기는 참 어려운 말씀이구나를 매 주 생각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왜 주님이 내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셔서 욥기를 듣게 하시나 하는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혹시 내 앞에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기에 준비 하라는 건 아닐까 하는 무서운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분명 사탄이 주는 생각임을 알고 더 생각하지 않으려 노력하며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숙제를 해 갈 때면 질문 투성이었던 제 노트가 자매님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나면 빨간 글씨의 답으로 꽉 차있었습니다. 서로의 간증을 나누며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또 고난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위로해 주워야 하는지도 배웠습니다.

욥기 마지막 두 과제를 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조물주의 주권 아래 있는 나는 정말 그냥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걸 인정하며 제 믿음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가 진정 내 삶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지 또 하나님을 하나님이시기에 사랑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의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 또 기도 속에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기 위해 계셨던 분이었음을 회개합니다. 욥의 회개함으로 그를 다시 번영하게 하여주신 것이 아니고 진정 그의 세 친구를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나서 하나님이 욥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셨다는 것도 놀랍게 느껴졌습니다. 주님은 중보기도를 참 귀하게 여기신다는 걸 다시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욥의 고백처럼 이제는 제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지만, 주를 눈으로 보길 매일 기도하고 노력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함을 고백합니다.

손명화

말씀카페 온유반

“욥의 고통으로 이해되는 연단의 법칙”

성경에서 흥미 있게 읽지 못했던 책 중의 하나가 욥기였다. 깊은 의미를 깨달으려는 의도를 갖지 않고 읽었던 기억만큼,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빛으로 조명되는 곳에 더 오래 머물며 생각했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기쁨으로 지내왔다. 이번 학기에는 온유반 리더 자원자로서, 그런 욥의 체험을 매주 두세 번씩이나 예습과 복습을 했어야만 했다. 어려운 번역의 고뇌가 지나간 후, 욥기 책을 받아보면서 한 눈으로 확인되었던 것은, 일반적인 고통의 체험 경로와 너무나 유사하게 나열된 욥기의 ‘하나님과의 씨름하기’ 책의 목차였다.

근래에 내가 겪었던 사별의 아픔도 그 회복의 과정이 정말 놀랍도록 이 책과 유사하게 진행되었다고 말할 수 있었다. 하나님은 그의 침묵 속에서 나 자신의 솔직한 질문들을 준비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 질문들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허공에 외치게 되고, 메아리쳐서 되돌아오는 질문들은 다시 나를 향해 울부짖게 했다.

폭풍같이 밀려왔던 모든 크고 작은 상황적 이야기들을 들으시며, 더 크게 외치시는 하나님의 답은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였다. 가슴을 흔드시는 깨달음의 소리로, 나는 모든 상황적 추론을 만들어 내는 자세에서, 회개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

고난은 현실 속에 갇혀서는 볼 수 없는 믿음과 은혜의 세계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관문이다. 각자가 받는 고난의 깊이와 길이는 각각 다르지만, 그 증폭만큼의 영적인 축복을 받게 해 준다. 어떠한 고난이든 그 끝은 존재하고,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그의 삶을 영적으로 풍성하게 해 준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설립이 정확히 이루어질 때, 모든 고난과 축복을 받는 그대로, 주신 분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게 받을 수 있게 되고, 잘 지키어내며, 살아낼 수 있게 된다.

사별의 체험과 욥기 공부를 통하여 깨닫게 된 것은, 영적인 시야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물질적인 축복의 근원이 아닌, 사랑의 관계로 유지해 나가야 하며,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대화하는 삶을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한나 권사

말씀카페 온유반

코비드-19을 통한 감사

2020년 코비드-19을 통해 특별히 받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IT의 위대함을 느끼게 하는 비대면의 가을 향수에서 예배와 기도와 소그룹을 통한 욥기 말씀 공부와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두움과 고통으로 가득 찬 코비드-19의 강을 건너가며 그 가운데서도 특별한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게 하시고 나눌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팬데믹으로 고통하는 과정에서 나만 잘살고 편안해지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 줄 깨닫게 하셨고, 아파하는 이웃을 돌아보며 함께 하는 동참이 주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교회와 지역사회, 전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지경도 넓혀주셨습니다.
편안함이 아니라 평화를 추구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본연의 모습이며 남의 아픔에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를 배우게 하셨고 고난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아는 지혜와 고난이 주는 유익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향수 사랑으로 가득 채우게 하시고 감사의 시간을 저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박순희

이슬비 성경암송

도전과 성장

향수 암송반 리더로 처음 섬기게 되었다. 암송에 대한 열정이 여전히 있었기에 리더 수락을 흔쾌히 하였으나 그동안 암송반 신청율, 참여율이 매우 저조하였기 때문에 클래스가 열리지 않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예상 밖으로 많은 자매님이 신청하여 시작할 수 있었다.
시작할 때의 우려와는 반대로 암송반은 매주 은혜 가운데 있었다. 참석한 모든 사람의 입에서 주님의 은혜가 흘러나왔고 우린 서로에게 은혜로 화답하며 시너지 효과로 충만함을 경험했다. 어느 주는 주신 은혜가 동일해서 감사했고 어느 주는 다양해서 감사했다. 가을 향수 동안 받는 은혜가 익숙해졌는지 앞으로 있을 학기에서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비정상일 것 같다.
이번 학기를 시작하면서 우려했던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교회에서 섬기는 일들과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일들이 있어서, 이런 많은 일들 가운데서 영적으로 침체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뒤로 물러나는 자가 되지 않기로 결심하였기에, 이 우려는 나에게 상당한 도전이었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역시 영적 갈급함을 느꼈고 이것을 가지고 심각하게 기도했다. 섬기고 있는 사역들 어떠한 것도 포기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주어진 상황을 받아 들이며 갈급함을 해결해야 했다. 그 가운데 훈련한 것이 ‘낮 기도’ 였고 향수가 끝날 즈음에는 잘 정착되어 하루 세 번 기도하는 성도가 됐다.
주 안에서 성장은 참으로 끝이 없기에 감사하다. 왜냐하면 도달할 수 없는 곳을 향하여 가면서 날마다 새사람을 입으며, 삶이 늘 새로워서 기대하게 되니 즐겁기 때문이다. 기대하는 나를 언제나 실망하게 하지 않으시는 주님이 참 좋다.

정신애

붙어 있으면 됩니다

이슬비 성경암송

가을 학기 향수가 시작될 때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주일학교, 어와나, 향수가 동시에 온라인 오픈을 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애가 셋인 엄마가 주일학교 교사, 어와나 교사, 향수, 뉴비전스쿨 다 하면 안되는 것 알지?" 라고 하며 향수 등록을 반대하였고, 목장 식구들도 한 학기 쉬어도 되지 않겠냐고 하였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며 가을 향수를 쉬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향수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서, 남편의 허락을 받고 개강 예배에 참석 하였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자매님들이 소그룹으로 들어가고 덩그러니 전체 방에 남겨졌을 때, 갑자기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소그룹 안 해도 된다고 하신 것 아니었나요?' 라고 묻는데 '그건 네 생각이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 들어갈게요. 인도해 주세요.' 라고 대답한 후에 카톡 방 몇 개에 '나 향수 소그룹 조인해야 할 것 같은데 링크 하나만 보내줘요' 라고 올렸습니다. 향수 소그룹 시간이 다 끝나가고 있을 때 '언니! 나랑 암송하자' 라는 카톡이 왔습니다. 이제 막 넷째를 출산한 수민 자매였습니다. 그리고 향수 등록을 반대하던 남편까지도 치매 예방에 말씀 암송이 좋다는 황당한 이유로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습니다. 결국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던 네 아이의 엄마인 박지영 자매까지 설득해서 다둥이 엄마 세 명이 이슬비 암송반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다둥이 엄마들을 위한 배려로 '스크린 끄고 있어도 됩니다. 암송한 것 녹음 파일로 보내셔도 됩니다. 나눔 못해도 괜찮습니다.' 라는 은혜의 법이 암송반 클래스에서 선포되었습니다. 늘 벼락치기로 말씀을 외웠고, 묵상은 하지도 못한 채 외우는 것에만 급급한 저였지만 정해진 시간에 암송반 링크 클릭을 주저하지 않았던 이유는 선포된 이 은혜의 법과 그곳에 스크린을 끄고 있지만 언제나 함께하고 있는 수민 자매와 지영 자매, 말씀 암송이 설렘이라고 고백하는 자매님들의 암송 소리, 그리고 그들의 진실한 나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은혜의 나눔을 늦잠 자고 일어난 막내에게 아침밥을 먹이면서, 사라진 색깔 크레용을 찾으면서, 점심식사 준비를 하면서도 들을 수 있기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온전히 참석하지 못하고 온전히 암송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괴롭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즈음에, 암송반 멘토 권사님께서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세요.' 라는 격려의 말씀에 종교적 잣대로 책망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이 제게 부어지는 듯하였습니다. 은혜의 법에 연이은 붙어 있으면 된다는 아낌없는 격려를 받으면서, 부족한 가지로 붙어있는 나 자신과는 상관없이 포도나무이신 주님이 내가 맺는 열매를 결정하신다는 생생한 믿음이 생기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제게 꽂아주신 이 링거 주사 바늘을 꽂고 있기만 하면 된다 라는 평안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여도 화면을 켜놓을 수 있었고 벼락치기로 외우던 말씀도 이제는 매일 아침 반복해서 읽으며 입술과 마음에 담을 수 있었으며 그 말씀이 빛이 되어 늘 어질러진 방 같던 제 삶이 정돈되기 시작했습니다. 잠들기 전 아이들을 위한 기도를 드릴 때 그 말씀들이 제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20년동안 뇌출혈로 병상에 계신 엄마의 시력이 다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로마서 5장 2-3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라는 말씀을 멍하니 외우며 '아멘' 이라고 답할 수 있었고, 힘들지만 선명하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여동생과 울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이 저를 붙잡고 계셨습니다.

저에겐 말씀 통독이 샤워였고, 큐티가 밥이었는데 게을러지면서 샤워는 점점 거르고, 밥은 형식적으로 겨우 먹고 있는 저의 영적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 암송이라는 영양주사를 놓아주셨습니다. 많은 암송반 자매님들이 매주 눈물 콧물 쏟으며 은혜를 나누어 주셨는데, '난 암송반 꼴찌야' 라고 생각하는 저에게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간증자로 제비뽑아 주시고 시작부터 지금까지의 은혜를 보게 하신 하나님께 <시편 103편 1-2절> 암송하며 저의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동행

이슬비 성경암송

지난 7월 전혀 예기치 못한 육신의 질병으로 두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나가 기도드리고 예배드리며 간절하게 치료해 주시고 고쳐 달라고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기도 중에 주님께서 저에게 들려주는 음성은 말씀 위에 기도하며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힘을 얻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무렵 향수 등록이 시작되었고 이슬비 암송반에 조인하게 되었습니다.

암송을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담도 있었지만, 주님이 주신 음성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목장에서 나눔 할 때 목장 식구들에게 선포를 하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 자매님께서 나중에 목장 식구들 앞에서 암송해 보면 좋을 것 같다고 하여 얼마 전에 주일 설교 말씀이었던 시편 91장 1절에서 8절을 목장 식구들 앞에서 암송할 수 있는 은혜도 있었습니다.

암송하면서 가장 크게 체험한 것은 말씀을 믿을 때 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같은 말씀을 암송하더라도 암송할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는 은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한 주 동안 각자 암송하고 소그룹으로 만나게 되어 은혜를 나눌 때 느꼈던 점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각자에게 역사하셨던 은혜를 조각조각을 모아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한 띠로 묶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음에 놀라웠습니다.

암송했던 말씀 중에서 빌립보서 4장 6~7절 말씀은 올케가 투병할 때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수술 전 안재규 목사님과 정훈 목사님이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저에게 돌아와 위로해 주고 저로 하여금 붙잡게 하셨습니다. 또 말라기 4장 2절은 뷸라에서 투병으로 힘든 형제님께 드렸던 말씀이었는데 또한 저를 치료하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병원 입구부터 혼자 수속하고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말씀을 암송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동행해 주심을 느끼며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혼자서 얼마나 두려울까?' 하며 불신자들을 생각하게 되었고, 말씀암송 중에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더 와 닿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물리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셨기에 우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는 말씀과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며,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 피로 인해 구원을 받았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습니다.

힘든 기간 이슬비 암송반으로 인도해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즐거워해야 함을 알려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또 소그룹으로 함께 은혜를 나눈 권사님과 자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이한광

성혜정 전도사님을 향한 고별 간증

성혜정 전도사 은퇴

성혜정 전도사님의 은퇴가 갑작스러운 것도 아닌데 막상 날짜가 다가오고 보니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쓸쓸할 수가 없네요. 향수여성예배가 시작되었던 2006년, 전도사님과 저의 인연도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기쁜 일도 많았는데, 오늘은 왠지 어려운 문제 앞에 함께 기도하며 견뎌 온 시간이 머리에 스쳐 지나갑니다. 생각해보면 향수가 처음부터 이렇게 아름답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은 매순간 우리 가운데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긴 세월이 지난 지금, 물 흐르듯 하나 되어 순종하며 섬기는 자매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름다운 향수 공동체 안에 제 이름도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요.

향수가 이렇게 성장한 중심에는 성혜정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동안 전도사님 옆에서 보고 배웠던 몇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전도사님의 무한한 인내와 사랑을 보았습니다. 여러가지로 서로 다른 여성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한마음 되어 하나의 목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습니다. 특별히 저를 위해서도 오래 참으시고 사랑으로 덮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심방에 동행하면서 전도사님의 특별한 '위로의 은사'를 보았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한 성도들과 아픈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과 말씀으로 용기와 힘을 주시는 한마디 한마디가 어찌나 적절한지 저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로 인해 저 에게도 힘든 성도들을 찾아가는 긍휼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세 번째로, 전도사님의 약한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보았습니다. 건강한 사람보다 더 열정적으로 설교하시고, 소그룹 클래스 개발과 리더 훈련에 힘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여성 리더를 세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당장은 연약해 보일지라도, 먼저 세우시고 용기를 주셔서 결국엔 훌륭한 여성 리더가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아마도 향수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이런 과정을 통해 세워진 리더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사님과 함께여서, 지난 14년의 저의 신앙생활은 더할 나위 없이 풍성했고 행복했습니다.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향수도 before 성혜정, after 성혜정으로 나누어지는 시간이 왔습니다. 전도사님의 앞날에 새로운 길을 활짝 열어 주시고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누리게 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감사꽃 한아름

김영미

성혜정 전도사 은퇴

세월이 흘렀습니다.
내 어찌할 수 없는 시간이 바람을 타고 지나갑니다. 막연히 '언젠가는…' '그때가 되면…' 하던 바로 그 때가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와 이별장을 건네줍니다. 알고 있었는데 몰랐던 것처럼 당황합니다. 알고 있었는데 모른 척 해왔습니다.
아이들을 주 안에서 어떻게 키워야 할 지, 어떻게 가정을 가꾸어야 할 지 모르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조곤조곤 사랑으로 안내해 주셨던 분,
부모 곁을 처음 떠나보는 아이들에겐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교회는 이런 곳이야' 눈빛과 미소, 다정한 인사로 포근히 맞아주셨던 분, 그 아이들 자라는 모습 살펴봐 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분, 어려운 일 맞닥뜨려 어떡하지 발 동동 구를 때에도 기도해 달라고 첫 번째로 전화하게 되는 분, 외로운 병실과 슬픔이 젖어있는 곳, 마냥 즐거운 기쁨의 자리….
그 어느 곳이든 우리들 삶의 여정에 주님 마음으로 늘 함께하셨던 분,
배우는 거 멈추지 않고 배운 거 나누는 것에 용기 주셨던 분,
작은 체구 어디서 그런 당당함이 나올까 놀랍게 하셨던 분,
젊은 사람들 생각지 못한 아이디어 무궁무진…
꼼꼼하고 디테일한 성실함에 또 놀라게 하시는 분,
자신의 건강보다 연약한 자매들 하나하나의 손을 꼬옥 잡아주고 중보해 주셨던 분,
이렇게 15년을 주님의 향수, 우리들의 향수를 이끌어 오셨던 분,
이렇게 25년을 주님의 교회, 우리들의 뉴비전을 섬겨오셨던 분……
전도사님, 사랑하는 성혜정 전도사님….
아직 다 드리지 못한 보답, 이렇게 사랑의 빚으로 잔뜩 남았는데 왜 이리 야속하게 작별시계가 울리는 것인가요? 전도사님 통해 받은 하나님 사랑 누가 누가 더 많은가 컨테스트한다면 우리 모두가 챔피언인데 그 러브스토리 다 담을 언어와 지면이 턱없이 부족함에 안타까워요.

눈가에 맺힌 방울, 흐르는 눈물, 그 안에 담긴 만감, 가까이서 꼼꼼히 볼 수 없고 따뜻한 온기 포근히 느낄 수 있는 포옹조차 나누지 못함이 너무나 아쉽지만 언제든 저희에게 오시면 편안히 묵으실 수 있는 사랑방 기꺼이 다투어 내어드릴 터이니 언제라도 좋아요, 전도사님….
버스 터미널, 기차역, 공항에 서 있는데 아직도 실감 나지 않는 마음으로 두 손 모아 부디 아무쪼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전도사님과 온 가족과 부르심 따라 걷게 되실 길 위에 영원 무궁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전도사님….
우리 모두의 감사꽃 한 아름 안겨 드리며…….
2020년 마지막 달 초하루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아
에스더 드림

성혜정 전도사

뉴비전교회의 사역을 마치며

은퇴인사

성도 여러분, 오랫동안 코비드19 펜데믹으로 많이 힘드시지요? 펜데믹 상황이 아니면 성도님들을 얼굴로 뵙고 손도 잡아드리면서 인사를 드리고 떠날텐데, 이렇게 비대면으로 인사드리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1996년 5월 1일, 이지춘 원로 목사님께서 담임목사로 시무하시던 "산호제제일침례교회"에서 영아부 전도사의 섬김을 시작으로25년 동안 뉴비전 교회를 섬겼습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뉴비전교회에서 주님의 종으로 써주시고, 공식적인 임기를 잘 마치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그동안 저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함께 동역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25년을 돌아볼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린이들이 믿음의 자녀들로 커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기쁘고 감사했던 어린이 사역,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투병하던 분들이 치유받으며, 아기를 간절히 바라던 가정에 아기들이 태어나는,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했던 중보기도 사역, 젊은 자매님들이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부부관계가 해결되고, 자녀들을 말씀 안에서 양육하며 가정이 화목해지는 향수 예배사역, 교회의 크고 작은 행사들을 거뜬히 치러냈던 뷸라 여선교회 사역, 교회의 기도의 어머니로 젊은 자매님들의 멘토가 되어 주신 권사님들과의 사역, 외롭고 연약한 성도들, 투병하는 성도들을 찾아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해드렸던 심방사역, 또한 연로하신 안나 공동체 어머니들과 공동체의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었던 축복, 가족을 잃고 슬픔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다가가 하늘의 위로와 희망을 전해주었던 "사별가정 회복모임 (GriefShare & Healing)", 그 외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역들을 성도님들의 브리지로서, 디딤돌로서, 때로는 딸과 언니와 엄마의 역할로 기쁨과 감사로 섬길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놀랍고 큰 축복이었는지요!

이 섬김의 사역의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을 더 알고 이해하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또한 나 자신을 알아가도록 다듬어주셔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모든 것에 만족하는 "은혜로 사는 자"로서 교회를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번의 수술을 하고 투병할 때, 기도와 위로와 음식과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과 선행으로 동역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특별히 투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연약한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속히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더 심방해 드리지 못하고 또 마음을 불편하게 해 드린 일이 있다면 예수님의 너그러운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챕터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며 끝까지 복음을 위해 달려가려 합니다. 지금까지 해주신 것 처럼,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성도님들 한분 한분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13-14말씀으로 작별 인사를 마치려고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 가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뉴비전교회
New Vision Church

1201 Montague Expressway, Milpitas, CA 95035
408-719-0000 | office@newvisionchurch.org
www.newvisionchurch.org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 Building God's People to Transform the Wor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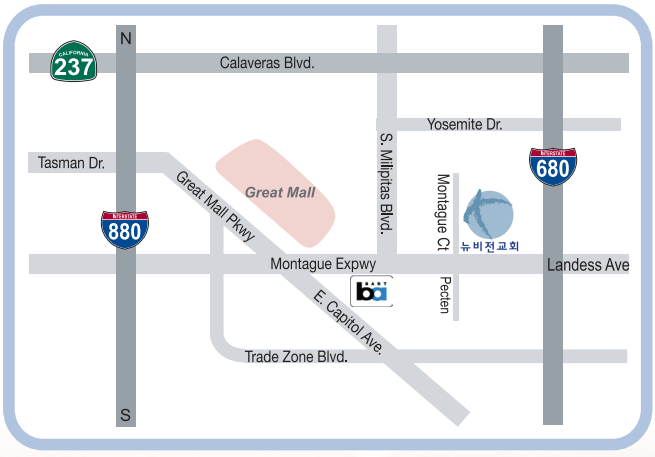
주일예배 | Sunday Worship

1부	8:00 am	본당
2부	9:30 am	본당
3부	11:15 am	본당
4부 청년 열린예배	1:15 pm	본당
영아부 (0-2세)	9:30 am & 11:15 am	본관 Little Lamb Garden
유치부 (3-5세)	9:30 am & 11:15 am	교육관 Noah's Ark
유년부 (1-2학년)	9:30 am & 11:15 am	교육관 New Song Chapel
초등부 (3-5학년)	9:30 am & 11:15 am	교육관 Wisdom Chapel
중등부 (6-8학년)	9:30 am & 11:15 am	교육관 Vision Chapel
고등부 (9-12학년)	9:30 am & 11:15 am	교육관 Lighthouse Chapel
영어대학부(Oasis)	1:30 pm	교육관 Vision Chapel

주중모임 | Weekly Schedule

매일 새벽기도회	5:30 am	본당 (토요일 6:30 am, 주일은 쉼)
화요 여성예배 (향수)	10:00 am	Pathway Chapel
수요 저녁예배	7:30 pm	본당
목요 청년예배	7:30 pm	Vision Chapel
금요 한국학교	4:30 pm	교육관 각 교실
금요 뉴비전성경학교	7:30 pm	본관 각 교실
금요 고등부 모임	7:30 pm	Lighthouse Chapel
금요 중등부 모임	7:30 pm	Vision Chapel
금요 어와나 (AWANA)	7:30 pm	Noah's Ark, New Song Chapel
토요 노아대학	9:30 am	본관 및 교육관 각 교실
열린학교	주중 클래스별로	본관 및 교육관 각 교실

※ 어린이부, 중고등부 예배는 2부 3부 장년 예배 시간과 같으며 1부와 4부 예배 시간에는 드리지 않습니다.
※ 예배 후에 장년 목장모임, 어린이부, 중고등부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 2021년부터 주일 장년 영어 예배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문의 EnglishWorship@newvisionchurch.org)



Find us on: facebook

NVC Website

SUBSCRIBE TO OUR CHANNEL